

천사들의 미스터리

엘 레이시 지음
정동수 옮김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천사들의 미스터리

앨 레이지 지음
정동수 옮김

1판 1쇄 / 2023년 5월 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정가 : 8,000원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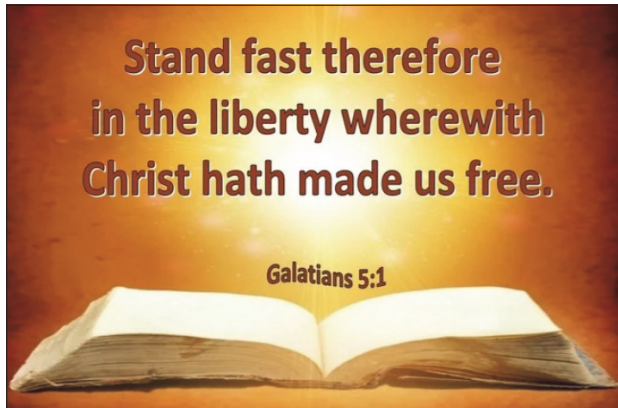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느니라. 너는 그분의 말씀들에 더하지 말라. 그분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므로 네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날까 염려하노라.”(잠30:5-6)

“Every word of God is pure: he is a shield unto them that put their trust in him. Add thou not unto his words, lest he reprove thee, and thou be found a liar.”(Proverbs 30:5-6)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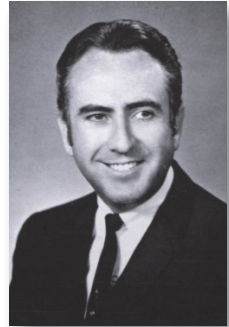
저자 서문	5
역자 서문	6
1장 천사들의 미스터리	9
2장 천사들의 창조	16
3장 천사들의 속성	29
4장 천사들의 타락	53
5장 천사들의 아이들	60
6장 천사들의 사역	101
7장 천사들의 왕	140
부록 1 영의 세계	151
부록 2 사 탄	163
부록 3 사탄의 삼위일체	171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갈5:1).

저자 서문

저는 여러 해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경의 많은 주제를 선정하여 학습 시리즈를 준비하고 편집하여 성도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본적 복음주의를 견지하며 여러 상황을 다룬 주제들을 가르쳐 왔는데 저희 성도들에게 천사에 관한 연구만큼 흥미와 매력을 느끼게 했던 학습 시리즈는 없었습니다. 천사에 관한 연구는 항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구가 진행되면서 흥분과 호의적인 견해를 보였으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써 보라고 제게 권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앨 레이시(Arlen Lacy)
(1933-2016)

이제 여러분은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담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미스터리」(*Mystery of The Angels*)라는 제목의 이 책은 이렇게 매혹적이고 신비로운 창조물을 주제로 해서 여러 해 동안 연구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이 신비한 존재는 힘에 있어서 이 땅의 어떤 존재보다 월등하며 지혜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합니다.

저는 이 책이 천사의 신비를 밝혀 줄 뿐만 아니라 독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도록 흥미를 북돋아 주고 천사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다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리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콜로라도주 리틀튼에서

앨 레이시(Al Lacy)¹⁾

1) 복음 전도자 앨 레이시의 감동적인 생애는 다음에 잘 요약되어 있다.

https://www.jesusprecious.org/bible/kjb/pastor_al_lacy_seminar.htm

역자 서문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하나님께서 성경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교리를 정립하고 바른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너희에게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벧전3:15)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매우 정확하며 이성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자녀인 우리 또한 맹목적으로 무지하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정립된 성경적 교리 위에 서서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이 책은 신약 시대의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성경을 자신의 전공과목을 공부하듯이 진지하게 공부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번역되었습니다.

자신의 책을 번역해도 좋다고 흔쾌히 허락해 준 레이지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남편과 아빠를 신뢰하며 같이 있을 시간을 희생해 준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글을 저술하는 동안 건강한 몸을 허락해 주신 주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²⁾

2009년 10월

인천에서
정동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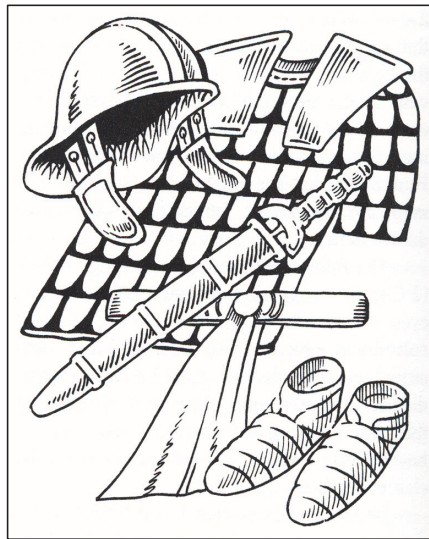
2)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천사들의 미스터리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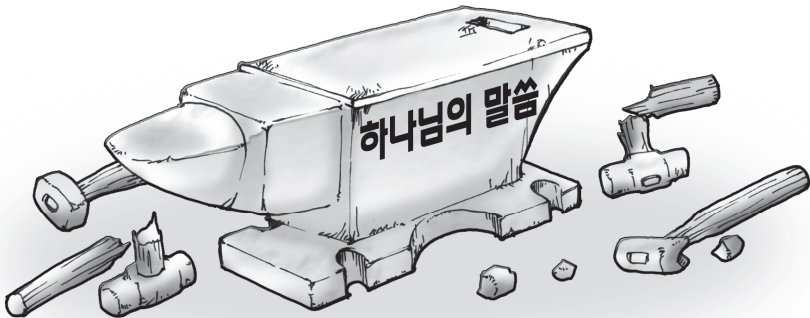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히1:14)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이렇게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 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쳤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합니다.



제1장

천사들의 미스터리

사람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그렇게 여길지어다(고전4:1).

아가사 크리스티, 대쉬엘 하멧, 코난 도일, 미키 스피레인, 알프리드 히치콕 등은 독자들이 손에 땀을 쥐게끔 하는 유명한 미스터리 추리 소설을 쓴 작가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 속의 모든 완숙한 기법을 다 합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미스터리(신비)¹⁾와 비교해 보면 사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참으로 성경은 미스터리와 관한 책으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미스터리가 많이 있으며 그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이미 계시를 통해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비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날 것입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되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신29:29).

저는 어렸을 때 ‘나는 미스터리를 사랑합니다’라는 제목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즐겨 들곤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만 되면 라디오에 귀를 꼭 붙이고 30분간 사람을 흥분과 감격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그 프로그램을 청취하곤 했습니다.

저는 또한 「서스펜스」, 「비밀의 서재」, 「그림자」 등의 신비 소설을 좋아

1) ‘미스터리’, 즉 ‘신비’는 라틴어 ‘미스테리온’에서 나왔다. 성경에서 ‘신비’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일,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만 그리고 그분께서 정하신 시간에만 알 수 있는 비밀스러운 일을 가리킨다. 성경에는 미스터리(mystery)라는 단어가 총 27회(단수로 22회, 복수로 5회)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나 제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미스터리만큼 저를 흥분시키고 제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많은 신비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마 13:11; 눅8:10), 올리브나무의 신비(롬11:24-25),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롬 16:25; 엡3:4),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고전2:7), 휴거의 신비(고전15:51), 하나님의 뜻의 신비(엡1:9),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의 신비(엡3:2-3),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의 신비(엡3:8-9),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신비(엡5:32), 복음의 신비(엡6:19),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골1:26-27), 아버지와 아들의 신비(골2:2), 불법의 신비(살후2:7), 믿음의 신비(딤후3:9),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딤후3:16), 일곱 별과 일곱 금등잔대의 신비(계1:20), 작은 책의 신비(계10:7-11), 바빌론의 신비(계17:5), 음녀와 짐승의 신비(계 17:7) 등.

이것들 외에도 수많은 은밀한 일과 신비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천사들에 관한 미스터리도 하나님 말씀의 신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이상한 창조물 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매우 신비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어 가면서 우리는 여러 부분에서 희미하게 나타나는 그들의 그림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땅에 속한 음식을 먹으며 모래 위에 자기들의 발자국을 남기고 어린이들을 보호하며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 주는 것과 사다리를 오르내리며 불꽃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마귀와 싸우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이끌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자들을 저주하는 것과 나사렛 사람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계시하고 그의 아내가 될 젊은 유대인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그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예고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침례자 요한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과 겸손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나실 것을 예고하며 그분의 비천한 출생지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셨을 때 우리 주님을 강건하게 해 주었고 그분께서 겟세마네에서 피땀을 흘리셨을 때에도 그분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알렸을 때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 속에서 다시 한 번 승리의 곡조를 듣게 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보이지 않게 한 뒤 우물쭈물하는

룻을 도시 밖으로 이끌고 나간 일과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구해 낸 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탕던 배가 폭풍 속에서 시달릴 때 갑판 위에서 그와 함께 있던 일들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항상 정상적이며 평범한 남자들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또한 그들이 사탄과 그의 사악한 천사들을 대항하여 싸운다는 것과 자기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왕좌 주변에서 크게 외치며 경배를 드린다는 것 그리고 구원에 관한 일들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며 지옥의 뚜껑을 열고는 멸망받은 혼들이 불 호수에서 불타고 있는 것을 내려다보게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 또한 세상 끝의 7년 환난기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 서 있으며 다니엘이 사자 굴에 갇혔을 때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했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구를 흔들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태양의 한가운데 서서 육식성의 사나운 새들을 큰 저녁 잔치에 초대합니다.

그들은 또한 거룩한 도시의 열두 문에 파수병으로 서 있으며 타는 불 속에서 왕들의 왕 되시는 주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와 마귀를 불 호수 속으로 내던지며 바다 속으로 큰 돌들을 내던지고 세상의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수확물을 거둡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신비 그 자체이면서도 밧모섬에 갇혔던 사도 요한에게 큰 신비들을 계시해 줍니다.

이 세상에는 천사에 관한 전설과 신화가 매우 많은데 그 이유는 실로 그들이 매우 신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천사들이 있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 다 알지 못하리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천사론’ 혹은 ‘천사들에 관한 성경적 교리’는 결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의 목적과 의도 그리고 욕망 등을 잘 보여 줍니다. 또한 성경은 그들의 감정과 느낌을 보여 주며 그들을 감싸고 있는 신비의 많은 부분을 보여 줍니다.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천사들에 관한 대부분의 신화는 종종 만화책 등에서 발견됩니다. 어떤 만화들은 “땅



▲ 다니엘에게 나타난 천사



▲ 뉴에이지 천사

위에서 선하게 산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서 천사로 나타난다.”고 하면서 천사의 머리 위에 후광이 있고 날개를 뒤로 달고 는 하얀 구름 위에 앉아 있는 존재로 묘사 합니다. 이런 데서 보면 그는 단순하게 생긴 얼굴을 이상하게 찡그린 채 하프를 켜며 여자 천사에게 재치 있는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신화들 속에는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1. 어느 누구도 착하거나 선하기 때문에 하늘(천국)에 가지 않는다.

사람이 천국에 가려면 먼저 자신이 선 하지 않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들을 회개하며 자신의 종교를 하수구에 내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눅13:3; 살전1:9; 요1:12 참조).

2.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결코 천사가 되지 않는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자기들이 죽으면 하늘에 가서 천사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토록 무지하다는 사실은 정말 저를 소름 끼치게 만듭니다.

3. 천사들은 결코 하늘에서 구름 위에 앉아 있지 않다.

성경에는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으며 천국에 구름이 있다는 사실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4. 천사들은 결코 후광을 갖고 있지 않다.

후광은 고대 바빌론 종교를 이어 받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신화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은 천사, 성인, 예수님, 마리아, 교황, 추기경, 주교, 고위 성직자, 수도승, 수녀, 사제들 뒤에 꼭 후광을 그려 넣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그들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에게는 마귀의 상징인 뿔을 그려 넣습니다. 불교의 성인들이나 부처 뒤에도 늘 후광이 따라다닙니다. 사실 후광은 모든 이방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 천주교 성자들의 후광

5. 천사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다.

아니 뭐라고요? 이 말에 놀라셨습니까? 독자께서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은 천사의 그림을 본 적이 있습니까? 해가 바뀌고 세대가 바뀌어도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다.’는 신화는 여전히 예술가들에 의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느 곳을 찾아봐도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나오지 않습니다.

스랍(Seraphim)들과 그룹(Cherubim)들은 물론 날개를 갖고 있지만 그것들은 ‘천사들’(Angels)이 아니고 특별한 ‘영적 존재들’(Spiritual beings)입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음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어떤 이는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음을 당신이 어떻게 압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하늘을 통해 날고 있는 천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는 그 천사가 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난다고 해서 날개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같은 책에서 사도 요한은 주 예수님과 하늘의 군대가 땅으로 날아서 내려오는 것을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등장하는 말들은 결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도 올리브산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 승천하셨지만 그분께서는 결코 날개가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천사가 날개를 갖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면 독자께서는 천사들이 종종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은 남자들로 오인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삿13:9-11; 행1:10; 10:30 등).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2).

자, 만일 어떤 이가 등 뒤에 날개를 달고 당신 집에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다면 어떻게 당신이 그것을 알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처음에 당신은 얼떨결에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날개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은 무언가 수상한데!”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천사들이 날개를 갖고 있었다면 성경에 자주 기록된 것처럼 그들은 평범한 남자들로 오인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6. 천사들은 단순하거나 어리석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들은 매우 지혜로우며 지적인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는 우리가 참으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남녀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탐구 영역에서 인류가 이루어 놓은 발전들은 다 사람의 지적 능력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타락했고 타락하기 전의 아담이 소유했던 굉장한 능력들을 상실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고 따라서 그들은 결코 타락한 아담이 소유한 표준 이하의 본성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 외에도 그들은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지식의 창고를 가득히 채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7. 여자나 아기 천사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천사들이 종종 남자로 오인되곤 했지만 여자들(혹은 아기들)로 오인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천사들의 이름도 다 남자의 이름입니다. 단수 대명사로 묘사될 때 천사는 항상 ‘그’(he)로 표현됩니다. 성경 속의 대화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들이 ‘남자들’(men)로 불립니다(창18:22; 19:1-5; 막16:5 등).

이같이 매력적인 하늘의 존재들에 대한 많은 것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말씀 속에 그들에 대한 많은 사실을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분께서 천사들의 미스터리를 감싸고 있는 휘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걷어놓으셨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구원받은 당신과 저는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있을 영원을 대비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이 같은 하늘의 존재들에 대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알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들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면 우리도 물론 그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쏟아야만 할 것입니다.



▲ 아기/여자 천사는 없다

그들은 보고 들음으로써 우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그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새로운 구절들을 만든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천사라 불리는 하늘의 존재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다면 이제부터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근거로 해서 가능한 상세히 천사들의 미스터리를 파헤치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 봅시다.

제 2 장

천사들의 창조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너희는 하늘들에서부터 주를 찬양하며 높은 곳들에서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주의 이름을 찬양할지니 이는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것들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니라(시148:1-2, 5).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졌고 하늘들의 온 군대가 그분 입의 숨에 의해 만들어졌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매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매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시33:6, 9).

성경은 종종 ‘하늘의 군대 혹은 군대들’(The hosts of heaven)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이 ‘군대들’은 다름 아닌 천사들입니다.

야곱이 자기 길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으므로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창32:1-2).

주 곧 주께서만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매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느9:6).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들어가니 목자들이 서로 이르되,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 주신 일 곧 일어난 이 일을 보자, 하고(눅 2:13-15)

위의 성경 구절들로부터 우리는 천사들이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네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오직 한 하나님, 즉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만이 셋째 하늘(대우주)에 존재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인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과거의 영원 속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비록 천사들도 우리처럼 창조된 창조물이지만 그들은 창조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람보다 더 오래되었고 또한 더 큰 위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하늘들 곧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과 주께서 정하신 달과 별들을 내가 깊이 생각해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사8:1, 3-5).

히브리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여 주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한 사람이 어떤 곳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마음에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그를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 위에 세우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하였으니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의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으므로 그의 아래 놓이지 않은 것은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하셨으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며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5-9).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지어졌으며 또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을 때 인성의 측면에서 역시 그와 같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두 경우 모두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현재 천사들보다 낮게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에는 사람들이 천사들보다 더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육체적 힘이나 지적 능력에서 천사들에게 뒤집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와 권위 면에서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1. 육체적 힘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시103:20).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왕하19:35).

천사들의 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 천사가 단단히 무장한 군인 십팔만 오천 명을 죽일 정도로 그들은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지적 능력

그리고 왕의 여종이 말하기를, 내 주 왕(다윗)의 말씀이 이제 위로가 되리라,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으사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간하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주 왕의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계시기 원하나이다, 하니라(삼하14:17).

천사들의 분별력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왕의 종 요압이 이런 식으로 말을 돌려서 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였나이다. 내 주께서는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에 따라 지혜로우사 땅에 있는 모든 일을 아시나이다, 하니라(삼하14:20).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천사들의 지혜 같은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3. 하나님 앞에서의 위치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눅1:19).

우리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위치를 얻은 적이 없습니다.

4. 권위

하나님의 천사들은 권위 있게 말하며 권위 있게 행동합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사위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과 이 도시 안에서 네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커졌으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창19:1, 12-13)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즉 도시를 파멸시키고 그 안에서 살릴 자들을 선정하며 그들에게 그곳을 떠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 같은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중 하나는 나사렛의 요셉에게 그의 아내 마리아를 버리지 말고 예정대로 그녀와 결혼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분부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마1:24)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권위로서 말하며 행동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천사들 보다 위에 있게 될 날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주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다루려 하며 그러기 전에 먼저 성경 두 구절을 비교하려 합니다.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 오른쪽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벧전3:22).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자마자 천사들이 그분께 복종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주어진 장소를 살펴봅시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좌에 앉게 된 것같이 나와 함께 내 왕좌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계3:21).

현재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후에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복종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6:3)

몇몇 신학자들은 위 구절의 천사들은 단지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지옥행 선고를 내리는 등의 판단을 하지 않고 천사들에 관한 문제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의 앞뒤 문맥을 보시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천사들에 관한 연구를 진행할 때 다음의 성경의 원리를

염두에 두면 독자들께서 이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앞뒤 문맥에서 언급되지 않는 한 천사는 항상 좋은 천사, 즉 하나님의 천사를 의미한다.

독자께서는 우리가 바로 앞에서 읽었던 히브리서 2장의 첫 부분을 유심히 보셨습니까? 특별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히2:5).

크리스천 여러분! 천사들은 다가오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 세상에서 주인공이 됩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전6:2)

여기에서도 ‘판단하다’의 의미는 ‘지옥으로 보내다’를 뜻하지 않고 사실과 사건들을 주관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구약 시대의 다니엘은 환상 속에서 이것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공의의 판결[즉 판단하는 것]을 주셨으므로 때가 오매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단7:22).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지금 우리는 천사들보다 조금 낮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 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서는 약 33년 반 동안만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9).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신성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박탈해 버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있는 ‘전지하신 능력’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떤 점에서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낮아졌을까요? 다음의 세 가지 면에서 그분께서는 천사들보다 낮아지셨습니다.

1. 사람이 되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한계 속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피곤하고 졸리기도 하며 시장하고 목마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겐세마네에서 그분께서는 극도로 피곤하게 되었습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눅22:43).

그분께서는 매일매일의 여행 속에서 시장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그분께서 도시 안으로 되돌아오시며 시장하시던 참에(마21:18)

그분께서는 또한 갈증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일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기록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요19:28)

그분의 몸은 또한 잠을 필요로 했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에 들이쳐 이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분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므로 그들이 그분을 깨우며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매(막4:37-38)

그러나 천사들은 결코 이런 면에서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들이 피곤하게 되었다는 구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비록 그들이 먹기는 했지만 성경은 그들이 굶주림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중 어느 곳도 그들이 갈증을 느끼는 것을 보여 주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땅에 속한 제약들이었습니다.

2. 사람이 되심으로써 주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을 통과하셨다.

오히려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이렇게 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2:9).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천사들보다 낮추셔서 죽을 몸을 입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눅20:34-36).

우리는 잠시 뒤에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독자들이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낮게 되셨다는 사실만을 인식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천사들은 죽을 수가 없지만 그분께서는 한 번 죽으셨습니다.

3.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시험과 유혹을 당하셨다.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공할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구조하실 수 있으니라(히2:16-18).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히4:15).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유혹을 당한 것을 성경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된 천사들, 즉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천사들은 결코 마귀나 세상으로부터 유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딤후5:21).

오, 우리 예수님의 겸손은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께서 당신과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천사들보다도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영원 전 과거 속의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사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언제 그들이 창조되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없고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는 암시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사람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그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루시퍼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전에 하늘의 군대가 창조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다음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그를 '두로의 왕'이라고 부르십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총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작은복과 네 피리의 작품이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 타락하기 전의 '뒷는 그림' 루시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겔28:11-15).

현재 우리에게 사탄(Satan)으로 알려진 루시퍼(Lucifer)는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는 에덴동산 안에 있었습니다(창3:1-6). 그러나 그는 그전에 하나님의 왕좌 위를 날아다녔던 기름 부음 받은 그룹(Anointed Cherub)으로서 하늘에 거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란 다름 아닌 하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시48:1-2; 사14:12-13). 이 같은 사실은 그가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만들어졌음을 보여 줍니다.

구약 성경은 종종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the sons of God)이라 불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구약 성경 속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 적이 없습니다(이 문제는 후에 자세히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으로 비교하며 좀 더 연구해 봅시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러므로 왕께서는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자신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온 군대가 그분 옆에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있었나이다(왕상22:19).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욘2:1).

위의 두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바로 하나님의 왕좌 근처로 모이는 ‘하늘의 군대’임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미 위에서 ‘하늘의 군대’가 다름 아닌 ‘천사들’임을 증명했습니다(창32:1-2; 느9:6; 눅2:13-15).

욘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땅의 기초를 놓기 전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께서는 그때에도 이미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느냐? 네가 알거든 *고하라*. 또는 누가 그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은 어디에 고정되었느냐? 혹은 누가 그것의 모퉁잇돌을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욘38:4-7)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기초들이 놓이기 전까지는 결코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히 언제 그들을 얼마나 많이 창조하셨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천사들을 대상으로 인구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만 그 큰 군대의 숫자를 알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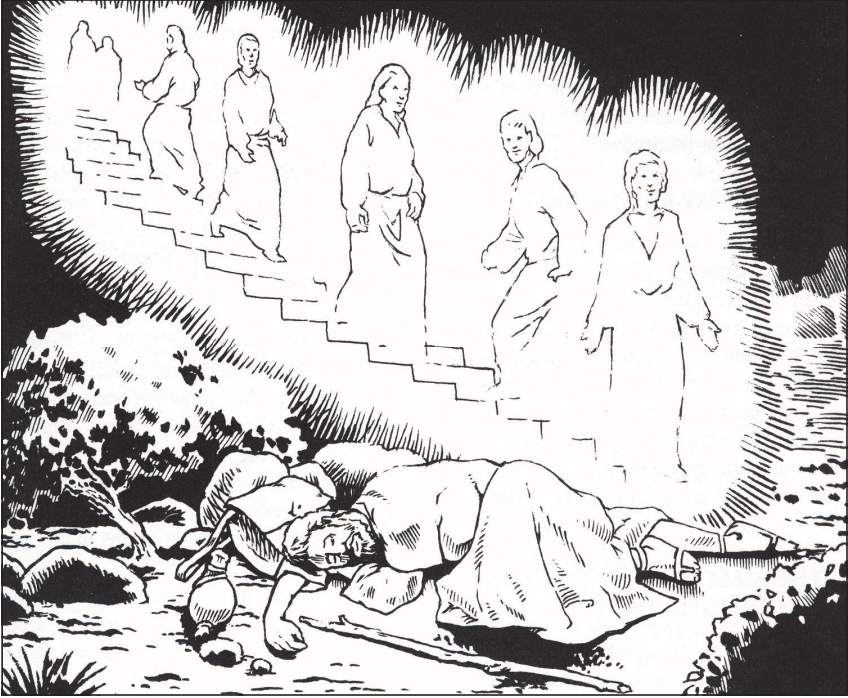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무한한 우주 안에 천사들이 무수히 많음을 매우 명료하게 보여 줍니다.

그들의 수가 매우 많음으로 인해 우리를 놀라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 속에 그 숫자에 대한 암시를 주고 계십니다.



▲ 창조 때에 이미 존재한 천사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나가 하란을 향해 가다가 어떤 곳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해가 졌으므로 거기서 온밤을 지냈으며 그가 그곳의 돌들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은 뒤



▲ 야곱의 사다리와 천사들

그곳에서 자려고 누웠더라. 그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 위에 세워졌고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으며, 보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또,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곧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주리니 네 씨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질 것이며 너와 네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창28:10-14).

만일 야곱이 하늘과 땅 사이의 수백만 광년의 거리를 연결해 주는 긴 사다리를 보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무한한 공간 속에서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그곳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병거들은 이만이니 곧 수천의 천사들이로다.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은 마치 시내 산 곧 거룩한 곳에 계심과 같도다(시68:17).

성경은 천사들을 세는 단위가 ‘수천’(thousands)임을 보여 줍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마26:53)

‘군단’이란 로마 군대의 구분 중 가장 큰 것이었고 6,200명의 보병과 300명의 기병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6,500명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두 군단의 천사들이란 78,000명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단 한마디에 78,000명이 넘는 천사들을 부르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군단’이 굉장히 큰 숫자를 의미하므로 종종 그것은 정규적인 많은 무리를 나타내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분께서 그에게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시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이름은 군단이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고(막5:9)

우리 주님께서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이라는 표현에서 ‘군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천사들이 그분의 명령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대언자 엘리사의 사역이 진행되는 동안 시리아의 왕은 그의 사역을 싫어했고 그래서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막아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종들을 모두 모아 놓고 말했습니다.

왕이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지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하니 어떤 자가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므로 왕이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왕하6:13-14).

우리는 그 ‘큰 군대’의 인원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 말 자체만 보더라도 무수히 많은 무리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왕하6:15)

그 불쌍한 종은 너무 놀라서 몸이 뻗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올테갈데없이 완전히 포위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사람의 장막으로 완전히 덮여졌고 그들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진땀을 흘리며 이빨을 덜덜거리고 온 몸을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잎사귀처럼 흔들거리며 엘리사에게 소리쳤습니다.

아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리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므로 그가 보니, 보라, 불 말들과 불 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왕하6:15-17).

당신은 누가 말과 병거들을 지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름 아닌 천사들입니다. 그곳에는 시리아의 군대보다 더 많은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라도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천사들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당신이 어떻게 천사들이 그 말들과 함께 있었음을 아십니까? 성경은 그 점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불 말들과 불 병거들 위에 누가 타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확실한 대답을 원하십니까?

다리오의 제이년 십일월 곧 스باط 월 이십사일에 주의 말씀이 잇도의 손자요, 베레기야의 아들인 대언자 스가라에게 임하니 그가 말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남자가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는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들이 있기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하니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남자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주께서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 하니라. 그들이 은매화나무들 사이에 서 있는 주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땅을 이리저리 지나다녀 보았는데, 보소서, 온 땅이 평안하며 안식하고 있나이다, 하더라(슁1:7-11).

여기에는 분명히 천사들과 말들이 함께 땅의 여기저기를 다닌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많은 군대였음이 분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펴보기 위해 이리저리 옮겨 다닙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 34:7).

주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이루시려면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님께서 탄생하던 때에 모였던 천사들의 무리를 묘사하고 있는 다음 성경 구절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눅2:13-14).

여기서 ‘무리’로 번역된 ‘multitude’라는 단어는 참으로 많은 숫자의

군중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하늘의 군대들의 큰 무리에 대해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계5:11).

만만이란 일억을 뜻하며 천천이란 또 백만을 뜻하니 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만일 당신이 그것만으로는 아직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음 구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innumerable) 천사들의 무리와(히12:22)

웹스터는 자신의 이름을 딴, 그 유명한 웹스터 사전에서 ‘innumerable’이란 단어를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그분께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있고 여러분과 저는 그들을 셀 수가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 매일같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돌봐 주고 있습니다.

제 3 장

천사들의 속성

이처럼 묘한 하늘의 존재들을 둘러싸고 있는 신비의 끈을 풀어 가기 위해 지금부터 우리는 그들의 속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보려 합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존재들인가요? 만일 천사를 볼 수 있다면 과연 우리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만져 볼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을까요? 그들도 우리처럼 나이를 먹게 되면 연약해질까요? 그들도 죄를 지을까요? 그들은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을까요? 이 같은 질문에 대해 우리는 지금부터 오직 성경을 통해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먼저 천사들의 일곱 가지 속성을 하나씩 살펴봅시다.

1. 천사는 육적인 몸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영적 존재이다.

오 내 혼아, **주**를 찬송하라. 오 **주** 내 하나님이며, 주께서는 심히 위대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으로 덮는 것같이 빛으로 자신을 덮으시고 하늘들을 휘장같이 펼치시며 물들 속에 자신의 방들의 들보들을 얹으시고 구름들을 자신의 병거로 삼으시며 바람 날개를 위에서 거니시고 자신의 천사들을 영들로 삼으시며 자신의 사역자들을 타오르는 불로 삼으시고(시104:1-4)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느냐?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히1:13-14)

천사는 분명히 영적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처럼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면서 그들은 매우 신비하게 육적인 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의해 목격되며 만져질 수 있습니다.

주께서 마르레의 평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three men)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는 장막 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 이르되, 내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호의를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의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오며 원하건대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신 뒤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쉬소서. 내가 빵 한 조각을 가져오리니 당신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뒤에 지나가소서. 이런 까닭으로 당신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나이다, 하매 그들이 이르되, 네가 말한 대로 그리하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있는 사라에게 들어가 말하되, 고운 가루 삼 스아를 속히 준비해서 반죽하여 화덕에다 납작한 빵들을 구우라, 하고 또 아브라함이 소 떼로 달려가 연하고 좋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젊은이에게 주니 그가 급히 그것을 요리하므로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젊은이가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 놓고 나무 밑에 있는 그들 곁에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창18:1-8).

같은 장의 10, 17-20절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세 남자 중 가운데 있던 남자는 ‘성육신하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Pre-incarnate Jesus Christ)로서 곧 주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남자는 천사들입니다. 「개역성경」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어 성경은 ‘men’을 ‘사람’으로 번역했지만 실제로는 ‘남자’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남자들(the men)이 거기서 일어나 소똥을 바라보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려 그들과 함께 갔는데(창18:16)

주님께서서는 아브라함과 말씀을 더 나누시기 위해 뒤에 남으셨고 다른



▲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 천사

두 명의 남자들은 소돔을 향해 떠났습니다.

저녁때에 두 천사(two angels)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창19:1)

아브라함이 보았던 세 남자는 갑자기 아브라함의 앞마당에서 나타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가 멀리서부터 그들이 오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 옆에 섰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분명하게 ‘appeared’, 즉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사는 이 세 남자 중 한 명이 바로 주님이심을 금방 보여 줍니다. 창세기 19장 1절은 다른 두 남자가 천사라는 사실과 롯 또한 그들을 보았음을 확인해 줍니다. 롯은 그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남자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창19:12)

롯은 그들을 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만져도 보았습니다.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서두르게 하며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그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이매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고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 그 도시 밖에 두었더라 (창19:15-16).

여기에 나타난 대로 천사라는 영적 존재는 우리와 같은 육적인 몸을 취할 수 있고 말 그대로 땅에 있는 모든 물체를 만지고 다룰 수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만나를 먹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한 뒤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 때 먹었던 실제의 음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이 거주하는 땅에 다다를 때까지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땅의 경계에 다다를 때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출16:35).

시편 78편에서 시편 기자는 광야 생활을 회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이것을 듣고 진노하시매 이에 야곱을 대적하여 불이 붙었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분노가 올라왔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분의 구원을 신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비록 그분께서 위로부터 구름들에

게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들을 여시며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음에도 그들이 그리하였도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시78:21-25).

천사들도 우리처럼 배고픔을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먹는다는 즐거움을 위해 먹을 것입니다. 분명히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천사가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 즉 만나를 먹었다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의 나무 밑에 앉았을 때에도 천사들은 사람들이 먹는 것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버터가 흥건히 발린 송아지 고기를 먹었고 우유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들의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셨을 때 입었던 몸, 즉 영화로운 몸과 같은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뒤 같은 날 곧 주의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서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화평이 있을지어다, 하시고(요20:19)

이 기사에서도 우리 주님께서서는 바로 벽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즉 갑자기 나타나셨습니다. 이와 똑같이 그분께서는 무덤으로부터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천사가 돌을 밀어냈을 때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미 그곳을 떠나 거기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바로 그



▲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천사들의 음식인 만나를 주셨다

방에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셨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 보게 하셔서 자기가 정말로 진짜 몸을 갖고 있음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짜 몸을 소유하신 우리 주님께서 벽을 통과하여 방으로 불쑥 들어오셨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바로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셨으므로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과 별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가져다가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눅24:39-43).

우리는 위에서 천사들이 영적 존재들이며 사람들처럼 육적인 몸을 갖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을 목격하고 느끼며 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말도 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부활하신 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똑같습니다. 크리스천이시여, 당신과 나도 얼마 안 있으면 바로 그와 똑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빌3:20-21).

천사에 관한 것 중 흥미로운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육체를 갖고 나타날 때 그들은 매우 빛난 광채로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전혀 없이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에 간 마리아는 번개 같은 용모를 한 주님의 천사를 만났습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므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마28:1-4).

삼손의 어머니 역시 무서운 용모를 한 천사를 만났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녀에게 이르되, 이제 보라, 네가 수태하지 못하므로 낳지 못하나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 이에 그 여인이 가서 자기 남편에게 고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왔는데 그의 용모가 하나님의 천사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우므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삿13:3, 6).

위에 있는 대로 어떤 경우에는 천사들의 용모가 번개 같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에게 나타난 천사들은 전혀 그런 용모를 띠지 않았습니니다. 심지어 소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보고 그들이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창19:5)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1-2).

만일 천사들의 모습이 번개와 같아서 아브라함이나 롯이 벌벌 떨게 되고 마치 죽은 자들처럼 되었다면 그것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천사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목적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자신들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취할 수 있는 영적 존재들입니다.

2. 천사는 모두 남성이다.

이 말에 많은 분들 특히 신학교 교수님들은 당황해 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많은 주제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 많은 이들이 화를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어떤 논쟁을 두려워했다면 저는 결코 침례교 목사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문제를 조금만 다룰 것이고 뒤에 가서 이 문제의 핵심을 상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천사들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며 중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믿는 분들 중 대다수는 선하고 정직하며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저는 이런 분들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천사들은 성(性)이 없다고 믿는다 해도 그것은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이며 저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을 만한 교리가 아니며 저는 5장에서 다루게 될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느낍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의 무오성, 예수님의 처녀 탄생, 피의 속죄, 그리스도의 신성, 은혜에 의한 구원, 그리고 명확한 신약 시대 교회의 교리 등을 믿지 않으며 의문을 제기한다면 저는 단 3초 내에 당신과 절교할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론에 대한 것은 절교를 초래할 정도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는 천사론을 옹호함으로써 매우 위력적인 성경의 진리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들은 성(性)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을 인용하여 자신들의 주장을 세우려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곤경으로 몰아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곱 명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간 한 여자의 경우를 가정하고는 이 문제를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부활 때에 그녀가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인지를 알고자 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을 범하고 있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29-30).

우리는 5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독자들께서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 구절이 “천사들은 성(性)이 없다.”라고 말합니까? 글쎤요? 아니지요. 이 구절은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름이 아니고 여자 천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성경에서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천사들이 항상 남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천사가 언급된 구절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단수 대명사로 표시될 때 천사들은 100% 모두 ‘그’(he) 혹은 ‘그를’(him)로 표현되어 있으며 결코 ‘그녀’(she)나 ‘그녀를’(her)로 표현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만일 그들이 중성이었다면 ‘그것’(it)으로 표현되어야 했지만 성경에서는 그들이 중성인 ‘그것’(it)으로 표현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천사는 항상 남성을 지칭하는 ‘그’(he)로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진 천사들 모두 남자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퍼 등. 한번 구체적으로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his countenance)

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his raiment)이 눈과 같이 희므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him)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마28:2-4).

성령님께서서는 분명히 천사를 가리켜 ‘그의’ 혹은 ‘그를’이라고 기록하셨습니다. 결코 ‘그녀의’ 혹은 ‘그녀를’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의’도 아닙니다.

천사가 예루살렘 위로 자기 손(his hand)을 내밀어 그곳을 멸하려 할 때에… (삼하24:16)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시려고 한 천사를 그곳에 보내셨는데 그가(he) 멸할 때에 **주**께서 보시고 그 해악에 대해 뜻을 돌이키사… (대상21:15)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he)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행12:7).

나 요한이 이것들을 보고 들었노라. 내가 듣고 본 뒤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 준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리매 그때에 그가(he) 내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종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계22:8-9).

성령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천사들이 남성인 것도 아시므로 성경 안에서 천사를 모두 남성으로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는 분이라고 비난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천사들이 남성이므로 성령님께서서는 성경에서 그들을 모두 남성으로 분류해 놓으셨습니다.

3. 천사는 남자와 매우 비슷하다.

천사들은 모두 남성일 뿐만 아니라 마치 우리 남자들처럼 생겼습니다. 제가 이 부분의 제목에서 ‘비슷하다’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우리와 비슷하게 생긴 했지만 힘, 지혜, 하늘의 능력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체적인 크기나 생긴 모습 등을 따져 보면 그들은 우리네 남자들하고 똑같습니다. 신체적 크기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해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 도시 주위를 돌고 있는 곳을 가 봅시다. 그들은 그곳에서 도시의 치수를 재고 있었습니다.

또 그(천사)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이더라(계21:17).

수정같이 깨끗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치수는 천사의 치수와 똑같습니다. 큐빗이라는 단위는 사람의 팔꿈치에서부터 가운데 손가락 끝부분까지의 길이입니다(약 45cm 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천사들과 사람들은 같은 치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천사들이 사람들을 능가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나은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결코 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천사들이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다음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가서 그분께 기름을 바르려고 이미 향품을 사 두었더라.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러 주리요? 하고 바라볼 때에 돌이 굴러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무덤으로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a young man)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막16:1-5)

그런데 성도 마태는 여기 나오는 이 ‘청년’이 분명히 천사였다고 기록합니다.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므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마28:1-5).

흥미롭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천사는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살아왔지만 성경은 그를 ‘청년’(young man)이라 부릅니다. 또한 그가 ‘젊은 남자’(young man)로 불렸다는 사실에도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천사들이 우리보다 여러 면에서 우월하지만 생김새에서는 우리 남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종종 ‘그들’(them)을 ‘남자들’(men)이라고 부릅니다.

- 창세기 18장 2절의 ‘남자들’(men)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천사들’(angels)로 판명 납니다.
- 스가랴 1장 10절의 ‘남자’(man)는 스가랴 1장 11절에서 ‘천사’(angel)로

판명 납니다.

- 누가복음 24장 4절의 ‘두 남자’(two men)는 요한복음 20장 12절에서 ‘천사들’(angels)로 판명 납니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을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자기들 곁에 서 있으므로(눅24:4)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고 있는데(요20:12)

사도행전 1장 10절의 ‘두 남자’(two men)는 마태복음 28장 3절,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처럼 ‘천사들’(angels)로 판명 납니다.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거든 고넬료에 관한 다음의 기사를 살펴봅시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부대의 백부장이더라.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자기의 온 집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백성에게 구제물을 많이 주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하루는* 낮 아홉 시쯤 되어 그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에게 들어와 자기에게, 고넬료야, 하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보매 고넬료가 그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하므로 그가 고넬료에게 이르기를, 네 기도와 네 구제가 올라와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었으니(행10:1-4)

여기서 우리는 한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무엇인가를 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 대해 고넬료 자신이 베드로에게 무어라 이야기 하는지 살펴봅시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며 아홉 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이르되,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행10:30-31)

분명히 성령님께서서는 고넬료를 방문한 사람이 천사였다고 말하며, 고넬료는 그를 ‘한 남자’(a man)라고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천사들이 참으로 남자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늘의 군대는 남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바로 사람의 형상과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어 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남성과 여성으로 그들을 창조하시니라(창1:26-27).

웹스터 사전은 ‘형상’(image)을 ‘모방품’(copy) 혹은 ‘복제품’이라고 정의합니다. 또한 이 사전은 ‘모습’ 혹은 ‘모양’(likeness)을 ‘다른 것과 닮은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도 사람처럼 생겼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므로 사람도 역시 영, 혼, 육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의 존재’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경 속에서 증명됩니다. 자, 이 말을 증명해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시므로 사람도 역시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독자께서는 바로 위에 있는 창세기 1장 26-27절 말씀에서 ‘우리’ 그리고 ‘우리의’라는 복수형 대명사가 쓰였음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성 안에 서로 다른 세 인격체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명백하게 삼위일체를 가르쳐 주는 요한일서 5장 7절 같은 구절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모든 성경에서 삭제되었습니다.¹⁾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람도 역시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바로 그 앞의 문제를 살펴봅시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도 사람과 같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여러 차례 이 땅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께서 마므레의 평야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더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으므로 그가 그들을 보고는 장막 문에서 달려가 그들을 맞이하며 땅바닥에 엎드려 절하고(창18:1-2)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창세기 19장 1절은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남자들 중 두 명이 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또한 소돔에

1)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과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개역성경, NIV, NASB 등의 현대 역본들은 모두 이 구절을 삭제해 버렸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역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13구절을 통째로 삭제해 버렸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독자는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킹제임스 성경 변호」,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개역성경 분석」,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애)를 참조하기 바란다.

사는 동성애자들도 이 천사들을 남자들로 인식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이 있었던 롯의 집을 둘러싸고는 롯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들어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리고 나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창19:5)

여기에 나오는 ‘알리라’(know)라는 단어는 성적 관계를 맺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창세기 4장 1절과 25절에서도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이를 확증하기 위해 마리아의 말을 보도록 합시다.

그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I know not a man)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눅1:34)

저 사악한 소돔 사람들은 천사들이 남자들과 똑같이 생겼으므로 그들을 남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에게는 어떤 후광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물론 날개 같은 것도 없었지요. 소돔 사람들은 그 남자들(천사들)과 더불어 동성애 관계를 맺으려 했던 것입니다. 만일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다고 생각하신다면 창세기 19장 6-8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롯이 문에 있는 그 시/婦들에게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는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보기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되 오직 이 남자들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까닭으로 그들이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느니라, 하매(창19:6-8)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세 사람 중 두 명의 천사들을 제외한 다른 남자는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은 그분께서 하나님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더 대화를 나누기 위해 그곳에 남으셨음을 보여 줍니다(9-33절 참조). 이 구절들을 살펴보면 그 남자는 열세 번이나 ‘주’(Lord)라고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분은 언제나 남자의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는데 어떤 남자가(a man) 날이 새도록 그와 씨름하다가(창32:24)

그렇다면 야곱과 함께 씨름을 했던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요? 물론 야곱은 그분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야곱이 이르기를,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하나님을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창32:30).

그는 태 속에서 자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았고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 힘을 겨루었다. 참으로 그는 천사보다 힘이 세어 이겼고 울며 그분께 간구하였다. 그분께서 벨엘에서 그를 만나셨고 그분께서 거기서 우리와 말씀하셨으니(호12:3-4)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을 보았는데 그때 그분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채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에 눈을 들어 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자기와 마주 서 있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 편이냐? 하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지금 주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며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자신의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이까? 하매 주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므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5:13-15).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는 남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자가 아니라 남자이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나무로 엮은 왕관을 쓰고 자주색 긴 옷을 걸치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the man) 보라! 하니라(요19:5).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man)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딤후2:5).

승천하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남자로 계십니다. 지금도 남자이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남자이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도 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체로’(in the form of God) 계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바로 남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체 또한 남자입니다. 이 같은 연유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골2:9)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되셨으며 특별히 남자가 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남자의 모습 이외에 다른 모습은 취할 수 없었습니다. 부활 후 승천하셨을 때에도 그분께서는 남자로 올라가셨습니다(딤후2:5). 물론 그분은 그곳에서 지금도 남자로 계십니다. 승천하신 뒤 약 60년이 지나서 그분께서는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찾아오셨는데 그때에도

그분은 남자였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음성을 알아보려고 내가 돌아섰으며 돌아설 때에 일곱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일곱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the Son of man) 같은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계1:12-13).

휴거가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서는 친히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려고 오실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분께서는 지금 있는 그대로 남자로 오실 것입니다.

첫째 사람(the first man, 원래는 첫째 남자)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the second man, 원래는 둘째 남자)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땅에 속한 자들은 또한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으니(고전15:47-48)

웹스터 사전이 ‘형상’을 ‘복제물’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서 갖게 될 새로운 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무어라 기술하였는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닌 것같이 또한 하늘에 속하신 그분의 형상을 지니게 되리라(고전15:49).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의 형상을 입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사람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분께서 지금 영화로운 몸을 입고 계시긴 하지만 그분은 여전히 지금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의 모습, 즉 젊은 남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도 그분과 똑같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요일3:2).

그러므로 우리도 하늘에서 그분과 같은 형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흠에 속하지 않으므로, 즉 노쇠해지거나 불완전한 몸으로 살지 않으므로 우리는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자들, 다시 말해 영화로운 몸을 입고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의 몸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사람의 형상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주변 환경과 전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결코 주변의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 사람(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히10:12)

지금도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으로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로서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의 광장을 메우고 있는 천사들도 역시 사람(남자)과 비슷합니다.

4. 천사는 죽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을 얻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질 자들은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이 천사들과 동등하고 부활의 아이들로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이라(눅20:34-36).

예수님께서서는 이 구절에서 하늘의 천사들이 죽을 수 없음을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더 확실히 드러납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일에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되실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히2:14-17).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만일 예수님께서 처녀 탄생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셨다면 그분께서는 죽으시려 해도 죽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다면 그분께서는 결코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대가, 즉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 혼, 그 혼은 죽을지니라.(겔18:20)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롬6:23).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서는 자기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써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으셨고 또한 그리함으로써 지금 마귀를 파멸시킬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천사들의 무덤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천사들은 나이를 먹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로 노쇠해져서 결국 숨을 거두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5. 하늘의 천사는 거룩하다.

하늘에 있는 궁전에 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모든 창조물은 거룩합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마25:3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막8:38).

셋째 천사가 그들을 뒤따르며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향으로 고통을 받으리니(계 14:9-10)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천국에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모든 것에는 죄의 오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잠시 대언자 이사야가 보았던 거룩함을 살펴봅시다.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상천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사6:1-3)

스랍들이 두 번 혹은 네 번 ‘거룩하다’고 외치지 않고 세 번 ‘거룩하다’고 외친 사실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외침 중 하나는 성부 하나님께, 다른 하나는 성자 하나님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삼중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주변에 있으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오고 가는 천사들은 다 거룩합니다.

6. 천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

단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비록 천사들이 지혜로우며 지적이긴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천사들이 알고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들뿐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똑같아서 우리도 오직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들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주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무화과나무’(이스라엘)를 볼 수 있고 그것을 봄으로써 자신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매우 주의 깊게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께서만 아시느니라(마24:36).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들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들뿐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면서 또 뉴에이지 운동과 종교 통합 운동 등에 의해 적그리스도를 위한 무대가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음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그 사실에 대해 우리보다 더 많이 알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보다 많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알지 못합니다.

또 다른 예외가 있습니다. 천사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거듭나서 예수님의 피로 씻긴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들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들이니라(벧전1:8-9, 12).

천사들은 구원에 관한 일들을 단지 살펴볼 수만 있습니다. 어느 천사도

죄의 모래 더미에서 구출되어 단단한 반석 위에 올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천사들은 사탄의 노예 시장으로부터 구출된다는 것과 불타는 것으로부터 구출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실로 어느 천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기쁨과 그분의 뼈 중의 뼈가 되고 그분의 살 중의 살이 되는 놀라운 기쁨, 즉 그분의 신부가 되는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7. 하늘의 천사는 순종한다.

참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귀중한 진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을 듣게 될 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줍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시103:20).

천사들의 최우선 임무는 자기들의 창조자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다룰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천사들은 모두 타락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타락하지 않을 '하나님의 선택받은 천사들'입니다(딤후5:21).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어떤 도덕률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표준과 원칙들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책임을 주셨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놀라운 겸손 속에서 자신들의 도덕률을 따라 엄격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단 한 명의 반역하는 천사도 없습니다. 또한 천사들은 자기들의 질서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기들이 수행할 과제나 직무 순번 등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천사들이 다른 천사들보다 더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질투나 시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겸손하게 그리고 엄격하게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마6:10).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반역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분의

뜻에 반대하는 불순종이 없습니다. 아! 이 땅에서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아담의 타락한 속성을 지닌 사람은 순종의 영이 아니라 그와 반대인 불순종의 영을 지니고 있습니다.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도다.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엡2:1-3)

첫 아담의 후예들은 모두 불순종의 영(마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마지막 아담(고전15:45)은 새로운 인종의 머리가 되는데 그 인종의 구성원인 모든 사람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고후5:17).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천사들과 매우 비슷한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성은 마치 천사들의 본성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의지와 욕구를 나타내 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받은 천사들처럼 죄를 지을 수 없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딤후1:21).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9).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그 ‘씨’는 결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쌍한 신학자들은 매우 간단한 산수조차 하지 못합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몸 안에는 실제로 두 명이 살고 있습니다. 즉 옛 사람과 새 사람입니다. 옛 사람(혹은 육신)은 곧 우리가 육적으로 태어났을 때 입고 있던 반역하기를 좋아하고 죄로 가득 차 있으며 타락한 아담의 옛 본성입니다. 새 사람은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해 두 번째 태어났을 때 갖게 된 본성, 즉 거룩하고 죄 없으신 하늘의

하나님의 새 본성입니다. 이 같은 진리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성경을 찾아봅시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이 약속들에 힘입어 너희가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벧후1:3-4).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씨’는 그 사람의 후손들의 성품을 만들어 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인의 ‘씨’로 수태되심으로써 그분 자신의 인성을 얻지 않았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9).

하나님의 ‘씨’는 그분 자신의 신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게 될 때 그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됩니다. 이 같은 새로운 신성은 ‘새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옛 사람’은 그 사람이 그의 어머니의 태 속에서 수태된 순간부터 그 안에 존재해 왔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 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받았으니*(엡4:22-24)

옛 사람은 부패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악하며 죄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을 합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창조되었고(벧후1:4) 또한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사람, 즉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고 바로 이 ‘옛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7절에서 옛 사람을 ‘죄’라 불렀고 자기 안에서 잘못 행하는 것은 ‘새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에베소서 4장 22-24절에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는 옛 사람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지배하게 하든지 혹은 새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면에서 새로워진 자니라(골3:9-10).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은 바로 옛 사람(혹은 육신)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요일3:9).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천사들의 본성과 비슷한 새로운 본성이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 사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사들로부터 교훈을 받아 하나님께 복종해야만 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성경을 읽는 중에 천사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다거나 혹은 겁을 났다는 것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같은 속성, 즉 두려워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종은 그 안에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아 훗날 상속재산으로 받게 될 곳으로 나가면서 순종하였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나갔으며(히11:8)

아브라함은 지도도 없이 이방인의 땅을 여행하며 알지도 못하는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결정 속에는 어떤 머뭇거림이나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순종은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모든 이들은 사도 바울의 용기로 인해 매우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매일같이 위협을 받는 중에서도, 육체적으로 매를 맞고 위험한 날씨와 기근을 겪으며 더러운 감옥에서 지내는 중에서도, 자기의 동료들이 배반하는 중에서도 그는 연마된 다이아몬드처럼 하늘 위로 치솟으며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의 용기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의 용기는 자신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가 받는 모든 고난은 순전히 그의 사도직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역경과 고문과 죽음을 두려움 없이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주님께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말미암지도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께 의해) 사도가 된 바울은(갈1:1)

그리하여 두려움을 물리친 사도 바울은 경건치 못한 자들의 조류를 밀어내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결국 교수대에서 처형되었습니다. 순종은 그 안에 두려움이 없는 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채찍질, 감옥살이, 그리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 주었던 용기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체포되어 종교 회의에서 거물들 앞에 불러 나왔습니다.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리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이에 그 *사람들*이 백성으로 인해 사도들을 차별할 방도를 찾지 못한 채 사도들을 더 위협하고 풀어 주니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이루어진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이며(행4:18-21)

그 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겁에 질린 개처럼 꼬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밖으로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행4:31).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에 대제사장과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들 곧 (사두개인들이라는 분파에 속한) *자들*이 일어나 다 분노로 가득 차서 사도들에게 손을 대고 그들을 일반 감옥에 넣어 두었으나(행5:17-18)

바로 이 시점에서 매우 재미난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천사들

중 하나를 감옥으로 보냅니다. 힘이 뛰어난 그 천사는 감옥의 문들을 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말합니다.

가서 상전 안에 서서 이 생명의 모든 말씀들을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행5:20)

사도들은 또다시 깜짝 놀란 관리들에 의해 체포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들이 감옥을 그렇게 잘 탈출할 수 있는가를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 그 천사에게 복이 있기를!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히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너희 교리로 예루살렘을 가득 채웠고 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 하므로 그때에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사람들에게 순종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느니라(행5:27-29).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불 옆에 서 있던 대적들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겁 많던 베드로는 놀라울 정도로 용기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벌벌 떨며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다른 이들도 지금은 물러서지 않는 용기를 보여 줍니다. 이게 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 그 안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영이 있습니다.



▲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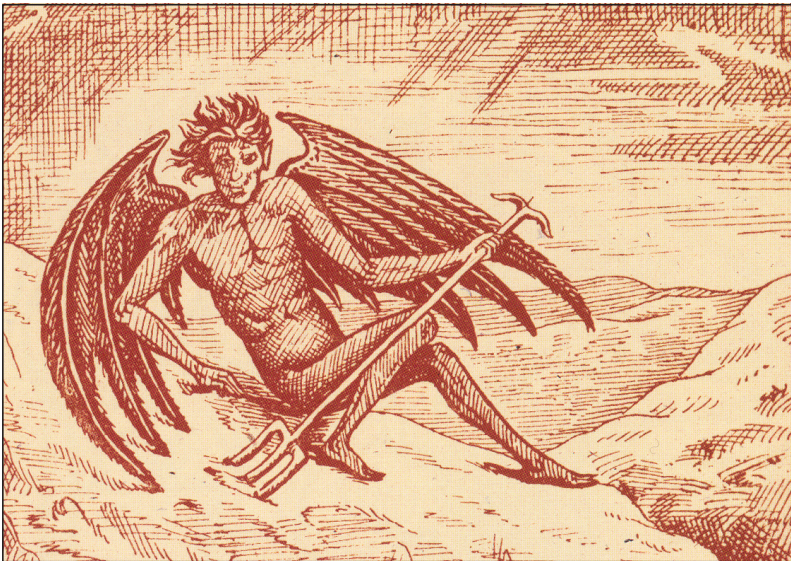
크리스천이시여, 당신과 내가 어떻게 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천사들과 같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 4 장

천사들의 타락

성경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사들 중 상당히 많은 수가 타락하였으며 그 후에는 그들이 결코 처음 상태, 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갖고 있던 위치로 되돌아오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그들을 탄핵하셨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분의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의 천사들입니다.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첫째 영적 존재였던 루시퍼의 타락과 그로 인한 죄의 시작을 한번 살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된 루시퍼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악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사14:12-15).

루시퍼의 타이틀인 ‘아침의 아들’(son of the morning)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가 한때 매우 아름다웠으며 타락하기 전에 하늘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루시퍼가 타락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대항하기 위해 다섯 가지 사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무려 다섯 번이나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며 “내가… 하리라.”(I will…)라고 외칩니다. 드디어 최악이 루시퍼의 가슴속에서 수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루시퍼가 스스로 죄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뻔히 알면서 의도적으로 자기 가슴속에서 죄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최초의 죄와 불법의 탄생지는 루시퍼의 가슴속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데 사실 우리의 죄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수태되어 자라게 됩니다.

열심을 다해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나오느니라(잠4:23).

내 원수들이 나에 대해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사라질까? 하며 또 그가 나를 보러 와서는 헛된 것을 말하나이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불법을 모으매 그가 밖에 나갈 때면 그것을 말하나이다(시41:5-6).

품행이 나쁜 자 곧 사악한 자는 비뚤어진 입을 가지고 걸어 다니며… 그는 자기 마음속에 비뚤어진 것을 품고 계속해서 악한 일을 피하며 불화를 뿌리느니라(잠6:12, 14).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는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잠 19:3).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오?(렘17: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淫慾)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마5:28).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마12:34).

루시퍼의 죄는 그의 마음속에서 수태되어 자랐고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하늘에서의 그의 위치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설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타락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그분께서는 사탄을 가리켜 ‘두로의 왕’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지혜가 총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극치를 봉인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으며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작은복과 네 피리의 작품이 네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겔28:11-15).

우리는 루시퍼가 밝게 빛나며 아름답고 매우 지적인 그룹(Cherub)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산에서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으로서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의 왕좌 위를 날아다닌 그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불법이 발견되기까지 루시퍼는 아름다움 면에서 완벽했고 그의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지금까지도 루시퍼가 아름답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그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고후11:14).

그러나 그는 빛의 천사가 아니며 실제로 사악한 어둠의 존재입니다. 그는 현존하는 창조물 중 가장 무서우며 소름 끼칠 정도로 기분 나쁘며 흉측하며 혐오감을 지닌 존재입니다. 죄는 아름다움을 짓밟고 파괴시켜 버립니다. 사탄은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지난 6,000여 년 동안 죄가 자신 안에서 일하도록 방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서 불법이 발견되기까지 그가 아름다움에서 완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가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장시켜야 한다면 이 사실은 그가 빛의 천사가 아님을 보여 줍니다. 그는 타락한 어둠의 그룹이며 철혹같이 캄캄한 어둠 속의 불 호수 속에서 영원토록 불탈 운명입니

다(계20:10; 유13).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그는 홀로 그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을 취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들이 몇 명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여하튼 그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종종 천사들이 ‘별들’(stars)로 불리곤 합니다(욥 38:7). 루시퍼라는 이름 그 자체도 실은 셋별(Day Star)을 의미합니다.

또 하늘에 다른 이적이 나타나니라. 보라,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큰 붉은 용이 있는데 그의 머리들 위에 일곱 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계12:3-4).

여기 나오는 별들은 한때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강제로 끌려가지 않았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반역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탄을 따를 것을 선택했습니다. 만일 독자께서 그 별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면 계속해서 다음 구절들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12:7-9).

사탄은 어디로부터 이 천사들을 얻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원래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이 하나님께 대항하는 의도적인 반란에 가담하여 사탄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을 일으키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모두 아시며 그분께서 나머지 삼분의 이에 속하는 천사들을 ‘선택받은 천사들’이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딤펵전5:21). 그러므로 우리는 타락하게 될 천사들은 이미 다 타락했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천사들은 마치 사탄처럼 사악하며 더럽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지는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벧후2:4)

마치 루시퍼가 죄를 지었던 것처럼 그의 천사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즉 하늘)를 이탈했던 천사들이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유6).

다음 장에서 보게 되겠지만 타락한 천사들 중 많은 수는 현재 심판을 기다리며 지옥에 있는 맨 밑바닥 감옥에 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나머지 천사들은 사탄이 땅 위에서 악을 조장하는 것을 도와주며 사악함의 ‘권력들’(principalities)과 ‘권능들’(powers)로서 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엡6:11-12).

이같이 타락한 천사들은 악을 조장함으로써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수없이 많은 이들을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자기와 자기의 천사들이 바로 그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원래 지옥은 사람의 혼들을 위해 지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게 될 때 사실 그들은 침입자요 탈취자로 그곳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서 끝을 맞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자신이 베풀 수 있는 긍휼을 최대한으로 베푸사 자신의 독생자를 갈보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만일 죄 많은 사람들(우리 모두)이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께로 돌아서지 않고 계속해서 마귀를 좇으려 한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지옥에서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만 합니다.

독자여!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지금 주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귀를 따르고 있습니까? 만일 당신이 무신론자이거나 영지주의자라면 당신은 사탄을 좇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단지 종교적이라면, 즉 의식만 중요시하고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사탄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당시의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나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8:44).

종교란 사람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와 그분의 흘린 피 이외의 다른 어떤 것을 대안으로 제공합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 놓으신 일”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을 버리고 떠나서 당신에게 죄의 용서와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은 모두 종교입니다.

침례, 주의 만찬, 교리집, 간증, 목주 돌리는 것, 고해 성사, 종부 성사,

미사,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마룻바닥을 기어가며 고행하는 것, 방언하는 것 혹은 끝까지 견디는 것 등이 모두 그런 종류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여러분과 제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저는 결코 침례나 주의 만찬이 종교이므로 행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주님의 명령이므로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구원에다 영원하지 못한 다른 요소들을 첨가하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

그분께서는 결코 ‘나와 침례’ 혹은 ‘나와 주의 만찬’ 혹은 ‘나와 내 어머니 마리아’ 혹은 ‘나와 너희들의 목주’ 혹은 ‘나와 너희들의 선행’ 혹은 ‘나와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온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일 당신이 지옥을 벗어나서 새 예루살렘의 황금 길을 거닐기를 원하신다면 당신은 반드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그분께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당신의 사악한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그분을 당신 자신의 구원자로서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눅13:3).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요1:12)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며(엡3:17)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사랑하는 독자여, 만일 당신이 아직까지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간 멸망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당신 자신의 종교적 측면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 즉 믿음에 당신의 행위를 더한다면 — 당신은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셨다면 여기서 모든 것을 중지하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다음과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또한 저는 제가 죄인임을 잘 알며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마땅히 지옥에 가야만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제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구원자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발 지금 제 가슴속으로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드렸다면 그분께서 하신 말씀의 약속을 따라 그분께서 지금 이 시간에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분을 당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천사들 중 타락한 천사들처럼 사탄과 함께 당신의 처소를 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당신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명령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마25:41).

제 5 장

천사들의 아이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1-4).

이제 우리는 몇몇 신학자, 신학교 교수, 그리고 목사님들에게 큰 문제가 될 만한 주제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위의 말씀은 옛적부터 보수주의자들 간에도 많은 논쟁이 되어 왔던 유명한 구절입니다. 매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뜨거운 논쟁과 격렬한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형제들 간에 그토록 많은 논쟁과 분쟁을 일으켰던 주제 안에 사탄이 감추어 놓으려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분명히 옛 마귀가 열어 놓으려 하지 않는, 지렁이로 가득 찬 강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만일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의 딸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 ‘거인들’이라는 매우 사악한 인종을 만들어 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지 죽을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는다고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점차로 그런 중대한 주제를 덮어 두고 더 이상 그것을 연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는 당신이 알지 않았으면 하고 사탄이 간절히 바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확실하게 이 구절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제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독자들을 성경 속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편견을 갖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이 주제에 접근하게 된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 같은 진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당신은 사탄이 왜 이 주제에 대해 함구령을 내려 쉬쉬하고 또 과거의 유명한 사람들 곧 거인들이 천사들의 아이들이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써 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¹⁾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사람의 딸들’의 문제에 대해 서로 반대되는 의견 혹은 논쟁들을 제시하기 전에 저는 독자들께서 바로 이같이 공평하지 않은 연합/결혼으로 인해 이 땅 위에 사악함이 퍼졌고 죄가 가속화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을 것을 촉구합니다. 이 같은 불법 결혼에 의해 출산된 후예들은 매우 더럽고 추한 자들이 되었으며, 노아가 살고 있던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시기 위해 대홍수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며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멸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더라(창6:4-8).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다가왔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차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편나무로 너를 위해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며 역청으로 그것의 안팎을 칠할지니라(창6:12-14).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격변의 사건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독자께서는 부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사건에 대해 기독교 내에서 가장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견해는 곧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간의 결혼이란 단지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1) 한때 이 땅에 거인들이 살았다는 것은 여러 나라의 역사와 전설 그리고 화석에서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www.youtube.com)에 가서 ‘Ancient Aliens: Lost Race of Biblical Giants Uncovered’와 ‘When were the giants?’를 검색하면 실제 기록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함께 공평하지 못한 결혼을 한 것이라는 견해입니다. 이 같은 이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후예들을 가리키며 ‘사람들의 딸들’은 가인의 후예들을 가리킨다고 가정합니다.

유명한 「툼슨 주석 성경」, 「오픈 성경」 등 거의 대부분의 주석 성경 및 주석서들이 위와 같은 잘못된 견해를 가르칩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경적이며 근본적인 성도들이 신뢰하는 것이 바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입니다. 필라델피아 제일 장로교회의 반하우스 목사님은 훌륭한 전도자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한두 군데 주석상의 잘못을 빼고는 「스코필드 주석 성경」보다 더 좋은 성경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스코필드 주석 성경」은 유명하며 그 안의 주석은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반하우스가 지적했던 한두 군데의 잘못이 바로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주석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독자들을 오도하여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형편없는 것으로 간주하라고 이 글을 쓰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거기 담긴 주석들의 대부분은 너무나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부분의 주석만큼은 다른 주석 책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의 주석이 틀렸음을 보여 주기 위해 저는 「구 스코필드 주석 성경」(*Old Scofield Reference Bible*)에 기록된 그대로 스코필드 박사의 주석을 옮겨 놓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들의 처음(첫 번째) 처소를 지키지 않았던 ‘천사들’이라고 주장합니다(유6).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구약 성경에서 오직 ‘천사들’을 지칭하는 데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입니다(사43:6). 천사들은 성(性)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결코 여자 천사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우리는 또한 천사들 간에는 결혼이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마22:30). 히브리 사람들과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일관성 있게 공통적으로 수용된 해석에 따르면, 창세기 6장 2절은 셋의 경건한 가계와 가인의 불경건한 가계 사이의 분리가 깨어짐을 보여 줌과 동시에 셋의 가계에 맡겨진 주 여호와께 대한 증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창4:26). 배도에 대해서는 심판 이외에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사1:2-7, 24-25; 히6:4-8, 10:26-31). ‘의의 선포자’였던 노아에게는 120년이라는 긴 기간이 주어졌지만 그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고 결국 그의 증조부가 예언했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유14-15; 창7:11).

스코필드의 논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셋의 아들들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곧잘 사용하는 주장을 잘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또한 가지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안은 천사란 사람과는 다른 종류이며

따라서 비록 그들이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남성이었다 하더라도 여자들을 수태하게 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코필드 박사와 그 외 다른 주석가들이 주장하는 다섯 가지 요점을 취해서 위에 있는 또 다른 대안과 함께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 비추어서 검토를 해 보려 합니다.

1. 창세기 6장 2절은 셋의 경건한 가계와 가인의 불경건한 가계 사이의 분리가 깨어짐을 보여 준다(「스코필드 주석 성경」).

먼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밝혀 두려는 것은 제가 신학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영혼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신학자를 본 적이 없으며 그래서 제 자신이 신학자가 아닌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만일 위의 주장이 하나님께서 의미하셨던 것이라면 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다시 한 번 성경 말씀과 위의 주장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하나님의 아들들 — 사람들의 딸들(성경 말씀)
- 셋의 경건한 가계 — 가인의 불경건한 가계(사람의 주장)

위의 대조 그 자체가 당신의 머릿속에 빨간색 경고등을 켜 주지 않습니까? 그들의 주장이 맞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딸들 중 어느 누구도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혹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오직 남자들만이 믿는 자들이었고 여자들은 다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고 믿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벌써 ‘셋의 아들들’ 이론은 기우뚱거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신자들이었다면 도대체 왜 그들이 노아와 함께 배에 타지 못했단 말입니까? 만일 그들이 것처럼 경건했다면 왜 그들이 늙은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을 돕거나 혹은 노아가 한 것처럼 죽어 가는 이들에게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벧후2:4-5).

다시 한 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한 자들’만 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경건치 못한 자들은 다 물속에서 익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셋의 아들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노아의 여덟 식구를 제외하고는 경건한 사람들이 없었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이외에도 이 같은 이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셋이 경건한 가계 혹은 혈통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게 되었을까요? 그런 단어는 성경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족보상의 ‘가계’는 아마도 메시아의 가계일 것입니다. 즉 그 가계 속의 사람들을 통해 메시아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혈통마저도 불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유다는 자기 며느리와 더불어 간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태어난 베레스는 사생아였습니다.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간통한 여인이었습니다. 다윗은 간통자요 살인자였습니다. 셋이 “경건한 혈통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은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비성경적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창세기 4장 26절로부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셋에게도 즉 그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창4:26).

그러나 이 성경 구절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셋이나 에노스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 때문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가정하더라도 우리는 그 문장이 ‘셋의 경건한 계보’에 대한 증명 구절로 사용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가인의 계보는 다 불경건했다.”라고 진술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물론 성경은 가인 자신이 불경건했고 가인의 후예들 중 얼마는 매우 사악했음을 보여 줍니다. 그렇지만 그의 후손이 모두 사악하며 불경건했다고 가정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하며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가장 경건했던 사람들 중 몇몇은 사악하며 불경건하며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나왔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또한 사악한 파라오(바로)의 궁전에서 자란 모세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하와 역대기상하에 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가장 사악했던 왕들 중 몇몇에게는 매우 경건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경우가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주님을 알고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상들을 파괴하고 사람들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했

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속되며 사악하고 마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사람들 중 가인의 후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경건한 셋의 계통과 불경건한 가인의 계통’이라는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2. 그들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구약 성경에서는 전적으로 천사를 지칭하는 데만 사용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큰 실수이다 (사43:6)(「스코필드 주석 성경」).

「스코필드 주석 성경」 편집자들은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전적으로 천사들을 지칭하는 데만 사용되었다는 우리의 주장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자, 누가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사실을 반박하기 위해 그들이 사용하는 구절은 이사야서 43장 6절입니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할 것이요, 남쪽에게 이르기를, 붙잡아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데려오고 내 딸들을 땅끝들에서 데려오라, 하리니(사 43:6)

도대체 어떻게 이 구절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관주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구절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보십시오. 여기 나오는 ‘아들들’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들 및 딸들은 ‘경건하다’고 불리지도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3장을 마감하시기 전에 그들의 사악함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워하셨음을 보여 주십니다. 22절부터 끝 절인 28절까지를 자세히 읽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을 괴롭게 했던 이스라엘의 아들들 및 딸들을 ‘경건한 셋의 계통’과 동일시하는 것은 결코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가 구약 성경에서 천사들 이외의 다른 존재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곧잘 인용하는 또 다른 구절은 출애굽기 4장 22절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녀라(출4:22).

이 구절 어디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호칭이 있습니까? 또한 이들은

셋의 아들들도 아닙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있는 ‘주’(LORD)는 히브리어로 ‘여호와’(JHWH)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하기 위해 ‘여호와’가 쓰일 때 그 단어는 구속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지칭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주’도 역시 ‘여호와’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43장의 처음 14절은 모두 구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는 접어 두고 창세기 3장 14-15,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흠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창3:14-15,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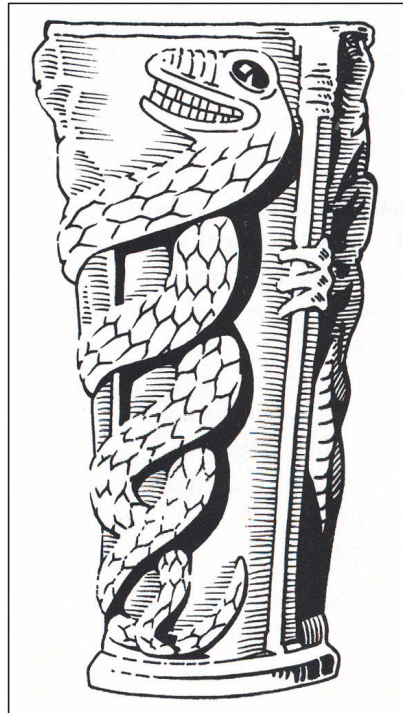
이 구절들 안의 ‘주’는 모두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이 다 사람의 ‘구속’(Redemption)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6장 2, 4절에 보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Elo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칭호는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의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창1:1).

그 뒤에도 ‘엘로힘’은 계속해서 창조자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여호와의 아들들’(Sons of Jehovah 혹은 히브리어로 ‘Ben-Ha-JHWH’)이라는 구절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4장과 이사야서 43장에 이



▲ 고대 중동에서는 뱀이 창세기 3장과 연관되어 생명, 지혜, 혼동 등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기에 나오는 그들은 ‘구속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 혹은 히브리어로 ‘Ben-Ha-Elohim’)이라는 칭호는 구약 성경에서 총 다섯 번 사용되었으며 그 다섯 번 모두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 중 세 번은 욥기에서 발견됩니다.

■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자신이 땅의 기초를 놓았던 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욥38:7)

물론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그때에는 사람이란 아직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들은 ‘구속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천사들을 구속하신 적이 없습니



▲ 세상의 창조 때에 이미 천사들이 존재하였다

다.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는 ‘벤—하—엘로힘’으로 이것은 곧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 욥기 1장 6절에 있는 장면은 분명히 하늘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한편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더라(욥1:6).

그때에 하늘에는 사람이란 존재는 있지 않았습니니다. 여기에도 ‘벤—하—엘로힘’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즉 천사들입니다.

■ 다음 장면도 역시 하늘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이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왔으며 사탄도 주 앞에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들 가운데 왔더라(욥2:1).

물론 여기 있는 ‘벤—하—엘로힘’도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두 군데만 더 확인하면 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에서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벤—하—엘로힘’이 천사들이었음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군데를 살펴봅시다.

■ 두 군데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창6:2).

■ 마지막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4).

이제 잘 보셨지요. 도대체 그들은 어떤 근거로 이처럼 ‘창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아들들이라고 상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셋은 결코 창조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는 그의 부모인 아담과 이브로부터 태어났습니니다. 물론 그의 후손들도 창조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도 모두 태어났습니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의미하는 ‘벤—하—엘로힘’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 속에서 창조된

사람은 아담과 이브뿐입니다(창5:2). 그래서 아담은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 이후에 이 땅에서 산 모든 사람은 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주의 사항: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the Son of God)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 즉 ‘하나님으로부터 유일하게 나신 아들’(the only begotten Son of God)입니다.

따라서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계셨으며 어느 곳에도 어느 때에도 그분 같은 분이 없었습니다. 조금 뒤에 다루게 될 ‘사탄의 씨’ 부분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모양’(the likeness of God)으로 창조되었습니다(창 5:1). 그러나 아담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아담의 모양’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난 사람들과 그의 후예들은 다 ‘사람들의 아들들’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그것은 오직 창조라는 행위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선포하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엡2:10).

결론적으로 구약 성경에 있는 ‘벤—하—엘로힘’이라는 칭호는 신약 시대와 마찬가지로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칭합니다.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이며(시148:2, 5; 겔28:13, 15) 아담 역시 그런 존재입니다(눅3:38). 그러므로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후예들로 생각하는 것은 ‘아담이 타락했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창2:16-17).

그가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은 타락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오직 몸과 혼만을 갖게 되었고 영적으로 잃어버린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영이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함을 의미함). 또한 그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은 그의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아담이 백삼십 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창5:3)

셋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아담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심을 보여 줍니다(고후 4:4; 골1:15).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됩니다. 셋과 그의 후예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칭호를 부여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 근거가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주의 깊게 또 다른 점 하나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경건한 셋의 후예들’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네 단어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and also after that)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4).

“그 뒤 즉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 줍니까? 간단히 말해서 이 구절은 홍수 이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들이 홍수 이후에도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고, 홍수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구절이 홍수 이전의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홍수 때에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다 흙 속에 묻혀 버렸을 터이니 그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그 뒤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는 구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람들의 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는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흥미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일부러 그것을 무시하는지도 모릅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만일 이 구절이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연합이 거인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왔을 때 거인들이 만들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통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신자들과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공평한 연합에 의해서 거인이 만들어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이같이 기록하지 못한 연합으로 인해 노아의 홍수 같은 전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난 적도 없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십대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셋의 시대로부터 노아의 때까지에는 아홉 세대가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아홉 세대(약 900년) 동안 셋의 혈통 속의 아버지들이 자신들의 아들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가인의 혈통 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다고 믿는 것은 너무 무리가 아닐까요? 그러다가 갑자기 노아의 시대에 들어서서 셋의 아들들이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하여 줄을 섰다고 생각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저는 또한 셋의 딸들 중 몇몇은 자기 오빠들처럼 가인의 아들들과 결혼하지 않았을까 하는 우스운 생각도 해 봅니다.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딸들이’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주장하는 이들이여, 왜 그런지 이유를 알려 주십시오. 그 대답은 명백합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거인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네페림’(Nephilim)이며 이는 ‘타락한 존재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것처럼 불린 이유는 말 그대로 그들이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들이 ‘육적인 거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거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그들도 다른 평범한 사람하고 비슷한 신장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 뒤에도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홍수 이전의 이상한 연합/결혼이 홍수 이후에도 있었음을 알고 있으며 또한 성경 말씀이 홍수 이후에 존재한 네페림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 주므로 ‘정신적 거인들’에 대한 이론은 말도 안 되는 상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곧 밝혀집니다.

네페림은 서로 다른 계보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엠 족속(Emims, 영어로는 에임스, 창14:5; 신2:10-11), 수스 족속(Zuzims, 영어로는 주짐스, 창14:5), 아낙 족속(Anakims, 영어로는 아나킴스, 신2:10-11; 수11:21-22 등), 르바 족속(Rephaims, 영어로는 르파임스, 창14:5; 15:20), 삼숨 족속(Zamzummims, 영어로는 잠쥘뫼스, 신2:20) 등.

독자들께서는 위의 영어 이름들에서 네페림(Nephilim) 혹은 그것의 복수인 ‘네페림스’의 끝에 있는 두 글자인 ‘임’ 혹은 ‘임스’('im')가 반복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성경은 얼마나 묘합니까?

열넷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또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샤웨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창14:5)

과거에 엠 족속이 그 안에 거하였는데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므로 *사람들이* 그들도 아낙 족속처럼 거인들로 여겼으나 모압 족속은 그들을 엠 족속이라 부르며(신2:10-11)

(그곳 또한 거인들의 땅으로 여겨졌는데 옛날에는 거인들이 그 안에 거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숨 족속이라 부르느니라.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컸으나 **주**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 대신 거하였는데(신2:20-21)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위의 성경 말씀 속의 거인들이 ‘정신적 거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키가 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습니까? 거인들을 언급하고 있는 다른 곳은 역대기상 20장 4절, 사무엘기상 17장 4절, 사무엘기하 21장 16-22절, 여호수아기 17장 15절, 민수기 13장 33절 등입니다. 부디 홍수 이후에도 불법적 결합에 의해 거인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수기 13장에 있는 구절을 읽고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보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사람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올림픽 경기의 단거리 선수들처럼 재빨리 그곳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습니다. 자신들을 보냈던 모세에게로 되돌아와서 그들은 눈을 크게 뜨고 손짓 발짓을 해가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키가 큰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쩌나 컸는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습니다.

물론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은 그 거인들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이 시무하는 교회의 출석 교인 수를 늘 과장해서 말하는 목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어떤 무서운 괴물을 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런 목사들이 모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사무엘기상 17장에 있는 거인 골리앗은 적어도 3.3m나 되는 신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종종 2.1m가 넘는 장신의 농구 선수들이 나타나긴 합니다. 내게는 전도 친구인 팔머 형제가 있는데 그의 키는 2.3m입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키가 크다는 사람들도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산의 왕이었던 거인 옥은 길이가 4.2m, 너비가 2.1m나 되는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 키는 운동화를 신고도 겨우 1.8m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일 제 키와 제 침대 길이가 비례하듯이 바산 왕 옥의 키와 그의 침대가 비례한다고 생각해서 그의 키를 계산해 보면 그는 적어도 4m의 신장을 갖고 있습니다(신3:11). 이런 연유 때문에 ‘정신적 거인’ 이론은 더 이상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만일 천사들이 이 책의 3장에서 언급된 대로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신체적 치수들을 갖고 있다면 도대체 왜 그들의 후예들은 거인이 되었던 말입니까?”라고 물음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이 질문은 대답할 가치가 있으며 저는 이번 장의 조금 뒷부분에서 이에 대해 대답할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셋의 후예들이라면 왜 그들의 후예들은 모두 남자였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단 한 번도 거인들이 여자였다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모두 ‘유명한 사람들’(men of renown), 즉 ‘남자들’이었습니다. 네피림이 언급되거나 묘사된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그들은 항상 남자였습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그 이유도 보여 줄 것입니다.

먼저 독자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절대적으로 사악한 존재라는 점을 주의 깊게 보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여인을 통해 사람이 되셨듯이 사람의 몸을 갖고 있던 어머니들의 아기집을 통해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창6:5)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은 너무나 부도덕해서 결국 전 인류를 더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일 그들이 단순히 셋과 가인의 후예들이었다면 왜 그들이 그처럼 사악했을까요? 물론 그전의 가인 족속들도 그들만큼은 아니더라도 사악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사악함은 결코 하나님이 노아의 대홍수 같은 대격변을 일으키시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보내시지 않은 이유는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이 땅 위에 나타나기까지는 사람들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전면적 심판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극심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전면적 심판을 불러일으킨 네피림들은 결코 셋과 가인의 후예들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의 후예들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가나안 땅에 네피림이 나타났으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사람들을 다 — 심지어 아이들까지도 — 멸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큰 민족들을 치시며 강력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왕국이로다(시135:10-11).

경건한 사람들이 불경건한 여인들과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후예는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의 후예들만큼 사악한 괴물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존재했던 대부분의 고대 국가들은 그들의 문헌 속에 홍수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원이 그 홍수까지임을 추적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면서 자랑스럽게 그런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또한 매우 흥미 있는 것은 고대의 작가들이 사람을 아내로 취해서 반신 반수의 괴물이나 혹은 거인들을 낳은 신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²⁾ 우리는 이런 사실을 대수롭지 않은 전설 정도로 여기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합니다.

성령님께서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이교도 족속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신들에 대한 경외심에 대해 사도행전에 자세히 기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에서 절름발이 남자를 고쳤습니다.

바울이 행한 일을 사람들이 보고 목소리를 높여 루가오니아 말로 이르되,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며 바나바는 주피터라 하고 바울은 주로

2) 그리스 로마 신화, 한국의 단군 신화, 박혁거세 신화 및 대부분 고대 국가들의 신화 등도 이와 비슷하다.

말하는 사람이므로 머큐리라 하더라(행14:11-12).

여기 나오는 주피터나 머큐리는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의 등장인물이 아닙니까? 시편 안에도 이 같은 신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들의 회중 안에 서시며 신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는도다(시 82:1).

어떤 이들은 시편 82편의 신들과 사도행전 14장의 루가오니아 사람들이 말한 신들이 같다는 데 대해 의견을 달리할지 모릅니다. 그들은 시편 82편의 신들이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는 신들, 즉 시편 115편에서 묘사된 신들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82편 1절의 신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러나 시편 115편에 있는 우상들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들입니다. 우선 시편 89편을 살펴보고 잠시 후에 시편 82편으로 되돌아가도록 합시다.

하늘에서 누가 주와 비교될 수 있으리이까? 강력한 자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주와 같을 수 있으리이까?(시89:6)

위 구절의 ‘강력한 자의 아들들’(the sons of the mighty)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들의 거주지는 하늘에 있습니다. 이 ‘아들들’은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습니다. 이 ‘아들들’ 가운데 많은 수가 땅에 내려와서 창세기 6장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82편이 이들을 서로 연결시켜 주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82편의 중간 부분은 분명히 홍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달으려 하지도 아니하며 어둠 속에서 걸나니 땅의 모든 기초들이 궤도를 벗어나 있도다(시82:5).

자, 그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시82:6)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의 대홍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며 신들을 지극히 높으신 분, 즉 하나님의 아이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신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다음 구절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자의 아이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시82:6-7).

다시 한 번 보십시오.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신들 가운데서 재판관을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우리는 홍수에 대해 알게 됩니다.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이들인 이 신들에게 그들이 사람들같이 죽을 것임을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자, 이제 위의 사실들을 정리하여 결론을 내려 봅시다. 만일 이 신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처럼 죽게 된다면 그들은 분명히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창세기 6장의 ‘타락한 천사들’도 될 수 없는데 이유는 성경이 분명하게 천사들은 죽을 수 없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눅20:34-36). 잠시 후에 홍수가 닥쳐올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신들은 ‘타락한 천사들’의 자식들입니다. 비록 그들이 창세기 6장에서 ‘고대의 유명한 사람들’이라고 불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단지 반쪽만 사람입니다. 다른 반쪽은 물론 신 혹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그들은 가장 높으신 분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들이 땅의 모든 기초가 궤도를 벗어났을 때 사람들처럼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셋과 가인의 후예였다면 우리는 위에 있는 성경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조각 맞추기 게임에서 조각들을 거의 다 맞추었는데 그때 남아 있는 조각들과 남아 있는 빈 공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와 비슷합니다.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조각 맞추기를 성공적으로 끝낼 수 없습니다. 다음의 몇몇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먼저 신약 성경은 이 천사들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낮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5-7).

유다가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자신의 편지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몇 가지 사실을 상기시켜 주려 했습니다. 사실 그는 다음의 세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이스라엘 백성
- 하늘을 떠나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행한 불순종한 천사들
-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죽어서 영원한 불의 보복을 받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

유다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 사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자료가 단 하나밖에 없었으며 그것은 곧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서 이들에 대한 기사들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항하여 비방을 했던 많은 무리를 파멸시키셨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소돔 평야 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셔서 그 사악한 자들을 이 땅으로부터 쓸어 버리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사건만 남았습니다. ‘셋과 가인의 후예들’ 이론을 주장하는 분들이여! 만일 당신들의 주장이 옳다면 두 번째 사건을 기억나게 해 줄 성경 구절이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을 당신들은 깨닫고 있습니까? 첫 번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세 번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과 가인의 후예들’ 이론을 펴시는 분들이시여! 처음 신분, 즉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거처, 즉 하늘을 떠나서 이상한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의 죄악을 저질렀던 천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구절들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구약 성경 39권을 통틀어서 그들에게 두 번째 사건을 기억나게 해 주는 구절은 오직 창세기 6장 말씀뿐이 없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지금 위에서 우리가 언급했던 ‘조각 맞추기 게임’으로 되돌아가서 빙빙 돌고 돌아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게임이 거의

다 끝났는데 남아 있는 조각과 남아 있는 빈 공간이 맞지 않게 되는 경우와 같습니다.

어떤 이는 아마도 “그러나 유다는 타락한 천사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7절은 분명히 그 죄가 무엇인지 보여 주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즉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곳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낮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5-7).

6절은 우리에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말해 줍니다. 7절은 우리에게 음행과 ‘낮선(이상한) 육체’를 좇는 일에 자신들을 내어 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대해 말해 줍니다. 그런데 7절은 타락한 천사들이 음행에 자기 자신을 내어 주고 이상한 육체를 따라 간 것과 같은 방식으로 소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려 깊은 독자들은 유다서 기사의 연대기를 자세히 관찰해 봄으로써 천사들의 음행이 소돔 사람들의 음행 전에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돔 사람의 음행을 다룬 창세기 19장 이전에 천사들의 음행을 다룬 기사가 있어야만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이 창세기 19장 이전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같은 방식으로’라는 구절은 이 천사들이 무엇을 행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들은 ‘낮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범했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낮선 육체’란 것이 자연스럽지 못한 육체와 성적 죄악을 범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쉽게 말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롬1:26-27).

천사들의 경우에 ‘낯선 육체’는 땅에 있는 여인들과 성적 관계를 맺어 죄를 범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떤 이들은 천사들이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땅의 여인들로부터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낯선 육체’(strange flesh)란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³⁾ 만일 이 땅의 여인들이 이상한 육체였다면 천사들은 평범한 육체일 것입니다. 즉 천사들과 여인들은 서로 다른 육체였습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육체가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겉으로 보기에 우리와 똑같았고(히 13:2) 우리와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창18:8). 그런데 그들이 이 땅의 여자들과 성적 관계를 가질 수는 없단 말입니까?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탄주의자들이 마귀들과 그런 성적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위에서 제안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사람들과 같은 크기라면 — 요한계시록 21장 17절이 보여 주듯이 이것은 사실임 — 왜 그들의 후손들은 거인이었을까요? 거인들은 서로 육체관계를 맺어서는 안 될 두 개의 다른 육체끼리의 결합에 의해 생겨났습니다.

근친상간과 같은 비정상적인 결합에 의해 임신이 된 경우에 비극적인 출산이 이루어지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가까운 친족끼리 서로 육체관계를 맺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불행한 기형아의 출산이 이루어집니다.

소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음행’이 동성애를 가리켰습니다. 천사들의 경우에는 ‘음행’이 사람들의 딸들과의 성적 결합이었습니다. ‘음행’(fornication)이라는 단어는 ‘불법적인 성적 관계의 과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어 ‘포르네이아’(porneia)에서 파생되었습니다. ‘포르네이아’에는 간통, 남자 동성애, 여자 동성애, 근친상간, 어린아이에 대한 성적 폭행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서는 천사들의 죄와 소돔 사람들의 죄에 대해 ‘음행’이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유다서 6절에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는 사도 베드로도 언급하면서 보충 설명을 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지는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재가 되게

3)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른 색’이라고 표현하여 도무지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벧후2:4-6)

독자께서는 여기에서 세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 이 천사들의 사건에 대한 문맥이 노아의 대홍수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홍수를 가져온 근본적 원인이 바로 천사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 이 구절의 연대기는 소돔의 멸망이 홍수 이후에 있었음을 보여 주며 홍수는 천사들의 죄 이후에 생깁니다. 소돔의 멸망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고 홍수는 창세기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의 범치는 창세기 7장 이전에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창세기 1-5장에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6장만 남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다 성령님께서서는 천사들의 죄를 적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죄를 지은 천사들입니다.
- 타락한 천사들의 운명에 관한 유다서와 베드로후서의 성경 구절의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이 두 부분에서 언급되고 있는 천사들은 같은 천사들이며 그들은 사람들의 딸들을 취해서 반은 천사요, 반은 사람인 거인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대홍수 때에 이 거인들은 사람들처럼 죽었고 그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도 그랬습니다.

자. 이제 스코필드의 세 번째 주석 내용을 보도록 하십시다.

3. 천사에게는 결혼이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한다(마22:30)(「스코필드 주석 성경」).

이 진술이 사실입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이 구절에서 과연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천사들 간에는 결혼이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6장에서처럼 ‘셋과 가인의 후예’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매우 중요한 단어들을 간과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자, 예수님께서 실제로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께서는 부활 때에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문장을 살펴봅시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the angels which art in heaven)과 같으니라(막12:25).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들에 우리의 생각을 가감해서는 안 됩니다(잠 30:6). 그분께서는 결코 ‘땅 위에 있는’(on earth)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분명히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이 아내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천사들 간에 결혼이란 것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간에는 결혼이란 것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만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논의하기 위해 「스코필드 주석 성경」의 넷째 및 다섯째 진술을 살펴봅시다.

4. 천사는 성이 없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스코필드 주석 성경」).

도대체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천사들이 중성으로 표현된 성경 구절을 단 하나만이라도 제게 보여 주십시오. 다시 말해 천사가 ‘그것’(it)으로 표시된 구절 말입니다. 성경에서 성이 없으며 중성처럼 행동하고 중성처럼 보이는 천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점을 재차 확인하려면 이 책의 3장을 다시 한 번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천사는 남성입니다. 그들은 남자들처럼 생겼고 그래서 종종 남자들로 오인되곤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는 날개를 갖고 있지 않은 젊은 남자입니다.

물론 날개를 갖고 있는 아기 천사들 — 모두 로마 카톨릭교회의 창작물임 — 이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중성의 천사란 이교도들의 풍습에서 나온 부활절의 토끼나 로마에 있는 거짓의 대왕인 교황이나 라스베이거스의 나체 댄서들만큼이나 거짓된 것입니다. 스가라서 5장에 나오는 에바 속의 여인, 즉 마귀(하르피)에게는 날개가 있었지만 천사들에게는 날개가 없습니다. 독자께서 천사들에 관한 그림을 보게 되면 그들은 대개 긴 머리를 하고 머리 위에 후광을 갖고 있으며 여자의 모습을 띠고 있고 등 뒤에는

날개가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천사에 대해 잘못된 관념을 갖고 있으므로 만일 지금 땅 위에 천사들이 내려온다면(히13:2)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이들과 구원받은 자들 중 대부분을 쉽게 속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과 가인의 후에’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2장 30절이 “천사들은 중성이다.”라고 가르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가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마22:30).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 구절이 “천사들은 중성이다.”라고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줍니다.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0절은 결코 “천사들이 중성이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식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자 천사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은 어떤 성적인 관계를 필요로 하거나 그것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타락한 상태에서 이 땅 위에서 성적 관계를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과 마가복음 12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도 않고 생식에 의해 수를 늘리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살펴본 대로 천사들은 무수히 많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결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결혼이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멸종으로부터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간들의 규약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 말씀에 영감을 주신 성령님께서 항상 천사들을 남성으로 표현하고 계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데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남성이며 그들이 남성이기 때문에 남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남성이 아니고 중성인 ‘그것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남성의 생식기를 갖고 있고(이미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대로) 또한 육체이므로 타락한 천사들이 인류의 여성들과 성적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이유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란 육체라는 물질적 몸을 입고 있는 ‘혼’(soul)입니다(창2:7). 천사들은 육체라는 물질적 몸으로 변할 수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히1:7; 창18-19

장). 그렇다면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 그들이 서로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점들이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줍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보되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자기를 위해 아내로 삼으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에도 있었는데 바로 이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창6:1-4).

보시다시피 사람들과 타락한 천사들 사이에는 그들이 육체적으로 서로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다른 점들이 없습니다.

저는 위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셋의 후손들이라면 왜 그들의 아이들은 모두 남자였을까요?

우리는 단 한 번도 여자 거인에 대해서는 읽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유명한 사람들(남자들)'(men of renown)이었습니다. 거인들이 언급되거나 묘사된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아도 그들은 언제나 남자입니다.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가 수태될 때 그 아이의 성(性)을 결정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아버지라는 사실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들 중에는 여성이 없으므로 천사들의 정자는 단지 남자만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⁴⁾

이것은 물론 셋과 그의 후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에게도 이 사실이 해당된다면 셋의 후예들을 모두 남자아이로 탄생시킨 그들의

4) 사람에게에는 모두 23쌍의 염색체가 있는데 그중 1쌍의 염색체가 성염색체이고 나머지 22쌍의 염색체는 상(常)염색체이다. 2개의 X염색체를 가진 개체는 여성(XX)이고 X염색체 하나와 Y염색체 하나를 가진 개체는 남성(XY)이다. 남성 또는 여성의 성 결정은 세포가 분열하여 생식 세포를 만드는 과정인 감수 분열 단계에서 결정되는데, 배우자, 즉 생식 세포는 정상 세포의 절반에 해당하는 염색체를 가지고 있다. 감수 분열 중에는 남자의 XY 성염색체 쌍이 분리되어 X 또는 Y가 배우자에게 전달된다. 그 결과 배우자(정자)의 절반은 X염색체를 갖게 되고 나머지 절반은 Y염색체를 가진다. 여성은 2개의 X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모든 난자는 1개의 X염색체를 운반하게 된다. 난자가 X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수정되면 여성(XX)이 되고, Y를 가진 정자와 수정하면 남성(XY)이 된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여기서 저자는 천사의 성염색체가 YY이므로 여자의 성염색체 XX와 결합하면 언제나 XY가 되어 남자만 나온다고 말한다.

어머니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물론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그 남자아이들은 가인의 후예들 중의 딸들과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이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 모두 ‘남자아이’만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미 살펴보았듯이 ‘셋과 가인의 후예들’ 이론은 성경의 빛 안에서 설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진실한 카톨릭교도가 성경에서 연옥이란 것을 찾아 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코필드의 주석을 살펴봅시다.

5. 성경에는 여자 천사가 언급된 적이 없다(「스코필드 주석 성경」).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목을 매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런 진술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해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위에서 분명히 “천사들은 중성으로 언급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중성으로 언급되었다면 왜 그들이 “성경에서는 여자 천사들이 언급된 적이 없다.”는 주석을 집어넣기 원했을까요? 이런 진술을 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이 “천사들은 성을 갖고 있다.”, 즉 “천사들은 남성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은 중성으로 언급되었다.”라고 말한 뒤 “성경에는 여자 천사들이 언급된 적이 없다.”라는 주석을 첨가했는데 만일 그들의 주장이 옳다면 왜 그들은 “성경에는 남자 천사들이 언급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의 목에 줄을 매고 누군가가 그들을 건져 내는 것뿐입니다.

이번 장의 서두에서 저는 이 주제로 인해 생겨난 근본주의자들 간의 소동 속에는 사탄이 뚜껑을 덮어 두기를 원하는, 벌레들로 가득 찬 깡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탄이 크리스천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사람을 유혹해서 타락시킨 뒤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주신 약속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3:15)

하나님께서서는 언젠가 ‘여자의 씨’가 그 옛 뱀의 머리를 쳐부술 것이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사탄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머리에 상처가 나는 것은 치명적입니다. 그 여자는 물론 나사렛의 마리아입니다(마1:18). 그

여자의 씨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갈4:4; 롬16:20). 여기 있는 죽음의 선고는 불 호수 가운데 던져지는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계 20:10, 15).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만 했습니다. 만일 자신을 처부술 자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는 죽음의 선고를 피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처부술 자가 오게 될 통로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씨’로서 사탄을 처부술 자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모든 인류를 파멸시키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때 그는 이미 자신이 타락할 때 함께 했던 자들, 즉 하늘의 천사들 중 삼분의 일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타락한 천사들 중 많은 수가 땅에 내려가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도록 했습니다. 그는 사악한 거인 족속을 만들어냄으로써 인류를 파멸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는 거의 성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가 마음으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계속 악할 뿐임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창6:5, 12).

그러나 노아의 가족만은 예외였습니다. 백이십 년 동안 노아는 사악한 무리들에게 의를 선포했으나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온 땅은 폭력과 피 흘림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창6:13). 살인, 폭동, 강압, 도둑질, 치고받는 갱단들 간의 싸움 같은 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단지 노아만이 피에 굶주린 군중들에게 목이 쉬도록 회개할 것과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에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셨으며(벧후2:4-5)

그러나 그의 외침은 할리우드의 간통자들, 플레이보이 잡지를 보는 군중들, 라스베이거스의 댄서들과 노름꾼들, 음주 중독자들, 마약 중독 및 담배 중독자들과 같은 그 당시의 패역한 군중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120년 동안 외쳤는데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매우 사악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예수님계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의 군중들은 너무나 사악해서 그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게 할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이제 타락한 천사들의 아이들의 사악함으로 온 인류가 거의 파멸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순히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들의 결혼에 의해서는 그가 이런 것을 성취할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귀보다 한 수 위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격려가 되며 상쾌함을 가져다줍니다. 그분께서는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영향과 그로 인한 모든 사악함을 그대로 허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은 여전히 그분의 손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가 있었습니다. 사탄의 모든 계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계획대로 일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셨으며 또한 마귀를 쳐부술 자가 세상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번 장에서 저는 두 번씩이나 사탄의 벌레 강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그 안에 크리스천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사탄이 생각하는 그 무엇인가가 들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귀가 당신으로 하여금 “천사들은 이 땅의 여인들과 동거할 수 없고 따라서 아기들을 낳을 수 없다.”고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것은 그가 성공적으로 자신의 벌레 강통의 뚜껑을 막고 있음을 뜻합니다. 만일 그가 당신으로 하여금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단순히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라고 믿게 만들 수만 있다면 그는 당신으로 하여금 저 불법의 신비의 깊은 곳을 보지 못하도록 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하자면 그는 뉴에이지 속에서 7년 환난기 동안 온 세상을 주관하게 될 적그리스도가 바로 사탄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숨길 수 있게 됩니다.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당신은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갈 것입니다(우리 성도들은 이것을 간략하게 ‘휴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될 때에는 휴거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게 됩니다. 이 군중들은 성경의 많은 진리들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이 바로 그 사람, 즉 적그리스도의 아버지, 다시 말해 문자 그대로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이들은 사탄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아들 적그리스도는 선하다.”라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진리 위에 뚜껑을 씌워서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갖은 수를 다 쓰고 있습니다. 뉴에이지 세상의 주관자인 적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마귀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 역시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사악하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며 따라서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마귀의 친아들에 대해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사탄의 씨

위에서 우리는 마귀가 숨기고 있는 벌레 깡통 속에 들어 있는 진리가 곧 창세기 3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진리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구절 속의 진리를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다시 한 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단어들을 주의 깊게 살펴봅시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창3:15)

자, 네 씨(thy seed)와 여자의 씨(her seed)라는 단어들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마리아의 씨(the seed of Mary)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어렵지요.

만일 당신이 생리학과 생물학에 대해 좀 알고 있다면 당신은 생식을 위해 남성이 여성 속에 자신의 씨를 심는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도 이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아론의 씨’, ‘아버지의 씨’, ‘사람들의 씨’ 등이 언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결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씨’ 혹은 다윗의 아내였던 ‘밧세바의 씨’, ‘라헬의 씨’, ‘어머니의 씨’ 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여인들 중에서 자기 안에 생식을 위한 남자의 씨를 지녔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씨는 반드시 외부로부터 여성들 안으로 심겨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인공 수정조차도 ‘치녀 탄생’, 즉 여자에 의해서만 아기가 탄생되는 것을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여자의 씨’(the seed of the woman)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어떤 남자의 씨에 의해 생긴 분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마리아의 씨이십니다. 그녀는 물론 주님의 실제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항상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 마귀를 쳐부술 자가 되려고 사람이 되시려 했을 때 그분은 그녀의 아기집을 통해서 ‘마리아(즉 여자)의 씨’가 되셔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몸이 그녀의 육신의 아버지에 의해 그녀의 어머니의 아기집 속에서 수태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기집 속에 그 씨를 심어 놓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녀의 씨가 되시려면 반드시 그러해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과 성숙기를 통해 그녀는 그 씨를 갖고 있었으며 성령님께서 짝이 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히10:5).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수태되었을 때 그녀의 아기집 속에 씨를 넣어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몸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문자 그대로 여자의 씨이십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아기집 속에 그분을 담고 다녔으며 실제로 그분을 낳았습니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창세기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씨’(thy seed)… ‘여자의 씨’(her seed)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께서는 사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어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씨’, ‘네 씨’, ‘네 씨’.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을 낳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은 사탄도 실제로, 문자 그대로 육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친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낳은 것만큼이나 이 사실은 확실합니다.

이 사실은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들이라는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천사들과 같은 영적 존재입니다. 말세에 그는 문자 그대로 이 땅의 어떤 여인과 동거할 것이며 그로 인해 그 여인에게서 출산된 그녀의 아들은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 즉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은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의 아들들과 가인의 딸들’ 운운하는 무리들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천사들이 땅의 여인들과 동거하여 아이들을 낳을 수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사탄의 ‘씨’라고 하심으로써 큰 실수를 하셨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명확히 알고 계시며 실수를 할 수 없는 분이시므로 저는

문자 그대로 사탄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탄의 씨는 성경에서 네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1. 적그리스도(Antichrist)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나니 이것에 의해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요일2:18).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도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요일4:3).

2. 짐승(Beast)

내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다에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한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의 뿔들 위에는 열 개의 왕관이 있고 그의 머리들 위에는 신성모독 하는 이름이 있더라.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 권능과 자기 자리와 큰 권위를 그에게 주었더라.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오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그와 전쟁을 할 수 있느냐? 하더라(계13:1-4).

3. 죄의 사람(The Man of Sin)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살후2:1-3).

4.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상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살후2:3-4).

사탄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닮을 것이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칭호 자체도 그가 자신의 사악한 아버지처럼 그리스도를 대항할 것임을 보여 줍니다. 그의 아버지가 ‘울부짖는 사자’(벧전 5:8)로 표현된 것 같이 적그리스도 역시 무서운 짐승이 될 것입니다. 그에게 육신의 어머니가 있을 것이므로 그는 ‘사람’이라 불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매우 사악하므로 ‘죄의 사람’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기의 아버지 마귀와 함께 불 호수에서 끝장나게 될 것이므로(계19:20; 20:10) 하나님께서는 그를 ‘멸망의 아들’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멸망’(Perdition)은 ‘아폴레이아’(apoleia)라는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는 곧 ‘파괴’ 혹은 ‘파괴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독자께서 ‘아폴레이아’의 충격이 어떤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성경의 몇 군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destruction, 아폴레이아)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길이 널찍하여 거기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고(마7:13)

(이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견고 있게 되어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destruction, 아폴레이아)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빌3:18-19)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destruction, 아폴레이아)을 가져오리라(벧후2:1).

마귀의 아들이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음이 확실합니다. 그는 결코 끝이 없는 멸망의 불 속에서 궁극적인 파멸을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의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살후2:8).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계17:8).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은 곧 여덟째며 그 일곱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느니라(계17:11).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 호수에 던져지고(계 19:2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씨를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 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 있는 사실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오직 두 번만 그 칭호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옆에서 자기의 아버지께 말씀하실 때 그 칭호가 처음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12).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들 중 하나는 가짜였고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성경기록을 성취했는데 그 성경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으로 내가 신뢰한 나의 친한 친구 곧 내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시41:9).

그들(앞뒤 문맥으로 보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던 자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시69:25).

주께서 사악한 자를 그의 위에 세우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 그가 심판받을 때에 정죄받게 하시고 그의 기도가 죄가 되게 하시며 그의 날들을 적게 하시고 그의 직무를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시109:6-8)

예수님께서서는 시편 41편 9절이 자신과 동행했던 사람들 중 하나에 의해 자신이 배반당하는 것에 대한 예언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아노라. 그러나 이것은, 나와 함께 빵을 먹은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요13:18).

사도 베드로는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6-8절이 그리스도께서 배신당함으로써 성취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자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가 제자들의 한가운데서 일어나 말하였는데(함께한 *사람들의*

이름들 수가 약 백이십이었다.) 그가 이르되, 사람들이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이 성경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우리와 함께 계수되어 이 사역의 일부분을 얻었기 때문이라(행1:15-17).

시편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고 기록되었으니(행1:20)

가롯 유다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성경기록이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이다(요17:12).

성경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 칭호가 언급된 것은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 바울이 아마겟돈 전쟁을 가리키며 말한 부분에 있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살후2:3).

이 두 경우 모두 ‘멸망의 아들’ 앞에 정관사 ‘the’가 붙어 있음에 주의하십시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하나님의 유일하게 낳은 아들’(the only begotten Son of God), 즉 ‘독생자’로 불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단 한 명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을 표시할 때는 정관사 ‘the’를 붙입니다. 이와 똑같은 방법대로 하면 멸망의 아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은 적그리스도를 ‘불법의 신비’(the Mystery of Iniquity)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the Mystery of Godliness)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신비한 존재이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한 분, 즉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육체 안에 나타났을까요? 여인을 통한 출산을 통해서가 아닙니까? ‘불법의 신비’는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의 반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상한 출생에 의한, 즉 처녀 탄생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듯이 적그리스도도 이상한 출생에 의한 사탄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이듯이 적그리스도는 ‘불법의 신비’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사탄이 일을 행하는 방법이 결코 비밀이 아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노라(고후2:11).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말씀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숲속의 더러운 뱀을 노출시켜 놓았습니다. 만일 성경을 연구하기만 한다면 당신은 사탄의 사악하며 교묘하며 더러운 계략들에 대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온 우주의 대 모방자’임을 보여 줍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모방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의 여섯 가지 모방 계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1. 종교는 구원의 복음을 모방한 것이다.

당신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어느 정도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 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도다. 하지만 우리나라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갈1:6-8).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너희가 받아들이게 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고후11:4).

2. 사탄은 모조품 성경들을 출간했다.

현재 미국의 성경 시장은 100여 종류가 넘는 성경으로 인해 성경 흥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을 포함한 일반 대중은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과연 어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확신하지 못할 지경입니다.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뒤에 숨어 있는 마귀의 계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영어권의 국가들은 지난 400여 년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만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위대한 부흥 역사를 일으키셨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이

형편없는 번역이고 더 좋은 ‘새’ 번역 성경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것은 모두 거짓말이며 또다시 마귀의 모방이 이루어 놓은 모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3. 사탄은 삼위일체 신성을 모방한다.

참 삼위일체	거짓 삼위일체
(1) 아버지	(1) 용
(2) 아들	(2) 적그리스도
(3) 성령	(3) 거짓 대언자
마28:19; 요일5:7 참조	계12:9; 20:10 참조

4. 사탄은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방한다(계13:3, 14).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중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는데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매 온 세상이 놀라며 그 짐승을 따르더라(계13:3).

5. 사탄은 그리스도의 기적도 모방한다(계13:13-15).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여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6. 사탄은 그리스도의 탄생도 모방한다.

그런데 마귀는 또 예수님의 경우와 같은 처녀 탄생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창세기 3장 15절의 사탄의 씨 참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참 사람이셨듯이 적그리스도는 참 마귀, 참 사람입니다. 만일 적그리스도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면 왜 가룟 유다도 그와 똑같은 칭호로 불렸을까요?

이제 우리 앞에는 사탄의 모방품 중 가장 뛰어난 것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의 ‘씨’(여자의 씨)로 태어났지만 실제로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시작된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2, 14).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5:2).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분, 조연자, 강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사9:6).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광스럽게 하옵소서(요17:5).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계셨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 어느 누가 자신이 어머니 배 속에서 수태되기 전에 이미 존재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불교나 힌두교의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에 이 땅에 살았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솔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독자께서는 꼭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탄은 늘 지지 않으려고 모방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아들도 그것을 모방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모방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시다.

참 그리스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계1:8).

모조품 그리스도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세상의 창건 이후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계17:8).

마귀는 흉내를 내긴 내뉘 똑같이 낼 수는 없습니다. 모방자란 기껏해야

모방자에 불과합니다.

참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계셨고(was)	있었다가(was)
계시고(is)	없으나(is not)
앞으로 오실(is to come)	여전히 있는(yet is)

요한계시록 17장 8절이 사탄의 아들에 대해 무어라고 말하는지 다시 한 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계17:8).

이 구절에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네 가지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 그는 있었고(과거)
2. 그는 없으며(현재)
3. 그는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며(미래)
4. 그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미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 적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있었으나 바로 그 당시에는 죽어서 땅 위에 없었습니다. 요한에게 그것을 일러 주었던 천사는 적그리스도가 땅에 다시 올 것이고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에서 올라올 것이며 그의 최종 도착지는 멸망(즉 불 호수)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적으로 떠오르겠지요.

요한이 계시록을 쓰기 전에 언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했을까?

이것에 대한 대답은 가룟 유다가 태어나서 자살할 때까지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능력에 의해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저는 왜 유다가 그 ‘짐승’으로 다시 태어나는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①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음에 유의해야 합니다(요17:12). 그런데 성령님께서도 적그리스도를 ‘멸망의 아들’이라고 부르셨습니다(살후2:3). 이 칭호 앞에 있는 정관사 ‘the’는 단 한 명의 유일한

‘멸망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유다와 적그리스도는 같은 인물로서 하나입니다.

② 저는 위에서 적그리스도가 사람(남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또한 마귀의 ‘씨’이기도 합니다. 그는 유일하게 마귀이자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 명을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열두 명 중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이기 때문이더라(요6:70-71).

위의 성경 구절의 ‘마귀’(devil)라는 단어로 그리스어 ‘디아볼로스’(diabolos)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어 ‘다이모니온’(daimonion)은 사악한 영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었고 우두머리 사탄 마귀(the devil)의 줄개들인 ‘마귀’(a devil) 혹은 ‘마귀들’(devils)로 번역되었습니다(마15:22; 막5:15; 행10:38 등 참조). 그런데 ‘디아볼로스’(diabolos)라는 단어는 단 한 번의 예외(우리가 금방 읽었던 가롯 유다에 관한 요한복음 6장 70절)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사탄을 의미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70절 한 구절만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디아볼로스’라는 단어가 사탄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의미하도록 사용되었습니다. 유다는 사람이었고 예수님께서서는 그를 마귀(devil)라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주님 자신의 정의를 따라 마귀이자 사람입니다.

③ 우리는 성경에서 악한 영들(다이모니온, 즉 마귀들)에 의해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대한 기사를 많이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경 육십육 권을 통틀어 개인적으로 사탄에 의해 사로잡히고 사탄이 들어갔다 나갔다 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그는 곧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것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요13:26-27).

유다에게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④ 사탄처럼 유다는 매우 교활한 인물이었습니다(창3:1).

한편 저녁이 되매 그분께서 그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는데 그들이 먹을 때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므로 그들이 심히 근심하며 저마다 그분께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대접에 자기 손을 넣는 자, 바로 그자가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마26:20-23).

그때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유다가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며, 그게 나니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마26:25).

유다는 너무나 교활했으므로 제자들 중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리키며 “아, 유다여, 너는 숲속의 뱀이지,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 말입니다. 그는 너무나 간사해서 그들을 다 속였습니다. 그러나 것처럼 간사한 그도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요6:64). 이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요2:25).

마귀는 매우 교활한 존재입니다. 유다는 설교자였습니다. 그가 열한 명의 제자들과 무리들을 속였듯이 오늘날에도 그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탄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활한 사탄 마귀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의의 사역자로 교회에 보냄으로써 수많은 이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고후11:13-15).

물론 적그리스도도 교활한 점에 있어서는 유다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가 적그리스도가 될 수 없단 말입니까?

⑤ 유다가 지옥(땅의 중심부에 있는 바닥없는 구덩이, 무저갱)으로 내려간 것은 성경에서 언급된 다른 모든 사람들의 경우와는 매우 다릅니다. 유다에 대해서는 매우 이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려고 범법함으로 그 직분에서 떨어져 나갔나이다, 하고(행1:25)

성경에서 언급된 그 어떤 인물도 ‘죽었을 때’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갔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죽자마자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유다는 목매달아 자살해서 땅을 떠난 뒤에 무저갱에 있는 자기 자신의 특별 장소에 갇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하여야만 그가 다음 성경기록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계17:8).

⑥ 가룟 유다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리들은 그를 재정 담당자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를 매우 신뢰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항상 돈 가방에서 돈을 훔쳤습니다(요12:6). 유다는 나머지 열한 명을 삼 년 반 동안이나 속였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도 그와 마찬가지로 온 세상을 삼 년 반 동안 속일 것입니다.

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성모독 하는 입을 주고 또 그에게 마흔두 달(3년 반)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매(계13:5)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살후2:9-10).

자, 이제 요약을 합시다. 창세기 3장 15절은 사탄이 육체를 갖고 있는 어떤 여인을 통해 아들을 낳을 것임을 명백히 보여 줍니다. 성경은 천사들이 여자들을 통해 생산할 수 있음을 보여 주므로 이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셋의 아들과 가인의 딸들’이라는 옷장 뒤에다 벌레로 가득한 그 깡통을 숨겨 두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많은 이들을 속여 왔지만 모든 사람을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특히 성경 신자들을).

마귀의 아들은 ‘멸망의 아들’(The Son of Perdition)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아들’인 가룟 유다는 지옥의 하부에 있는 ‘자기 자신의 처소’에 가서 사탄이 한 여인을 속여 그 여인이 수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태된 순간에 유다의 혼은 무저갱에서 나와 그 여인의 태로 들어갈 것이고 9개월이 지난 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을 모방하기 위해 그녀의 태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는 성경의 예언을 이룰 것입니다(마치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는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 있지 않고’, ‘미래에 있게 될’ 사탄의 아들, 멸망의 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짐승이 될 것입니다.

다음 표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중요 차이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차이점>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1	위에서 내려오셨다(요6:38).	바닥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온다(계11:7).
2	자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셨다(요5:43).	자기의 이름으로 온다(요5:43).
3	자기를 낮추셨다(빌2:8).	자기를 높인다(살후2:4).
4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았다(사53:3; 눅23:18).	사람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는다(계13:3-4).
5	나중에 지극히 높여지셨다(빌2:9).	나중에 불 호수 지옥으로 던져진다(사14:14-15; 계19:20).
6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다(요6:38).	자기 뜻을 행한다(단11:36).
7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려고 오셨다(눅19:10).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단8:24).
8	선한 목자시다(요10:14-15).	우상 목자이다(슥11:16-17).
9	참 포도나무이시다(요15:1).	땅의 포도나무이다(계14:18).
10	진리이시다(요14:6).	거짓이다(살후2:11).
11	거룩한 분이시다(막1:24).	사악한 자이다(살후2:8).
12	고통의 사람이시다(사53:3).	죄의 사람이다(살후2:3).
13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눅1:35).	멸망의 아들이다(살후2:3).
14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로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다(딤후3:16).	불법의 신비로서 육체 안에 나타난 사탄이다(살후2:7).

제 6 장

천사들의 사역

천사라 불리는 하늘의 존재들이 행하는 사역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가지 계급으로 나누셨고 그들에게 다른 직무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늘에 가기 전까지는 그들에 대해 모르는 것이 많겠지만 성경을 주의 깊게 연구하면 그들에 관한 놀라운 진리가 많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늘의 군대에 여러 가지 질서와 계급과 종류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이것은 특히 우리가 사탄의 어둠의 왕국과 하나님의 빛의 왕국을 비교할 때 잘 드러납니다. 사실 마귀는 모방의 명수입니다. 그는 자신이 하늘에 있었을 때 배웠던 것을 모방함으로써 자신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시라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엡1:19-21)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권력’(Principality), ‘권능’(Power), ‘강력’(Might), ‘통치’(Dominion)는 어떤 추상 명사가 아니고 천사의 등급을 가리킵니다.¹⁾

그분께서는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천사들과 권위들(Authorities)과 권능들(Powers)이 그분께 복종하느니라(벧전3:22).

1) 유튜브(www.youtube.com)에 가서 ‘Nine Orders of Angels’를 검색하면 천사의 존재들의 아홉 가지 등급을 요약한 영상들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좌들(Thrones)이든 통치들(Dominions)이든 권력들(Principalities)이든 권능들(Powers)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노라(골1:16).

위의 ‘왕좌들’(Thrones) 역시 천사들의 등급을 말합니다. 위의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권세들의 등급을 정해 놓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왕국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엡6:11-12).

위의 성경 말씀들을 비교해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본 것을 그대로 모방했음을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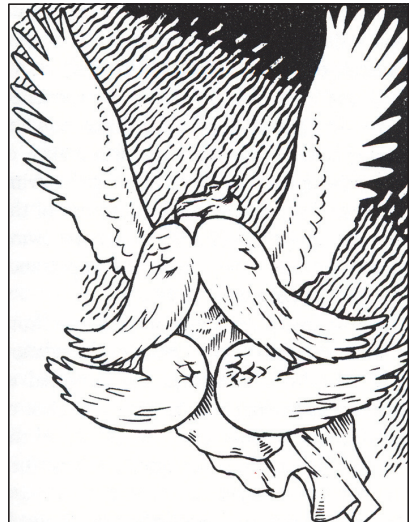
천상의 존재들

자, 이제 하늘 군대, 즉 영적 존재들의 계급과 칭호 등에 대해 살펴봅시다.

1. 스랍들(Seraphims)

‘스랍’이라는 단어는 ‘불타고 있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 ‘세랍’(seraph)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스랍들’은 ‘불타는 자들’이란 뜻입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곳에 거주하므로 하늘의 군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독자들께서 아셔야 할 것은 지금 공부하는 스랍과 다음의 그룹은 천사가 아니고 하늘의 영적 존재(spiritual beings)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결코 천사라고 불린 적이 없습니다. 이 영적 존재들이 ‘불타는 자들’이라고 명명된



▲ 날개가 여섯 달린 스랍

것은 아마도 그들이 하나님께 매우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랍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직 한 차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웃이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또한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자락은 상천에 가득하였고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 그가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자기 발을 가리며 두 날개로는 날더라.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외쳐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군대들의 주여, 그분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니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동들이 흔들리며 그 집이 연기로 가득 찼더라(사6:1-4).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이는 내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또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면서 내 눈이 왕 곧 군대들의 주를 보았기 때문이라, 하매 그때에 스랍들 중 하나가 부집게로 제단에서 살아 있는 숯을 취해 손에 들고 내게 날아와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사6:5-7).

이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분명히 이사야는 그의 평생을 통해 그 경험을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위로 올라가 온 우주의 왕좌가 있는 무서운 방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날아다니는 스랍들을 보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외쳤고 그들의 외침으로 인해 문기동들이 흔들렸습니다. 거기에서 그는 모든 위엄과 영화 속에서 어느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왕좌 위에 앉아 계신 영광의 대왕을 보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서 저는 다음의 네 가지 사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① 스랍들의 직무

이 구절에서 우리는 그들의 임무가 하나님께 찬양을 외치는 것이며 또 하늘의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을 알리는 것임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왕좌 위에서 서로에게 “군대들의 주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라고 외쳤습니다. 독자여!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잊지 맙시다. 그분께서는 의를 사랑하시며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거룩한 언행과 선함 가운데서 마땅히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까?(벧후3:11)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벧전1:16).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해야만 합니다.

② 스랍들의 힘과 능력

외치는 자의 음성으로 인해 문기둥들이 흔들리며(사6:4)

잠깐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에 의해 지어졌습니다. 지략과 영의 모든 능력들이 연합해도 그것을 찌그러뜨리거나 부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단단하며 강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랍들이 소리를 지르자 문기둥들이 움직였습니다.

③ 스랍들의 모습

그것 위에는 스랍들이 저마다 여섯 날개를 가진 채 서 있었으며(사6:2)

이 여섯 날개는 세 가지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 두 날개로 그(he, 남성)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다음의 세 가지를 의미합니다.

1. 스랍들은 자신들이 세 번씩이나 거룩하다고 고백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분께 대한 존경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2. 스랍들은 주님의 존전에서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3. 거룩하며 순수한 스랍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부신 모습을 계속해서 볼 수 없었습니다.

■ 두 날개로 그는 자신의 발을 가렸습니다.

대언자 이사야 시대에 이것은 전통적인 습관이었습니다. 신하가 왕의 존전에 오게 되면 그는 자신의 발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왕의 존전에서 신하가 느끼는 겸손함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각각 자기 발을 가림으로써 스랍들은 절대적으로 고귀하신 분의 존전에서 자신들의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그리함으로써 스랍은 자신이 모든 왕의 왕 되시는 분의 두려운 존전에 서서 그 높은 왕좌에 계신 분을 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들이여! 그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그 왕좌가 있는 바로 그 방에서 머리를

속이고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 두 날개로 그는 날았습니다.

여섯 개의 날개 중 단지 두 개만이 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것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나머지 네 날개는 그분을 흠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오직 두 개만이 나는 일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우리는 종종 그와 반대로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께 무엇인가를 해 드리기 위해 너무나 분주하며 그 결과 그분을 흠모하기 위해 쉬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베다니 마을의 마리아와 마르다를 기억하십시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마르다는 사실 매우 바쁜 꿀벌과도 같았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예수님께 자신의 동생 마리아가 그분의 발밑에 앉아 그분을 흠모하여 그분의 말씀 듣는 것에 대해 불평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에 대해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 일이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눅10:41-42).

우리도 마르다처럼 그분께 봉사하느라 너무 바빠서 그분의 발밑에 앉아 그분을 흠모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도 마리아와 스랍들로부터 배워야겠습니다.

④ 스랍들의 성

이것은 이 책의 5장에 대한 복습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령님께서 스랍을 가리킬 때 ‘그(he)’라는 남성 대명사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모든 하늘의 군대들처럼 스랍 역시 남성입니다.

2. 그룹들(Cherubims)

‘그룹’이라는 단어는 ‘잡다’, ‘쥐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룹들’은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빛으로 보기 전에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도록 합시다.

나는 내가 이미 도달한 것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이미 완전한 것처럼 *말하지도* 아니하며 다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이루려 하신 그것을 나도 붙잡으려

고 뒤따라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쫓대를 향해 밀치며 나아가노라(빌3:1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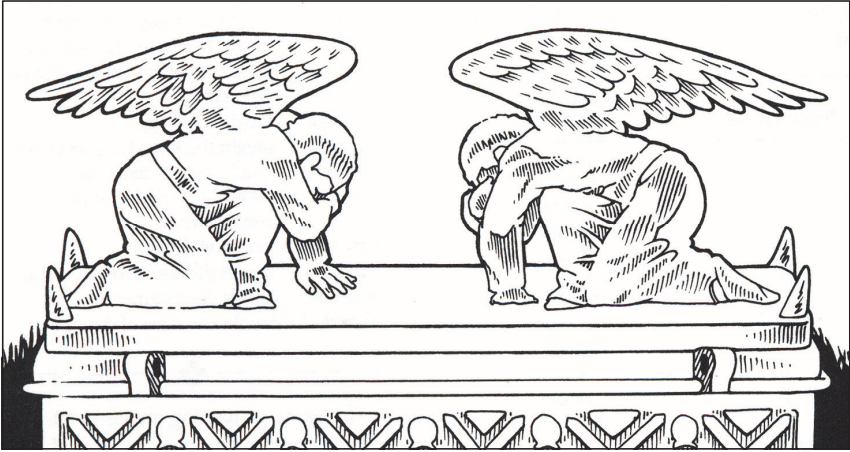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높은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절에 따르면 그것은 섬김 혹은 봉사에 이르는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한 방향을 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사로잡아 이루고자 한 것 바로 그것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그를 구원하셨을 때, 즉 그를 사로잡았을 때 그분께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면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을 자신이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섬김’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그룹들도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창조하셨고 한 가지 목적을 위해 그들을 사로잡으셨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그분께 사로잡혔습니다.

그룹의 형상과 설계를 살펴보면 그들이 즉각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봉사를 할 수 있으며 그분의 지시를 따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언자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에 주의 영광이 그 집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서니 그룹들이 자기 날개들을 들어 올리고 내 눈앞에서 땅을 떠나 올라가더라. 그들이 갈 때에 그 바퀴들이 그들 곁에 있었고 그들은 각각 주의 집 동쪽 입구 문에 서 있었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그들 위에 머물러 있더라. 이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것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그 살아 있는 창조물이었으며 나는 그들이 그룹들인 줄 알았노라. 그들은 각각 네 얼굴을 가졌고 각각 네 날개를 가졌으며 그들의 날개들 밑에는 사람 손의 모습이 있었고 그들의 얼굴 모습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들이었으며 그들의 모양과 그들 자체도 그러하더라. 그들이 각각 앞으로 곧게 갔더라(겔10:18-22).

독자께서는 여섯 날개를 갖고 있던 스랍들과는 달리 그룹들은 단지 네 날개를 갖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방에서면 두 날개는 ‘궁휼의 자리’(mercy seat, 시온소)를 덮었고 나머지 두 날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습니다.



▲ 언약궤 위의 공훈의 자리를 덮는 그룹들

그들의 얼굴들이 이러하였으며 또 그들의 날개들이 위로 펼쳐졌는데 각각의 두 날개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두 개는 그들의 몸을 덮었더라... 그 살아 있는 창조물의 머리들 위에 있는 궁창의 모습은 무서운 수정 색깔 같았고 그들의 머리들 위로 펼쳐져 있다. 그 궁창 밑에서 그들의 날개들은 서로를 향해 곧게 펴져 있었는데 그들은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그것들로 이쪽에서 덮었으며 또 각각 두 날개를 가지고 그것들로 저쪽에서 자기 몸을 덮었더라(겔1:11, 22-23).

하나님께서서는 광야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 안의 지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을 그대로 따온 것이었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공훈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이 큐빗 반, 너비가 일 큐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공훈의 자리 두 끝에 금으로 두 그룹을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한끝에 다른 그룹은 다른 끝에 만들지니라. 즉 너희는 공훈의 자리와 *하나가 되도록* 그것의 두 끝에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날개들을 높이 펴서 자기 날개들로 공훈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공훈의 자리를 향할지니라(출25:17-20).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광채가 바로 이 ‘공훈의 자리’에 모였으므로 우리는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계셨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도 증명됩니다.

오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주께서는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분이여, 주께서는 빛을 비추소서(시80:1).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시99:1).

그룹들과는 달리 스랍들은 여섯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었음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스랍들이 여분으로 더 가지고 있던 두 날개에 대해 한 가지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날개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명백히 그들은 가끔씩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광채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주기적으로 자기들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좌의 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그룹들은 그 왕좌의 방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주님께 대한 봉사의 임무를 띠고 매우 바쁩니다. 우리는 종종 그들이 왕좌의 방 밖에 있는 것을 발견하며 심지어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그들이 땅 위에 있음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사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창3:24).

궁홀의 자리에 서 있는 그룹들은 아마 교대로 일했을 터인데 그 이유는 어떤 그룹도 오랫동안 하나님의 임재의 그 놀라운 광채를 볼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의미하듯이 그들의 임무는 섬김이요, 봉사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의 방에서 선 채 교대를 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얼굴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왕좌의 방에도 숯불과 불로 된 돌들로 이루어진 제단이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입니다. 아마도 독자께서는 이사야서의 스랍들 중 하나가 집계를 가지고 불로부터 뜨거운 숯불 하나를 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불붙고 있는 그 제단은 궁홀의 자리 바로 앞에 있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 에덴동산을 지키는 그룹

그분께서 아마포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퀴들 사이로 즉 그룹 밑으로 들어가 그룹들 사이에서 나오는 불붙은 솥을 네 손에 가득 채워다가 그 도시 위에 흘리라, 하시므로 그가 내 눈앞에서 들어갔는데(겔10:2)

우리는 또한 루시퍼인 사탄이 그룹이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왕좌의 방에서 매우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겔28:14).

그룹들에 관한 우리의 연구를 요약하면 그들의 사역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단어가 ‘봉사’임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또 그 살아 있는 창조물들이 달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마치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큰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 곧 말하는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니 그들은 설 때에 자기 날개들을 내렸더라(겔1:14, 24).

대언자 에스겔은 무려 서른 번이나 그룹들을 가리켜 ‘살아 있는 창조물’(짧게 ‘생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생명, 열정, 그리고 지칠 줄 모르는 움직임 등으로 묘사됩니다. 우리는 또한 그룹들도 성령님에 의해 남성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룹을 가리키는 대명사는 항상 ‘그’(he)입니다. 사탄도 그룹이었고 후에 그는 적그리스도의 아버지(남성)가 될 것입니다.

3. 천사장(The Archangel)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유9).

많은 신학자들은 천사장이 여럿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장’(Archangel)이라는 말은 ‘사자(使者)들 중에서 으뜸가는 자’(Chief messenger)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가엘이 으뜸가는 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미가엘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노를 나타내는 천사로서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거룩한 전쟁을 이끄는 천사입니다. 다시 말해 그는 하나님의 경호 천사라고 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는 하나님을 위한 경호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경호 천사입니다.

특히 천사장 미가엘은 이스라엘 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위에 몇몇 특별한 천사들을 세우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성경에서 ‘통치자들’(Princes)이라고 불립니다. 대언자 다니엘은 하늘로부터 온 이름을 밝히지 않은 천사와 대화했던 것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천사]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서라. 내가 지금 네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때에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닫기 위해 네 마음을 정하고 네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징계하기 위해 네 마음을 정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네 말들을 들으셨으므로 내가 네 말들로 인해 왔느니라. 그런데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the prince)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고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마지막 날들에 네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하려고 왔는데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단10:11-14).

위의 말씀을 통해 독자께서는 사단이 이스라엘에 관한 전달 사항이 다니엘에게 도달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천사를 도우러 온 것은 바로 미가엘이었습니다. 그 천사는 그다음 구절에서 앞으로 다가올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곧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 주리니 이 일들에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단10:21).

이 천사는 미가엘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에 관한 미래사를 아는 천사가 하늘에 없다고 다니엘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뒤 실제로 미가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위대한 천사로서 등장합니다.



▲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영적 싸움이 벌어졌다

그때에 네 백성의 자손들을 위해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단12:1).

또다시 유다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말하였느니라(유9).

미가엘은 그때에 사탄을 단숨에 쓰러뜨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여전히 사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만일 그때에 미가엘이 사탄을 공격했다라면 사탄이 즉시로 파멸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미가엘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사탄을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에 넣으실 때도 그가 아닌 다른 천사를 사용하십니다(계20:1-3).

미가엘은 또한 신약 시대 성도들의 ‘휴거’(들려 올라감)와도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거하여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여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살전4:15-17).

왜 천사장 미가엘이 성도들의 휴거 때에 오게 될까요? 마귀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생각에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거나 유혹하거나 그들의 증거를 막거나 그들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게 됩니다. 그는 더 이상 교회들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탄은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데려가기 위해 ‘천년 왕국 전에’(전천년설, Pre-millennial), ‘환난 전에’(환난전 휴거, Pre-tribulation) 공중 강림하신다는 성경의 진리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미가엘은 마귀가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함께 옵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오성 장군’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벌어질 때 미가엘은 공격을 진두지휘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왔도다. 이는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계12:7-10).

할렐루야! 미가엘은 마귀를 채찍질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여, 그는 우리 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전쟁은 참으로 어렵고 종종 우리도 피곤을 느끼지만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사장 미가엘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언급하려 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미가엘은 굉장히 큰 능력을 소유한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와 증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믿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즉 미가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은 창조물이며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는 존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 줍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요 1:1).

예수님께서 미가엘을 지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가브리엘(Gabriel)

가브리엘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땅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복된 소식을 전해 주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가브리엘을 보내 그것을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대략 1초에 34,000킬로미터를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빛은 1년에 약 10조 킬로미터를 움직이는 셈입니다. 하늘에 관해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은 거리를 계산할 때 킬로미터를 사용하지 않고 ‘광년’, 즉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사용합니다. 하늘들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킬로미터를 사용해서 거리를 계산한다면 너무나 많은 영(0)이

나오게 되므로 그들은 곧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년’(light year), 즉 빛이 1년 동안 움직이는 거리인 10조 킬로미터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사야서 14장 13-14절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이 별들 위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현재 천문학은 매우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천문학자들은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 잡을 수 있는 별들이 약 천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하늘이 그보다 얼마나 더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하늘, 즉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셋째 하늘’(The third heaven)이 수천만 광년 되는 거리 밖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굉장히 먼 거리지요?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은 채 삼 분도 못 되어 그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좋습니다. 성경을 잡고 다니엘서를 펴 봅시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9절을 통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방에 거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

다니엘서 9장에서 저 위대한 대언자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4절에서 시작되어 19절에서 끝이 납니다. 당신이 정상적인 속도로 그 기도문을 크게 읽는다면 아마도 약 3분 정도 걸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고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해 주 내 하나님 앞에 내 간구를 드릴 때 즉 참으로 내가 기도를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바로 그 사람 가브리엘(the man Gabriel)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그가 내게 알리고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네게 능숙함과 깨달음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네 간구가 시작될 때에 명령이 나왔으므로 내가 네게 알리려고 왔노라. 너는 크게 사랑받는 자니 그러므로 그 일을 깨닫고 그 환상을 깊이 생각하라(단9:20-23).

다니엘은 두 번씩이나 자기가 기도를 끝마치기 전에 가브리엘이 자기를 만졌다고 강조합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이 땅에서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주셔서 땅으로 날아가라고 했음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브리엘은 참으로 신속하게 그 먼 거리를 날아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는 수천만 광년(1광년은 10조 킬로미터임)이나 되는 거리를 단 3분 내로 날아왔습니다.

하늘에 가게 되면 저는 가브리엘에게 ‘속도왕’이라는 별명을 지어 줄 것입니다. 가브리엘 역시 남성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사람(남자) 가브리엘’(The Man Gabriel)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에게는 날개도 후광도 없습니다. 한 번도 성경을 읽어 보지 않은 예술가들만이 여자의 모습 혹은 아기의 모습을 띠고 날아다니는 천사들을 그립니다. 분명히 가브리엘은 남성이었고 남자처럼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말세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입니다.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려고 하였는데 그때에,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으며 또 내가 울래 강의 독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 목소리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더라. 그가 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이여,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오는 때에(at the time of the end) 대한 것이니라, 하니라. 한편 그가 나와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깊이 잠들었으나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격노[대환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을 네게 알려 주리니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단 8: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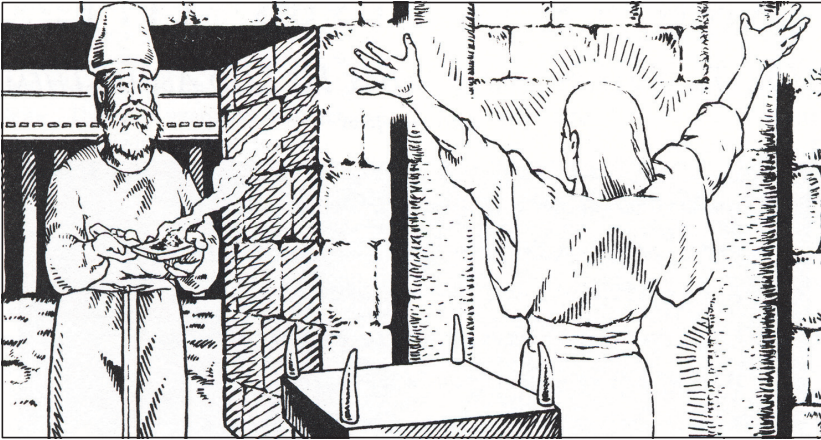
여기에 있는 격노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대환난을 말합니다.

그때에 큰 환난이 있을 터인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었고 이후에도 결코 없으리라(마24:21).

또한 가브리엘은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고지하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유대 왕 헤롯 시대에 아비아 계열에 사가라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아론의 딸들에게 속하였고 그녀의 이름은 엘리사벳이더라. 그들이 둘 다 주의 모든 명령들과 규례들 안에서 흠 없이 걸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웠는데 엘리사벳이 수태하지 못하므로 그들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이제 그들이 둘 다 매우 연로하더라(눅 1:5-7).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분향 제단 오른쪽에 서매 사가라가 그를 보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나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네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눅1:11-13).



▲ 사가랴에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이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이까? 나는 노인ियो 내 아내도 매우 연로하니이다, 하니 천사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네게 말하고 네게 보이기 위해 내가 보내어졌노라(눅1:18-19).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브리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침례자 요한이 그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의로운 노인 부부에게 전해 주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육신적 어머니가 되리라는 것을 나사렛의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던 것도 가브리엘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눅1:26-30, 35).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배어 이 세상에 구원자를 출산할 것이라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특권 역시 가브리엘의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는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처녀 탄생 소식을 그녀의 남편이었던 요셉에게 전해 주었던 천사도 역시 가브리엘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와 사가라의 경우에 모두 자신을 ‘주의 천사’(angel of the Lord)라고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가브리엘은 이 땅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따라서 저는 또한 성도들의 휴거 시에 바로 그가 나팔을 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의 경우로 보아 그 기쁜 사명은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지금까지 우리는 가브리엘에게 주어졌던 영광스러운 특권들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기쁜 일에 그가 한 몫을 했다는 것은 그에게도 참으로 흥분되며 즐거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그 가브리엘 천사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독특하고도 큰 사명이 있다는 것을 독자들께서는 아셔야만 합니다. 가브리엘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결코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데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것처럼 위대한 특권을 오직 우리 성도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성도여, 그 특권을 사용해서 죽어 가는 영혼들을 구하십시오. 영혼 구령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가장 큰 사명입니다.

5. 천사들(Angels)

영어로 ‘angel’(천사)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angelos’를 번역한 것으로 이는 곧 ‘보내어진 자’(messenger), 즉 ‘사자’(使者), 다시 말해 심부름꾼을 뜻합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자들’로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분의 메시지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종류의 일도 수행합니다. 저는 그들의 임무가 다음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천사들은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

구약 성경에서 독자들께서는 자주 ‘주의 천사’(the angel of the LORD, 「개역성경」의 ‘여호와와 사자’)라는 용어를 발견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인물은 성육신 되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 즉 주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의 천사이기도 합니다. 앞뒤 문맥과 ‘그 천사’에 대한 앞뒤 낱말들이 그 용어가 위의 두 경우 중 어떤 것을 가리키는지 보여 줍니다. 예를 들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자기의 외아들 이삭의 배를 가르려 하는 극적인 장면을 보도록 합시다.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므로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유일한 아들을 내게 바치기를 마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내가 이제 아노라, 하니라(창22:11-12).

위의 구절 중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곳에 나오는 ‘주의 천사’가 바로 주님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사악한 대언자 발람이 나귀를 타고 발락에게로 가고 있을 때에 주의 천사가 그 길에 나타나서 그의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경우의 ‘주의 천사’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 주의 천사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보고는 머리를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댄 채 납작 엎드리니(민22:31)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주님과 주의 천사가 분명히 다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 그중 하나가 바로 여기 나오는 발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발람을 태우고 가던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물론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만).

주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께 무슨 일을 하였기에 주인께서 나를 이같이 세 번이나 때리시나이까? 하매(민22:28)

참으로 성경은 신비스러운 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에서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그분께는 너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그는 주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 기드온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와서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앉았는데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에게 숨기기 위해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너 강한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이르되, 오 내 주여,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말해 준 그분의 모든 기적들이 어디 있나이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지 아니하셨느냐? 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하므로(삿6:11-13)

기드온이 자기에게 나타났던 ‘주의 천사’가 주님 자신이 아니라 단순히 천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문맥을 통해 금방 드러납니다. 그 뒤의 몇 절을 더 읽어 보면 그 점이 더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자기 손에 든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에 대매 그 바위에서 불이 올라와 고기와 누룩 없는 납작한 빵들을 태워 버렸고 그때에 주의 천사는 그에게서 떠나 보이지 아니하므로 기드온이 그가 주의 천사임을 깨닫고 이르되, 슬프도다, 오 주 하나님이며!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하여 주의 천사를 보았나이다,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게 화평이 있을지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삿6:21-23).

독자께서는 그 천사가 주님에게 속한 한 천사(an angel of the LORD)였다는 것과 그 천사가 떠난 뒤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기드온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보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저는 어떤 구절의 ‘주의

천사'를 구분할 때 문맥이 '주의 천사'가 주님 자신임을 보여 주지 않는 한 그냥 실제의 천사라고 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사명을 감당했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 아브라함과 그의 종을 인도함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조심하여 내 아들을 다시 거기로 데려가지 말라.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시리라. 너는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해 아내를 데려올지니라(창24:6-7).

■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함

보라, 내가 한 천사를 네 앞에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며 내가 예비한 곳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게 하리니(출23:20)

■ 엘리야를 먹임

그러나 그가 스스로 하룻길을 가서 광야로 들어간 뒤 로뎀나무로 가서 그 밑에 앉아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이르되, 오 주여, 죽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는데, 보라, 그때에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왕상19:4-5)

■ 스가랴를 깨우쳐 줌

내가 밤에 보니, 보라, 한 남자가 붉은 말을 타고 밑바닥에 있는 은매화나무들 사이에서 있으며 그의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진 말들과 흰 말이 있기에 그때에 내가 이르되, 오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이까? 하매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것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 주리라, 하니(슥1:8-9)

■ 막달라 마리아와 그녀의 동료들을 위로함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마28:5-6).

마태복음 28장 3-4절을 보십시오. 이 천사도 역시 남성(he)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5절을 보면 이 여자들이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Two men), 즉 천사들을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18절에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마리아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경의 모든 천사는 남자이며 또 청년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에도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행1:10-11).

■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가져다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곧 일어나야 할 것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 그분께 주신 것이라.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자신의 종 요한에게 그것을 보내시고 겺으로 드러내 보여 주시니(계1:1)

■ 신약 시대 교회들에게 증언함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후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니라(계22:16).

위에서 우리는 천사들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몇 가지 기사를 다루었지만 저는 독자들께서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분의 친구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계시의 복된 소식을 주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② 천사들은 또한 하나님의 적들을 꺾는 데 사용되었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우리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을 누르시기 위해 천사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시 한 번 그들의 힘을 살펴봅시다.

능력이 뛰어나고 그분 말씀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주의 천사들아, 너희는 그분을 찬송하라(시103:20).

한 강력한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닷속으로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계18:21).

위의 맷돌(millstone)은 콩을 갈아 비지를 만드는데 쓰는 맷돌이 아니고 적어도 무게가 1-4톤 정도나 되는, 옛날의 방앗간에서 쓰던 큰 맷돌을 말합니다. 천사는 그렇게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바다에 던질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뜰 때에 그들이 돌무덤에 가며 자기들끼리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해 돌무덤 입구에서 돌을 굴러 주리오? 하고 바라볼 때에 돌이 굴러져 있음을 보았으니 이는 그 돌이 심히 컸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돌무덤으로 들어가 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막16:2-5)

여기에서 ‘청년’, 즉 ‘젊은 남자’로 확인된 인물은 마태복음 28장 2절에 있는 그 천사입니다. 그 구절은 분명히 그가 스스로 돌무덤의 문에서 그 돌을 굴러 놓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천사들의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잘 보여 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천사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을 꺾는데 사용된 예들을 살펴봅시다.

■ 아시리아 군인들을 살육함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 진영에서 십팔만 오천 명을 쳤으므로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보라, 저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다(왕하19:35).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천사가 훈련받은 정예 부대 십팔만 오천 명을 단숨에 살해했습니다. 오 형제여! 저는 제가 하나님의 편이기에 참으로 안심합니다.

■ 예루살렘에서 사악한 무리들을 살육함

보라, 여섯 사람(천사들이) 북쪽을 향한 높은 문의 길로부터 나오는데 각 사람이 살육하는 무기를 손에 가졌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마포 옷을 입고 옆구리에 기록관의 잉크통을 찼으며 그들이 들어와 늦제단 곁에 섰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집을 더럽히고 그 딸들을 죽임 당한 자들로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그 도시에서 *사람들을* 죽이니라(겔9:2, 7).

이 말씀의 앞뒤를 보면 이 여섯 명의 남자들은 천사임이 확실한데 단지 여섯 명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수많은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 소돔을 멸망시킴

저녁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다다랐는데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절하며... 그 남자들(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게 속한 자가 여기에 더 있느냐? 사위와 네 아들들과 네 딸들과 이 도시 안에서 네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다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커졌으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창19:1, 12-13)

하나님께서서는 능력 있는 천사들을 보내셔서 온 소돔 땅을 멸망시키셨습니다.

■ 사악한 왕 헤롯을 침

어떤 정해진 날에 헤롯이 왕복을 차려입고 자기 왕좌에 앉아 그들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환호하며 이르되, 그것은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매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즉시 주의 천사가 그를 치니 그가 벌레들에게 먹혀 숨을 거두니라(행12:21-23).

■ 하나님의 적들에게 화를 선포함

또 내가 보고 들으니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한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이제 세 천사가 불게 될 다른 나팔 소리들로 인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도다! 하더라(계8:13).

지진, 번개, 불, 유황, 연기, 피, 죽음 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이 천사들이 선포한 화들은 땅에 있던 하나님의 적들에게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이 세상 위에 그분의 진노의 금병들을 부음으로써 성취됩니다.

■ 하나님의 적들이 불타게 되자 승리 속에서 그 광경을 지켜봄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곧 그분의 격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계14:10)

불 호수에 거주할 사람들 그리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정복함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매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그 큰 용 즉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겼는데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계12:7)

-9).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국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을 모두 파멸시킬 것입니다.

③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경호원으로 사용될 것이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성경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구원받은 자들 주위에 진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보호하라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들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하늘의 존재들은 우리가 사고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자기들의 손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던 천사들을 만나게 될 때, 그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때에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었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게는 1800년대 초반에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 지방에는 거의 20년 동안 말을 타고 여러 곳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던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예배를 드린 뒤에 그 전도자는 그 모임 기간 내내 거했던 그 교회의 한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응접실에서 그 집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젊은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그 전도자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응접실에 들어오자마자 그 젊은이는 이번 집회에 관해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이 그곳에서 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데 그가 지금 죽어 간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어 가는 사람이 그 전도자를 꼭 만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잠시 말을 타고 달려간 전도자는 그 아픈 사람이 사경을 헤매며 누워 있는 어두컴컴한 방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에 앉은 채 그 전도자는 죽어 가는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흐릿한 눈을 뜬 채 그 사람은 꺼질 듯 말 듯한 등잔 불빛에 의해 희미하게 비쳐진 전도자의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는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 한 가지 알려 드릴 일이 있습니다. 십이 년 전에 목사님께서는 이곳에서 서쪽으로 약 10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

다.”

그는 말을 멈추고 기침을 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네, 기억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심호흡을 하고 베개 위에 머리를 다시 조절해서 놓고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집회의 마지막 예배 시간에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상당한 액수의 선교 헌금을 모아 목사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께서 그것을 가방에 넣고 달빛 속으로 말을 타고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다음에 갈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저도 말을 타고 지름길로 달려서 숲속에서 목사님의 돈 가방을 털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께서 그 돈을 모두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달빛 아래로 목사님께서 오시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목사님 앞으로 뛰어나가 총을 들이대고 돈을 빼앗을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을 실행에 옮기려는 순간 갑자기 목사님께서 주춤거리시더니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물론 기억하고말고요.”라고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때 나는 안장 띠가 헐거워져서 불편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것을 다시 조이려고 잠시 쉬었지요.”

머리를 끄덕이며 그 병자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님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쏘 죽이려고 하던 때에 갑자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목사님과 저 사이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님께서서는 전혀 그를 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심지어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는 결코 그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께 그것에 관해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설교하신다고 하기에 저는 목사님을 뵙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아셔야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분명히 목사님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상하다는 눈초리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남자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뿐입니다. 달빛 속에서 그 옷은 빛이 났거든요. 그는 길에 서서 목사님께서 제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제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흰옷을 입었던 그 이상한 남자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질을 하려던 그 남자가 어떤 망상을 본 것일까요? 그 질문의 해답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최근에 저는 아프리카 원주민들과 함께 거하면서 사역을 하는 선교사 가족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그 부족이 매우 위험스러운 존재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주님께서 자기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부족 주민들과 수년 동안 일한 뒤 그들은 결국 그 부족의 추장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로 발견한 구원을 즐거워하며 그 추장은 선교사에게 개인적으로 가서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했습니다.

어느 날 성경 공부가 끝났을 때 추장은 몇 년 전 어두운 밤에 자기와 부족 중 몇몇 용사들이 그 선교사의 집을 습격하러 갔었다고 겸연쩍어 하며 고백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선교사와 그의 온 가족을 몰살하려 했습니다. 그 선교사가 왜 그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그 일을 수행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추장은 자신들이 그 집에 접근해 보니 몇몇 이상한 남자들이 그 집 주위를 덮고 있음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고 있었고 불로 된 칼들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추장은 자기 부하들에게 절대로 선교사의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말고 그 가족 중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이 추장이 망상을 보았던 것일까요? 추장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혹은 그 원시 부족 흑인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스스로 고안해 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이보다 좀 더 최근에 저는 매우 지적이며 성실한 크리스천 부인이 심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팽하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들이 공중으로 날아갔으며 쇠조각은 막 휘어서 영켰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꼼짝없이 좌석과 운전대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 압력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녀는 자기 옆에 앉은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발을 운전석 앞으로 대고는 좌석을 뒤로 밀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일은 초인간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좌석이 뒤로 밀려나자 즉시로 그녀는 무섭게 조여 오던 압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차 옆에 있는 두 명의 다른 이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보고 그녀는 좌석을 뒤로 밀어냈던 그 남자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려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던 어떤 이도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자,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물론 성경은 해답을 갖고 있지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몇 년 전에 저는 어떤 곳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아내도 저와 함께 갔습니다. 저는 좀 늦었기에 제한 속도를 넘어서 고속으로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차선이 2차선으로 바뀌면서 저는 왼쪽 차선에 있게 되었고 제 오른쪽에도 차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고속도로에는 조그만 돌들이 깔려 있었고 제 차는 옆으로 돌더니 그만 시멘트 블록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시속 90킬로미터 정도로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치 어떤 강력한 힘이 우리 차 뒤의 범퍼를 잡아당기는 것 같더니 우리 차는 시멘트 블록 바로 앞에서 멈추어 섰습니다. 저는 열네 살 때부터 약 50년 동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동차가 90킬로미터로 미끄러져 갈 때 앞으로 향하는 힘이 어느 정도인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은 그때 우리가 왜 시멘트 블록을 들이받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언젠가 한번은 쉼보레 ‘콜벳’이라는 스포츠카를 운전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차는 보통 차와는 달리 공랭식(보통 차는 수냉식임) 엔진이 차 뒤에 있었고 연료통은 앞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 차가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된다면 연료통이 터지고 운전자의 얼굴로 연료가 분사될 것입니다. 물론 그때 조그만 불꽃이라도 튀긴다면 운전자는 즉사하겠지요.

저는 주택가에서 규정대로 50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50킬로미터로 달리는 차에 부딪히는 것은 50킬로미터로 달리던 두 차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자의 경우는 사실 100킬로미터로 달리는 차에 치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참 달리던 중에 저는 제 앞에서 오는 차가 차선을 넘어 제게로 돌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는 고개를 옆으로 돌린 채 자기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면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힘껏 브레이크를 밟고는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금니를 꼭 물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때 자연스럽게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제 스포츠카는 기적적으로 멈추었고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섰기 때문에 저는 운전대에 심하게 부딪쳤지만 눈을 떠 보니 그 차는 제 차의 오른쪽 펜더 바로 옆으로 통과하여 인도 블록을 들이받았습니다. 그때 그 차와 제 차의 간격은 불과 5센티미터 정도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요행수로 이것을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입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사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사91:11-12).

하나님의 천사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경호원 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돌보아 줍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돌보라는 임무가 있습니다. 독자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도단에서 자신의 종과 함께 적군에 의해 둘러싸였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적들이 밤에 와서 그를 죽이려고 둘러섰습니다.

왕이 이르되, 가서 그가 어디 있나 탐지하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아오리라, 하니 *어떤 이가*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그가 도단에 있나이다, 하므로 왕이 말들과 병거들과 큰 군대를 거기로 보내니 그들이 밤에 가서 그 도시를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일찍 일어나 나갔는데, 보라, 군대가 말들과 병거들과 함께 그 도시를 에워쌌으므로 그의 종이 그에게 이르되, 아아, 내 주인이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매 그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므로 그가 보니, 보라, 불 말들과 불 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왕하6:13-17).

자, 당신은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 굴 속으로 던져진 경우를 살펴봅시다. 다리오 왕은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만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 다니엘을 사자 굴 속으로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다니엘이 죽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형의 집행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 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때에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구출 하시리라, 하니라. *사람들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 굴의 어귀에 두매 왕이 자기 도장과 자기 귀족들의 도장을 찍어 그 굴을 봉인하였으니 이것은 다니엘에 관하여 결의된 것을 *아무도* 바꾸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던라. 그때에 왕이 자기 궁궐에 가서 금식하며 밤을 지내고 자기 앞에 악기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고(단6:16-18)

그 뒤에 왕이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 굴로 가니라. 왕이 굴에 가서는 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리를 지르며 다니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계속해서 섬기는 네 하나님께서 너를 사자들에게서 구출하실 수 있느냐? 하매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오 왕이여,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단6:19-22).

다니엘은 심지어 굶긴 데도 없었습니다. 사자들의 턱은 자물쇠로 잠겼고 다니엘은 사자를 베개 삼아 잠을 잤습니다. 왕이 애가 타고 괴로워서 폭신한 최고급 침대에서 뒤척이고 있을 때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도 평안히 잠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베드로는 사형 집행을 기다리며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헤롯 왕은 요한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를 죽였고 살기가 등등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죽일 참이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 이런 까닭으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그를 끌어내려 하던 때에 바로 그 밤에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묶인 채 잠을 자고 간수들은 문 앞에서 감옥을 지키고 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베드로에게 오매 감옥 안에 한 광채가 빛나더라.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빨리 일어나라, 하니 그의 사슬들이 그의 손에서 풀려 떨어지더라(행 12:4-7).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띠를 띠고 네 신을 동여매라, 하므로 그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네 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 하매 베드로가 나와서 그를 따라가며 천사가 행한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가 환상을 본 줄로 생각하더라. 그들이 첫째와 둘째 감방을 지나 도시로 인도하는 쇠문에 다다랐는데 그 문이 그들을 향해 저절로 열리므로 그들이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그를 떠나더라(행12:8-10).

이리하여 베드로는 헤롯의 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사히 감옥을 탈출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배를 타고 항해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 큰 풍랑이 일어나 그 배는 그만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바다에 던져 버렸지만 여전히 풍랑은 그들을 침몰시키려고 더 심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며 바다의 물결이 미친 듯이 뛰노는 무서운 상황에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쇠사슬 소리를 내며 일어나서 갑판에 있는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기운을 내라. 배만 잃을 뿐 너희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네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선생들아, 기운을 내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일이 이루어지리라(행27:22-25).

그 배에 타고 있던 항해사들은 모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에 관한 한 그들은 모르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 여전히 배는 침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살아서 그 이야기를 전해 줄 수 있었을까요? 어떠십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 아닙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한 명 타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자,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돌보고 있음을 보여 주는 성경 구절을 찾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they who shall be heirs of salvation)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히1:14)

위에서 영어와 함께 쓰인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천사들은 이미 구원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될 자들도 돌보아 줍니다. 이 구절과 함께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병행하여 살펴봅시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주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문맥으로 보아 그분께서는 아기들, 즉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아기들 혹은 어린아이들에 대해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in heaven their angels)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18:10).

우리 주님의 말씀은 아주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의(아이들의) 천사들’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신 사실을 통해 저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아이들, 즉 아직까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천사가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절과 바로 위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4절을 연계하면 우리는 매우 간단하게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천사들이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들, 즉 자기의 의지를 갖고 있는 어른들을 내려다보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면 그(혹은 그녀)에게 최소한 한 명의 개인적인 천사가 배정됩니다. 이제 그 아이는 자라나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게 되며 자신의 죄에 대해 깨달을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물론 그때의 나이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요.

이때 만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결코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 천사가 그 사람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가 회개하고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아신다면 그의 평생 동안 그 천사가 그와 함께 지내도록 위임해 주십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아십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결국 하늘에 가게 될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선택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벧전1:2).

그러나 저는 이것이 칼빈의 극단적 예정론을 의미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나이에 이르면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선택되었으므로(예를 들자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으므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16:31)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그분을 믿고 받아들여야만 가능합니다.

제 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직 걷지도 못하던 갓난아기였을 때 제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는 기적적으로 죽지 않았고 전혀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태어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어머니께서는 조그만 바구니에 저를 담아서 밖에 해가 비치는 곳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야생마들이 떼를 지어 몰려다니곤 했습니

다. 우리가 살던 곳은 콜로라도주의 북부 지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 안에 계시던 어머니께서는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가 나는 것을 들으셨습니다. 밖을 보니 한 때의 야생마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곧바로 제가 담긴 바구니가 놓여 있는 곳으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그 야생마들이 저를 밟아서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다 걷힌 후에 보니 그 소동 속에서도 그 바구니는 전혀 손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 천사가 그들이 제게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장 제 앞으로 나가서 자기 팔을 폈습니다. 왼쪽 오른쪽을 가리키며 “이 아기는 주님의 선택된 자니 다쳐서는 안 된다. 너는 오른쪽으로, 너는 왼쪽으로 가라.”라고 그는 외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런 것은 결코 행운이 아닙니다.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분과 저를 돌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안위를 누리십시오. 한 살 정도 되었을 때 저는 우리 집 차의 좌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창문에 기대어 몸의 반 이상을 밖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수학적인 계산대로라면 저는 밖으로 떨어져서 두개골에 큰 상처를 입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는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과거를 따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의 차들은 지금보다 훨씬 크고 높았습니다. 따라서 제 머리는 시멘트 블록에 부딪치고 두개골은 반으로 갈라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천사는 제 몸의 반 이상이 창밖으로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신속하게 제 머리가 닿을 곳에 그의 손을 대어 충격 완화용 쿠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제가 네 살 때였습니다. 저희 집 뒷마당은 끝이 뾰족한 나무들로 울타리가 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원숭이처럼 어딘가 기어오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나무들, 빗물이 내려오는 통들, 기둥들, 그리고 뾰족한 나무 울타리에도 오르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뾰족한 나무 울타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그만 제 셔츠의 목 부분이 뾰족한데 걸려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그것이 비틀어지면서 제 숨통을 막아 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고 더구나 도와달라고 외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이 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천사가 저를 구해 주었다고 저는 확신합니

다. 그때 마침 제 외삼촌이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천사는 그에게 ‘나를 찾아보라’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냈을 때 저는 의식이 없었고 얼굴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죽기 바로 직전에 구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여러 차례 죽음의 고비마다 저는 천사들의 도움을 받았고 소년기를 지나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천사들은 수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저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한번은 제가 총알이 들어 있는 자동 소총의 구경을 눈에 대어 보기도 했고 저도 모르게 총신이 짧은 소총을 제 머리에 대기도 했습니다. 한번은 제가 탄 비행기가 거의 추락할 뻔 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제게 참으로 소중한 아내인 조니와 세 자녀들 코니, 제프 그리고 켈리를 주셨습니다. 지금 아이들은 모두 성장해서 그들 나름대로의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니와 제게는 그들의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들이 매우 소중한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아이들이 그들의 천사들을 바쁘게 만들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저는 막내딸인 켈리에게 일어났던 일을 잊지 못합니다.

켈리가 세 살이었을 때 이 아이는 사내아이들처럼 매우 험하게 놀았습니다. 그녀는 우리 동네에 사는 다섯 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자기 밑에 두고 데리고 놀았습니다. 아마도 주님께서서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두 명의 천사를 그녀에게 배정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녀는 쉬지 않고 기어오르고 떨어지고 싸우고 깨뜨리고 부딪치곤 했습니다.

한번은 켈리가 높은 나무마루에서 떨어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굴렀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계단마다 부딪쳤습니다. 사실 어른들 같았으면 심하게 상처를 받았을 테지만 그녀는 조그맣게 흠이 난 것을 제외하고는 멀쩡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녀의 천사들이 그녀의 머리가 계단에 부딪칠 때마다 쿠션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요행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살 때 한번은 그녀가 할아버지의 수영장 가장자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 수영장 근처에 있었지만 그녀에게 신경을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조그맣게 풍당하는 소리가 나더니 그녀가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이 아이의 할아버지는 수영장의 반대편 끝에 있다가 켈리가 물속에 잠겨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곧 물속으로 잠수해서 그녀를 찾아 나섰습니다. 제 아버지는 물밑에서 이미 그녀의 눈이 크게 열려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녀를 물에서 꺼내어 제 아내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켈리는 물속에 약 20초 정도 잠겨 있었지만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이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호하시려고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녀는 전에 물속에 머리를 담가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누구나 물에 빠지면 숨을 쉬려고 하다가 물을 먹게 됩니다.

또 한번은 켈리가 면도날로 손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마침 그때 집에는 아내도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집수리를 하느라 바빠 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천사들 중 하나가 제게 ‘심상치 않은 일이 생겼으니 빨리 켈리를 살펴보라’는 생각을 넣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목욕탕에서 면도날을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면도날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 아이는 그것을 옆으로 왔다 갔다 하게 했고 그때마다 그녀의 다리에 큰 상처가 났습니다. 그녀의 양다리가 모두 크게 찢겨져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피는 그리 많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어릴 적에 면도날로 상처를 많이 내 봤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처라면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와야만 하는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의 손에 그녀를 떠받들고는 상처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 일 이후에도 이 아이의 다리에는 아무런 흠집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이에게 닥쳤던 가장 큰 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켈리는 태어난 지 약 8개월 만에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목사가 되라는 소명을 주셨지만 저는 그 일을 마다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은행에서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솔직히 목회를 위해서 그렇게 좋은 자리를 내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음악을 담당했고 주일 학교에서도 가르쳤습니다. 우리 부부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매우 충실했으며 그 직분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우리는 교회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켈리의 천사들을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오늘 해야 할 일이 있다. 저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고집이 세서 목사가 되려 하지 않는데 오늘이야말로

그를 돌아서게 해야겠다. 그러니 오늘은 특별히 이 아이를 잘 보도록 해라.”

저는 집 앞으로 세 자녀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저는 켈리의 언니와 오빠에게 “내가 차고에서 차를 뒤로 뺄 테니 켈리를 잘 보렴.” 하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이 어떻게든 것을 잘 아시지요. 그 아이들은 서로 놀기에 바빠서 켈리가 차고 앞에 있는 차길로 가고 있는 것도 몰랐습니다. 한편 저는 차에 시동을 걸고 후진 기어를 넣은 채 차고에서 차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제 집 건너편에 사는 이웃 한 분이 “스톱!”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때 제프가 제 옆으로 오더니 소리를 쳤습니다. “아빠, 차 밑에 켈리가 깔렸어요! 켈리가 깔렸다고요!”

저는 그때 얼어붙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브레이크를 밟은 뒤 약 7, 8초가 지난 뒤 제 아내가 문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제게 앞으로 가야 할지 혹은 뒤로 가야 할지를 말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때의 몇 초는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목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제게 큰 소리를 질렀던 그 이웃 사람이 달려오자 제 아내가 “차를 앞으로 빼세요.”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른쪽 뒷바퀴가 그녀의 발목과 손목을 눌렀고 그녀의 머리는 바로 바퀴 뒤에 있었습니다. 약 0.1초만 더 늦었다면 그녀의 머리는 박살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에 그녀의 천사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시간을 잰습니다. 비록 그녀의 피부에 타이어 자국이 나기는 했지만 빼는 하나도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곧 가족의 주치의의 불렀고 그는 우리더러 그녀를 자세히 살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나쁜 증세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그것으로 그 사건은 끝이 났습니다. 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마18:10).

아마 어떤 분들은 이처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린아이가

심하게 다치거나 죽는다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천사들이 그 일을 게을리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전한 지혜 속에서 그 아이에게 심각한 상처나 죽음이 필요한가를 결정하십니다. 그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분께서 천사들을 물러나게 하시고 자기의 계획을 수행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천에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으키시거나 허용하시기를 원하는 모든 것 안에 절대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한 번 죽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의 천사들은 우리의 혼을 하늘로 가져갑니다. 여러분은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거지 나사로를 기억하십니까? 나사로는 매우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천사들이 그 주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눅16:22)

아브라함의 품은 낙원(Paradise)을 의미합니다.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이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즉 침례자 요한의 때까지 살았던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죽어서 갔던 곳입니다(눅23:43). 낙원은 지옥(하데스)의 차가운 쪽에 있으며 이 땅의 중심, 즉 심장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모든 구원받은 자들, 즉 구약 시대의 성도들을 하늘로 옮기셨습니다(엡4:8-10; 고후12:2-4).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들은 죽은 뒤에 더 이상 땅속의 낙원으로 가지 않고 직접 하늘로 갑니다.²⁾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제시하며 천사들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그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도 우리가 그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젊은 남자로 오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天使)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1-2).

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가 죽을 때에 천사들이 우리를 하늘로 데리고 간다고 말씀해 주셨으므로 임종 시 구원받은 혼(Soul)이 몸으로부터 빠져나 오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즉시로 천사들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바를 제대로 살펴본다면 육적 영역에서 영적 영역으

2) 「성경 바로 보기」와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그리스도 예수안)을 참조하기 바란다.

로 넘어가는 우리의 죽음은 사실 순간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을 수 있는데도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없습니다. 엘리사와 겹에 질린 그의 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눈을 여셔서 순식간에 저쪽 세상을 보도록 하셨지만 불쌍한 그의 종은 단지 이쪽 세상만 볼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여사 그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므로 그가 보니, 보라, 불 말들과 불 병거들이 엘리사를 둘러싼 채 산에 가득하더라(왕하6:17).



▲ 천사는 젊은 남자로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종 천사들이 단번에 여러 사람에게 나타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경우에 창세기 19장 4-5절에 기록된 대로 전체 군중이 그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그들이 여러 명에게 나타나지만 그중에 오직 한 사람만 그들을 보고 나머지는 보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초기 미국 개척 시절 네 살 난 어린 아들과 함께 단칸 오두막집에서 살았던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아들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을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정쯤에 그는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인자하게도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마를 닦아 주며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며 그를 보살폈습니다. 그녀는 밤늦도록 침대 곁에 있었습니다. 집 안에 있는 불이라고는 희미한 등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눈을 뜨고는 부엌 쪽을 향해 눈이 뚫어져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들이 나를 위해 왔어요”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누구 말이니?” “저기 있는 두 천사들 말이예요.”

그녀는 그를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얘야, 천사들이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단다.” “엄마 그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그들이 어디 있단 말이니? 얘야.” 그는 너무나 약해져서 손을 들어 그들을 가리킬 힘도 없었습니다. 그는 또다시 부엌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엄마, 엄마에게는 그들이 안 보여요? 그들은 바로 찬장 옆에 서 있어요.

그들은 제가 자기들과 함께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는 몇 번 기침을 하고 눈을 감고는 하늘로 가 버렸습니다.

죽음이 다가오면 많은 경우 죽는 사람의 혼은 두 세계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며 그 짧은 순간에 육과 영의 세계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제 아내가 아들 제프를 낳았을 때 그녀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심한 임신 중독증으로 고생하자 의사들은 강제로 조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분만 시에 의사들은 그녀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아내 조니에게 그때 그 사건을 글로 적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녀의 글을 적기 전에 저는 먼저 이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아내 조니는 제가 알고 있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정신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히스테리 증상을 보인 적도 없었고 연발 실수를 범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매일같이 꿈 이야기만 하며 “랄랄랄랄” 하며 쓸데없는 방언 이야기나 하고 직통 계시 등만을 이야기하는 ‘은사주의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성적이며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성경 신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녀가 자신이 보았다고 말하는 것을 정말로 보았다고 믿습니다. 다음은 조니의 간증문입니다.

내가 둘째 아이를 가진 뒤 여덟 달이 되었을 때 의사들은 매우 심각한 임신 중독증 때문에 예정보다 5주 앞당겨 강제로 아기를 낳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처하는 대부분의 여자들처럼 나 역시 많이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늘 그래 왔듯이 나는 주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기로 했다.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가 내 마음속에 넘쳐흘렀다. 나는 오후 늦게 분만실로 가는 침대를 탔다. 그때까지도 나는 얼마나 길며 괴로운 밤이 내 앞에 놓여 있는지 알지 못했고 것처럼 외로운 밤에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실 그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임신 중독증이 매우 심각했으므로 내게는 마취제가 허락되지 않았고 그 고통스러운 분만 과정의 아픔을 그대로 다 견뎌 내야만 했다.

그것은 참으로 길고 어려운 밤이었다. 밤이 점점 깊어 오면서 나는 내 힘과 생명 자체가 나로부터 떠나려는 듯한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이제야말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싸움을 할 수 없다고 느끼면서 눈을 떴을 때 내 침대 바로 옆에 빛나는 흰옷을 입은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보기에 참으로 상냥스러웠다. 나는 그 사람이 천사임을 깨달았다. 그런데 그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는 참으로 내게 가까이 있었고 너무나 실제적이어서 나는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내가 그에게 손을 내밀려 하자 그는 자기 손을 도로 거두어 버렸다. 그때 나는 그가 나를 본향으로 데리고 가려고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이 잘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안을 주러 온 것임을

깨달았다. 그 뒤 나는 곧바로 아들을 낳았고 그 천사는 내 곁을 떠났다.

이 사건은 1954년 11월 23일에 있었지만 지금도 내게는 그 일이 눈앞에 휩하다. 내가 지금 남편의 책에 내기 위해 이 글을 쓰면서도 나는 그 귀한 경험과 주님께서 나에게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그 사랑으로 인해 감사의 눈물을 흘린다. 바로 죽음 직전까지 경험했으므로 나는 왜 죽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무서움을 줄 수 없는가를 알게 되었다. 주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집으로 부르시려 하실 때 우리 손을 잡고 하늘로 우리를 데려오도록 그분 자신의 천사를 보내신다.

조 앤 레이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의 천사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 진을 치고 그들을 구출하는도다(시34:7).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대한 책무를 주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시91:11-12).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히1:14)

성도들이여! 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리함으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天使)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1-2).

제 7 장

천사들의 왕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너희는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력하신 주시요, 전투에 강력하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너희 영존하는 문들아, 즉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시리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군대들의 주 곧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시24:7-10).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빌2:9-11).

빌립보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시라고 선언하시며 시편 24편 10절에서는 그 주님이 바로 영광의 왕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왕이십니다. 그분께서 바로 영광의 왕이시요, 유대인의 왕이시며 또한 이방인들의 왕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온 땅의 왕이시요, 왕의 왕이시며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밑에 있는 것들의 왕이십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천사들의 왕도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그분을 보내셨을 때 그분의 강한 음성이 하늘의 전을 울렸고 우주의 끝이 없는 곳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 속으로 데려오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며(히1:6)

비록 천사들이 땅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 대해 특별한 의무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는 바로 자기들의 왕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히 그분에게 신경을 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일곱 가지 방법으로 그들이 자신들의 왕을 섬긴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1. 수태 예고에서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남자 즉 요셉이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와** 정혼(定婚)한 처녀에게 갔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그 천사가 들어가 그녀에게 가서 말하되,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평안하냐?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니 네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도다, 하매 그녀가 그를 보고 그가 하는 말에 불안해하며 이것이 무슨 식의 인사인가 하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니(눅1:26-29)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네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하니라. 그때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네 위에 내려오시고 가장 높으신 분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네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눅1:30-35).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를 사용하셔서 마리아가 자신의 독생자를 낳을 것임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예수님을 흠모했으므로 주저함 없이 기쁘게 그 일을 했습니다.

2. 성육신 속에서

그녀가 자기 맏아들을 낳아 싸매는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그들을 위한 방이 없었기 때문이더라.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자기 양 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오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더라. 그 천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싸매는 천에 싸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너희가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매 갑자기 하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한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눅2:7-14).

예수님께서 영원한 영광의 왕좌를 떠나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은 거기에서도 새로 태어난 왕께 경배했고 그분께 찬양을



▲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

드렸습니다. 천사들은 단 한 번도 그분께 가장 높은 경의를 표시하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죄성을 타고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겠지요.

사람들은 그분을 술고래라고 불렀지만
천사들은 그분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침을 뱉었지만
천사들은 그분을 흠모하며 사랑으로 대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쳤지만
천사들은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영광을 취했지만
천사들은 그분 손으로 이루신 일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게 식초와 쓸개를 주었지만
천사들은 그분에게 향내 나는 봉사로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천사들은 그분께 경배했습니다.

3. 시험 속에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상형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니 밤낮으로 사십 일 동안 금식하신 뒤에 주리시니라.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하였으나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그때에 마귀가 그분을 거룩한 도시로 데리고 올라가 성전 꼭대기에 그분을 세우고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들에게 너에 관한 책무를 주시리니 그들이 자기 손으로 너를 받들어 언제라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1-7).

다시 마귀가 그분을 심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 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옳드려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하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그분을 떠나고, 보라, 천사들이 와서 그분을 섬기더라(마4:8-11).

우리 예수님께서 사악한 마귀와 정면으로 만나 그의 시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천사들은 그 일에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자기들의 왕께 시중들러 왔습니다.

4. 극도의 피로 속에서

그분께서 나가사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 산으로 가시매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갔더니 그분께서 그곳에 계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에게서 물러가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곳으로 가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바닥에 떨어지더라(눅22:39-44).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치워 달라고 했던 그 잔은 그분의 아버지께서 갈보리의 어둠 속에서 그분의 떨리는 입 속에 넣어 주셨던 바로 그 잔이었습니다(요18:11). 그것은 이 세상의 더러운 죄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었습니다(벤

전2:24). 그 안의 모든 것을 마심으로써 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대신 죄가 되셨습니다(고후5:21).

영혼의 지극히 거룩함 속에서 그 밤에 십자가의 어둠이 자기에게 다가오자 그분께서는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분의 고통은 너무나도 커서 그분의 지치신 몸은 스펀지에서 물이 나오듯이 온통 땀으로 적셔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제자들 중 단 한 명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고 관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몸소 데리고 갔던 세 명의 제자들마저도 잠만 잤습니다(마26:40).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분을 도왔던 것은 오직 천사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왕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눅22:43).

여기에서 ‘강건하게 했다’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에니스쿠오’(enischuo)인데 이것은 ‘내적으로 강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께서는 육신적으로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의 전쟁은 그분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마태는 그분께서 그 시련의 초반부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음을 기록합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신 뒤(마26:38)

순전하며 의롭고 거룩하며 죄 없으신 그분의 혼은 임박한 죄의 잔을 보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분의 혼에 그토록 무서움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혼은 창세기 35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라헬의 혼(魂)이 떠나갈 때처럼 그분의 몸으로부터 스스로 떨어지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온 천사는 그분께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고통의 잔을 마시도록 내적인 힘을 주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분께서 그 고난의 잔을 마시지 않았더라면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는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 손님이 자기 집을 방문했을 때 그에게 잔을 지정해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손님으로 남아 있는 한 그는 반드시 그 잔으로 마셔야만 했습니다. 만일 그 손님이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에게 보통의 포도즙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만일 그 손님이 특별한 사람일 경우에는 그 집에서 가장 아끼는 최상품 포도즙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그 집의 주인이 예비한 포도즙의 질을 보고서 그 손님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분을 저주했고 욕했고 비난했으며 그분에게 침을 뱉고 때리고 옷을 벗기고 조롱하면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최상급 포도즙을 드리는 대신 우리는 우리의 죄로 가득한 쓴 잔을 그분께 드렸습니다. 오직 천사들만이 그분을 정당하게 대접했습니다.

5. 십자가 처형 속에서

가룟 유다가 검과 몽둥이를 든 일단의 무리를 겿세마네 동산으로 이끌고 와서 그들의 손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려 했을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어떤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당장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그리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리라, 하는 성경기록들이 어떻게 성취되겠느냐? 하시더라(마26:52-54).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무례하게 취급을 당하고 로마 군인들의 손에서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에 달리실 때 78,000명이 넘는 천사들이 하늘에 대기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몸짓과 부르심만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온 귀를 땅에다 집중했습니다. 그분께서 단 한마디의 명령만 내리셨다면 상황은 급변했을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그 군중들을 죽이고 그들을 모두 지옥으로 보냈을 것입니다.

군인들이 겿세마네에서 그분의 손을 묶었을 때 하늘의 군대들은 출동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분의 등에 채찍을 내리치자 미가엘은 칼을 꺼내 들고 왕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제가 그분을 도우러 가겠나이다!”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니다. 그가 너를 부르기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위에 그분을 내려놓고 잔인하게 그분의 손과 발 위에 못을 박았을 때 하늘의 군대들은 모두 칼을 빼 들고 “자, 이제 가자!”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좌로부터 “안 된다. 그가 너희를 부르지 않는 한 너희는 갈 수 없다.”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지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며, 나의 하나님이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

까?” 하고 외치자 미가엘이 하늘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는 소리쳤습니다. “들으셨지요. 제가 이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미가엘아! 그가 너를 부르기 전에는 결코 한 발짝도 땅으로 향할 수 없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결코 그들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대언자는 우리의 구원자께서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노라.”라고 말씀하셨음을 보여 주고 있지 않습니까?(사63:3) 우리 예수님께서서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까닭으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놓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내게는 그것을 내놓을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하시니라(요10:17-18).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대기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코 도움 요청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다음과 같이 외쳤던 군중들은 아마도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으리라(마27:42).

그런데 그때 만일 주님께서 천사들을 불렀더라면 혹은 만일 그분께서 한 말씀만 하심으로써 구출되셨더라면 그분께서는 결코 한 영혼도 지옥으로부터 구해 내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우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까? 사악한 인간들은 그 영광의 왕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저주하고 조롱하고 배척했지만 거룩한 천사들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했으며 그분의 말씀만 기다리며 신실하게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6. 부활하실 때에

안식일이 끝나고 주의 첫날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돌무덤을 보러 갔는데 보라, 큰 지진이 났더라. 이는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뒤 가서 그 돌을 입구에서 뒤로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기 때문이더라. 그의 용모가 번개와 같고 그의 옷이 눈과 같이 희므로 지키는 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떨다가 죽은 사람같이 되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너희가 찾고 있음을 내가 아노라. 그분은 친히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셨으므로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고

고하라. 보라, 그분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너희가 거기서 그분을 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느니라, 하므로(마28:1-7)

성도 누가는 무덤에 두 명의 천사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한편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여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 굴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다. 이것으로 인해 그들이 매우 당황하고 있을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자기들 곁에 서 있으므로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 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눅24:1-5)

비천한 말구유로부터 빈 무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천사들은 결코 단 한 번도 자기들의 왕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여! 우리도 우리의 친구인 천사들로부터 그런 교훈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7. 영광 중에서

마태복음 28장의 대위임과 자신의 최종 말씀을 신약 교회에게 주신 뒤 그분께서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마28:16-20; 행1:1-8). 그분께서는 거기에서 자기 원수들이 자기의 발받침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의사 누가는 이 승천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그분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똑바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데, 보라, 흰옷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더니 그들이 또한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것처럼 그렇게 같은 방식으로 오시리라, 하니라(행1:9-11).



▲ 예수님의 승천 때에 나타난 천사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바로 그 자리에도 천사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하늘로 향하시는 그분의 출발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바울과 요한은 하늘에서 본 승천의 광경을 묘사해 줍니다.

주께서 나를 아프게 징계하셨으나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라. 내가 거기서 들어가 주를 찬양하리다(시118:18-19).

시편 118편은 겐세마네에서 일어났던 일, 그분의 체포, 십자가에서의 처형, 죽음, 그리고 부활을 차례로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이미 다윗은 성령님의 영감으로 이 사건들을 예언했습니다. 부디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하늘의 문에 다다르셔서 “내게 의의 문들을 열라.”고 외치십니다. 그 문들을 지난 뒤 그분께서는 아버지의 왕좌에 다닙니다. 아버지께서는 사랑스럽게 그분을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 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히1:13).

천사들은 그분께서 영광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수치로부터 영광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그분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性品)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딤후3:16).

자세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늘 천사들에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녀 탄생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침례를 보았습니다. 또 그분의 사역, 체포, 심문, 십자가 처형, 부활, 승천, 영광을 받는 것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분께서 본향으로 돌아오자 천사들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뒤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느니라.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고 말씀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느냐?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 속으로 데려오실 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하라, 하시며(히1:3-6)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시간의 망원경을 통해 영원을 내다보게 해 줍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천사들의 왕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의 왕좌 위에 높이 들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그분께서는 어린양으로 나타나시는데 그 어린양은 여전히 갈보리에서 찢겨진 상처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들이 그분의 왕좌 주위에서 찬양하고 있습니다(히12:22).

또 내가 보고 왕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들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는 만만이요 천천이더라. 그들이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양께서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시도다, 하더라(계5:11-12).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이 그분께 경배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마땅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런데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겨우 소수만이 그분께 경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주님에 대한 수태 예고에서(In Annunciation),
주님의 성육신 속에서(In Incarnation),
시험 속에서(In Temptation),
극도의 피로 속에서(In Exhaustion),
십자가 처형 속에서(In Crucifixion),
부활하실 때에(In Resurrection),
영광 중에서(In Glorification),

자기들의 왕이시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 흠모의 정을 보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기들의 왕을 찬양할 것입니다.

오, 천사들의 왕이시여!
들의 짐승들도 그분을 존경했습니다.
짐 신는 짐승들도 그분께 등을 내어 주었습니다.
바다의 고기도 그분의 세금을 내주었습니다.
바람과 파도도 그분의 말씀에 잠잠해졌습니다.
나무도 그분의 저주에 말라 버렸습니다.
그분의 명령에 물도 포도즙으로 변했습니다.
그분의 외침에 돌들도 외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악하며 반역하며 배은망덕하고
이기적인 죄인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그 왕을 존경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부탁드리오니
우리도 이제 천사들과 함께 우리의 왕께 경배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립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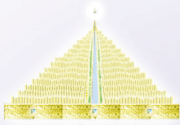
모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맞으라.
천사들아 앞드려서
영광의 금관을 가져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께 씌워 드려라
영광의 금관을 가져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주님께 씌워 드려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의 회복

Ω

오메가
시대들의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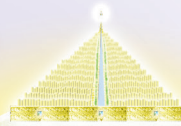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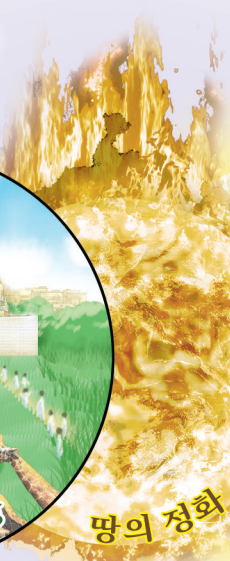
새 예루살렘



아돔의 사다리

창28:10-15; 요1:51

천년왕국의 땅



새 예루살렘

구원받은 자들이
이 도시의 빛 가운데서
걸음(계21:24)

새 땅

땅의 정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이어야 하느니라(행3:19-21).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불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벧후3:12-13).

창세기는 죄와 사람의 타락을 보여 주며 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 준다. 위의 성경 말씀대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된다.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는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천년왕국이 열리며 이 기간에 구약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창12:2-3; 창15:18-21; 시2; 사11; 겔40-48; 속14 등)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때에 팔레스타인 땅은 지구의 중심이 되며 아브라함의 씨인 히브리 민족은 민족들 중에서 으뜸가는 민족이 된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 기간을 '다시 태어나는 때'라고 말씀하셨다(마 19:28). 이 기간이 끝나고 신구약성경의 모든 예언이 옛 땅에서 성취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며(벧후3:10-13; 계21:1)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다가오는 영원 안에서 이루어진다.

영의 세계

성경은 초자연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현대에 팽배한 물질주의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이 영의 세계에 대해 보여 주는 것을 제대로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세계에서 영적인 세계로 가는 데는 단 하나의 계단이 있습니다. 이 두 세계를 나누고 있는 베일은 바로 우리의 육체입니다. 하늘에는 모두 영적 존재만 있으며 그들은 두 종류, 즉 좋은 존재와 악한 존재로 나뉩니다. 그들은 스랍, 그룹, 천사들(좋은 천사와 나쁜 천사), 권력들, 권능들, 어둠의 치리자들, 사악한 영들(엡6:12), 왕좌들, 통치자들(골1:16), 타락한 천사들(벧후2:4), 옥에 있는 영들(벧전3:18-20), 마귀들, 유혹하는 영들(딤후4:1) 등으로 구분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있듯이 천사들의 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들은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전능하지는 못합니다(살후1:7). 그들은 힘이 매우 강해서 천사 하나가 하룻밤 사이에 아시리아 군사 185,000명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천사 하나가 그리스도께서 누워 계셨던 무덤에서 큰 돌을 굴러 냈고 장래에는 또 다른 천사 하나가 사탄을 결박해서 바다없는 구덩이(무저갱) 속으로 던져 넣을 것입니다. 이들은 다 영광스러운 존재들이며(눅9:26) 지식을 많이 갖고 있으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에게는 섬기는 영들이며(히1:13-14), 사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를 수행하는 존재들입니다(살후1:7-8). 장래에 이 천사들은 세상의 사방에서 이스라엘의 선택된 자들을 불러 모을 것이며(마24:31) 하나님의 백성의 물질적 필요를 채워 줄 것입니다(왕상19:4-8; 마4:11).

영적 세계의 권력들과 권능들 가운데는 뛰어난 존재들이 셋 있습니다.

1. 미가엘

미가엘은 다니엘서에서 세 번 언급되고 있으며(단10:13, 21; 12:1) 다니엘

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통치자로 불립니다. 그는 또한 유다서 9절에서 천사장으로 불립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서 그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군대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의 주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사탄의 권능으로부터 구출하며 하늘에서부터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땅으로 추방하는 것입니다(계12:7-9). 그는 또한 죽은 자들의 부활과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니엘서 12장 1-2절에서 언급된 부활과 연관되어 있고, 마귀와 더불어 모세의 부활에 대해 경합을 벌였으며(유9),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때 들리게 될 천사장의 음성이 바로 미가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장이 미가엘이라는 것은 그가 성경에서 언급된 유일한 천사장이라는 사실 때문에 확실합니다.

2.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성경에 이름과 함께 네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니엘서에 두 번 나오고 누가복음에 두 번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8장 16절과 9장 21-27절에서 그는 다니엘에게 나타나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알려 주었고, 초림의 때가 되자 사가랴에게 나타나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침례자 요한의 출생을 알려 주었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의 출생을 알려 주었습니다(눅1:19, 26-27). 그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하늘에서 그의 지위가 매우 높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 사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사탄을 언급한다고 해서 그가 결코 이 셋 중 가장 지위가 낮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매우 큰 자입니다. 다만 그의 사악한 성품 때문에 맨 마지막에 언급할 뿐입니다. 그는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무정부 상태나 반역의 근원입니다. 사탄에 관해서는 다음 장을 보기 바랍니다.

영의 세계와 사람과의 관계

사람은 물질적인 존재이며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 두 개의 세계, 즉 물질세계와 영의 세계를 인식하도록 지어졌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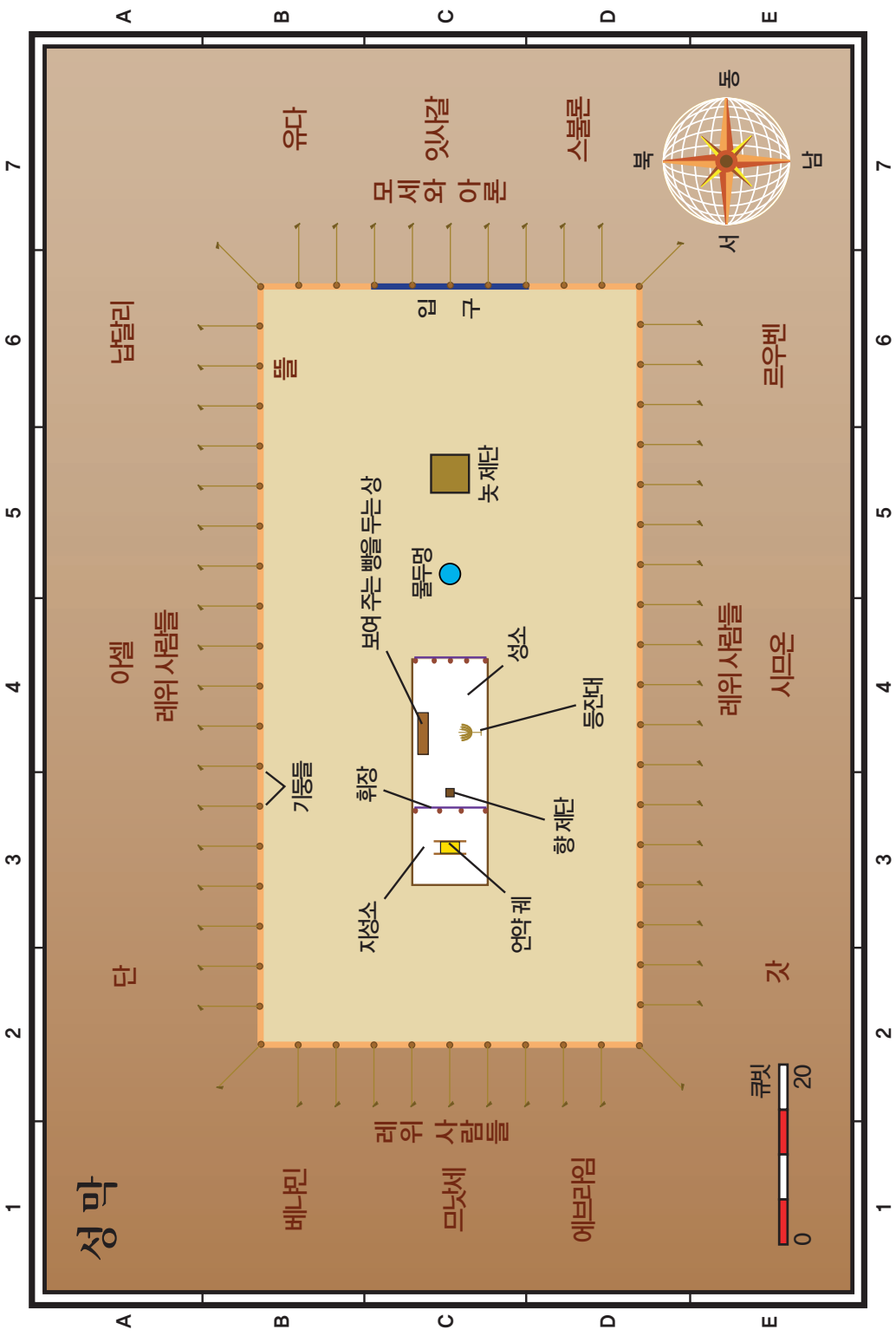
그는 또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4:12)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된 삼중적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는데 사실 하나님은 삼위일체
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성막은 밖에 있는 뜰에 의해 둘러싸였고 이 뜰은
막으로 된 펜스로 둘러싸였습니다. <성막> 선도(344쪽)를 참조하기 바랍니
다. 이 성막은 두 부분으로 나뉘었고 하나의 길이는 다른 하나의 길이의
두 배이며 그 사이에 베일, 즉 커튼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의 방 중 큰
것은 거룩한 곳, 즉 성소라 불렸으며 밖에서 거기로 들어가려면 커튼이
쳐져 있는 문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안에는 보여 주는 빵을 두는 상과
분향 제단 그리고 일곱 개의 가지로 된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성소로부터
지성소, 즉 두 방 중 작은 방에 들어가려면 두 방을 나누는 커튼인 베일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궤의 뚜껑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 '세카이나 영광' 중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셨습니다. 이 방은 가장 거룩한 곳, 즉 지성소라 불렸습니다. 성막 안에는
창문이 하나도 없었으며 그 안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출입구는 성소에
이르는 문, 즉 커튼으로 닫힌 문뿐이었습니다.

이 같은 성막과 그 주변의 뜰은 사람의 세 요소를 보여 주는 예표입니다.
뜰은 몸을 나타내고 성소는 혼을 나타내며 지성소는 영을 나타냅니다. 성소를
통하지 않고는 뜰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없듯이 사람의 경우에도
오직 혼을 통해서만 영과 몸이 통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 완성된 뒤에도
하나님의 영께서 지성소에 자신의 거처를 정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록 사람이 영과 혼과 몸으로 완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사람의 본질 중의 영의 방을 소유하시기 전까지
그는 영적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새로 태어나는 것, 즉 다시 태어남이 일어날 때에야 비로소 생기게 됩니다.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세 요소> 선도(345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원은 사람의 몸을 나타내고中间的
원은 혼을 그리고 가장 안쪽에 있는 원은 사람의 영을 나타냅니다. 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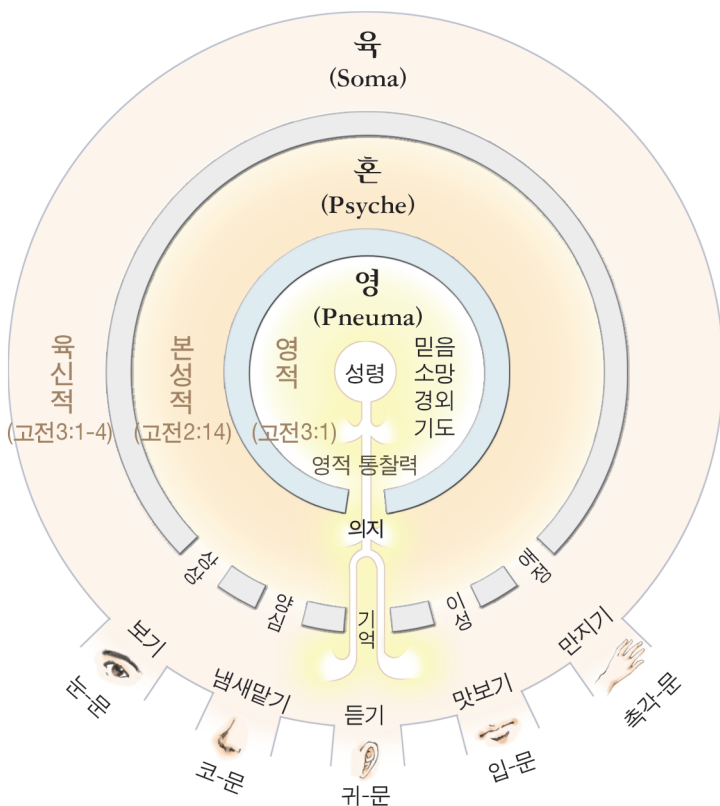


성막

<성막>



사람의 세 요소



화평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살전5:2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히4:12)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적 존재이다. 다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는 달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에게서 오는 믿음을 받아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들일 때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귀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며(창3:6; 수7:21; 삿14:2; 삼하11:2; 요일2:16) 하나님은 주로 듣는 것을 통해 사람의 혼에 접근하신다(롬10:17).

바울은 이것을 육적인 것(고전3:1-3), 본성적인 것(고전2:14) 그리고 영적인 것(고전3:1)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원을 보면 몸이 다섯 가지 감각, 즉 보는 것, 냄새 맡는 것, 듣는 것, 맛보는 것, 만지는 것 등을 통해 물질세계와 접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혼에 이르는 문에는 상상, 양심, 기억, 이성, 애정 등이 있습니다. 영은 혼을 통해서 외부에 있는 물질적인 것들에 대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영이 갖고 있는 영적 기능은 믿음, 소망, 경외심, 기도, 경배 등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의 영이 하늘로부터 조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을 때 죄가 영의 창문을 막아 버렸고 커튼을 내림으로써 영의 방은 죽음의 방이 되고 말았습니다.¹⁾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상태가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 영의 방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의 능력, 즉 생명과 빛을 주시는 능력으로 채우실 때에야 비로소 그들은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성에 속한 자연인이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연인은 그의 영적 상태가 새롭게 될 때까지 결코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연인의 영은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의지가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의 혼과 영은 몸으로부터 분리되고 몸은 무덤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나 영은 결코 몸이 없는 그런 상태로 있지 않고 '혼적인 몸'(soul-ish body)이라 불리는 몸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혼적인 몸은 듣거나 말하거나 생각하거나 느낄 수 있으므로 만질 수 있는 형태를 취해야만 합니다. 또한 이 몸은 형체가 없는 유령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몸은 완전치 못하여 어떤 제약이 있긴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 인이 부활 때에 자신이 원래 소유했던 육적인 몸을 다시 얻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혼적인 몸이 존재한다는 것은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비유가 아니며 예수님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구약 시대에 다른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그대로 묘사한 실제 사건입니다.

이 기사에서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 이것은 자연인의 영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다. 산 사람 중에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만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어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이들의 몸은 땅속에 있었습니다. 지하 세계에서 일어났던 일은 그들의 육적인 몸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태에서 그들은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부자는 나사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나사로가 몸이 없었다면 그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확신하는 바는 그 몸이 육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육적인 몸은 땅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곳에서의 그의 몸은 ‘혼적인 몸’(soulish body)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 ‘혼적인 몸’이 단순히 어떤 형태를 지닌 몸이 아니라 밖으로 보이는 형태나 모습 면에서 그 몸의 소유주가 땅에서 갖고 있던 육적인 몸과 똑같은 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무도 그 세상에서 그를 알아볼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도 부자는 여전히 보고 느끼고 목말라하고 말하고 기억할 수 있었는데 이 사실은 그가 감각을 갖고 있었고 또 자신의 인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이 사실은 이 땅의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옮겨갈 때에 제칠일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것, 즉 ‘혼이 잠자는 것’ 등과 같은 어떤 불연속성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 줍니다. 성경에서 ‘잠자다’라는 표현이 쓰일 때 그것은 항상 몸을 가리키며 결코 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는 표현은 항상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적용됩니다.

자, 이제부터 영과 혼이 몸을 떠난 뒤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봅시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우리는 지하 세계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됩니다. <지하 세계> 선도(349쪽)를 보기 바랍니다. 지하 세계는 낙원과 지옥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둘 사이에는 사람이 서로 오갈 수 없는, 깊이 갈라진 틈이 있습니다.²⁾ 이같이 깊이 갈라진 틈의 밑에는 바닥없는 구덩이(무저갱) 혹은 아부쓰스(아비쓰)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악한 영들이 갇혀 있습니

2) 원래 지옥, 즉 ‘Hell’은 넓은 의미로 ‘죽은 자가 가는 그늘진 곳’을 뜻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의 구약 시대에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죽으면 다 땅에 있는 지하 세계, 즉 ‘넓은 의미의 지옥’으로 갔다(삼상28:14, 19).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그리스도의 부활 이전 사람들, 즉 구약 사람들이므로 둘 다 죽어서 넓은 의미의 이 지옥, 즉 지하 세계로 갔다. 물론 거기에는 누가복음 16장이 기록하듯이 의인들을 위한 ‘안식하는 부분’(아브라함의 품)과 악인들을 위한 ‘형벌받는 부분’이 있었고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다. 예수님과 십자가 처형 시의 한 강도도 죽은 뒤 이 넓은 의미의 지옥의 낙원 부분으로 내려갔다(행2:27, 31).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지하 세계의 ‘아브라함의 품’, 즉 낙원은 그 거주민들과 함께 하늘로 옮겨져서 지금의 지하 세계에는 ‘좁은 의미의 지옥’, 즉 형벌받는 장소만 남아 있다. 따라서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말을 접하면 일단 지하 세계로 생각하되 그것이 십자가 사건 전의 넓은 의미의 지옥인지 십자가 사건 후의 좁은 의미의 지옥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 또한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은 최후의 지옥, 즉 계헨나라 불리는 불 호수(계20:14)가 아니다.

다. 그곳에는 이 구덩이를 다스리는 왕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아폴리온입니다(계9:11). 이 구덩이는 현재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셨으며 후에 자신이 원할 때에 천사를 시켜 그것을 여실 것입니다(계9:1-16; 17:8;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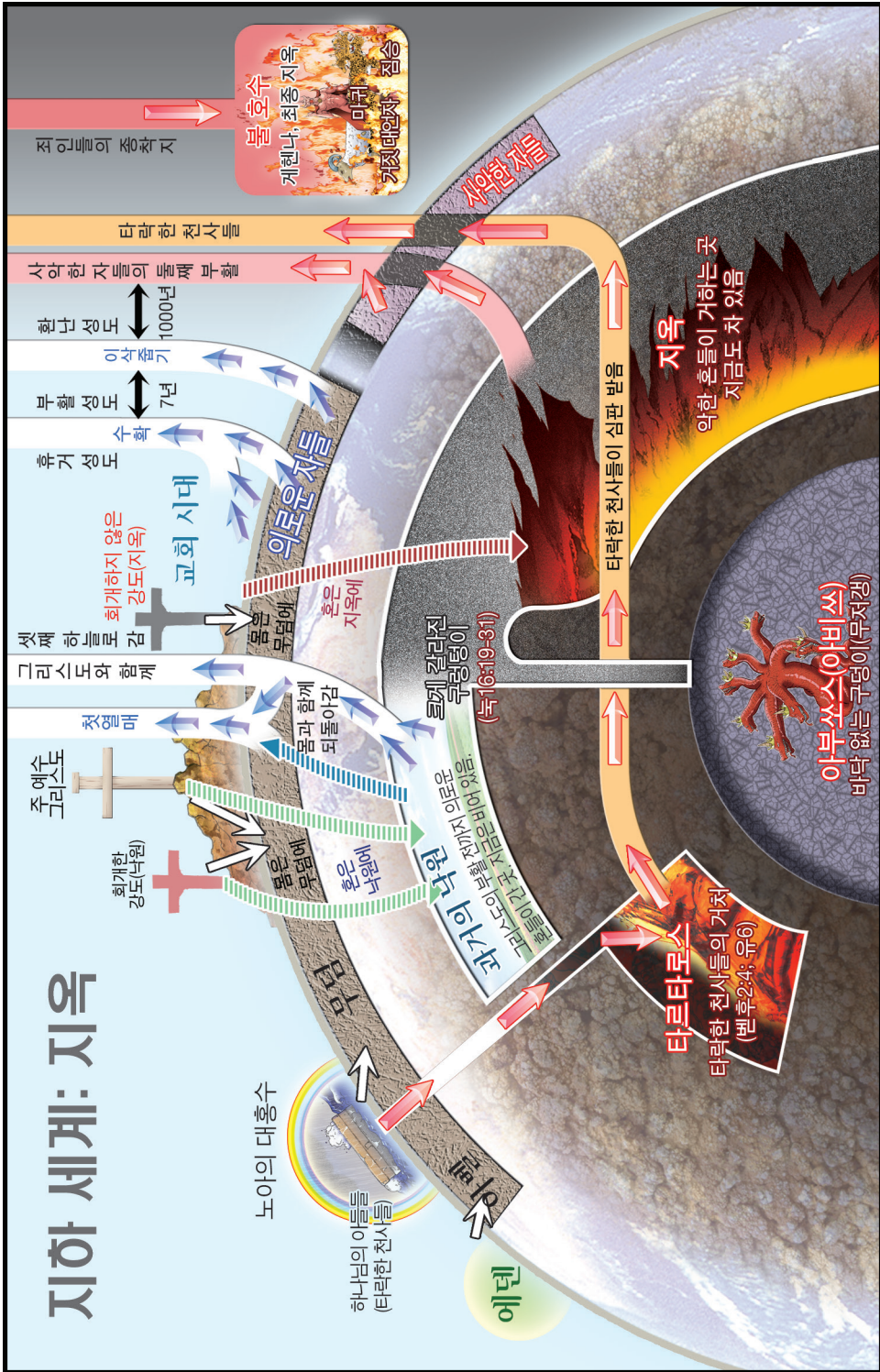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의로운 사람의 영과 혼이 지하 세계의 낙원 부분으로 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뒤에 바로 그 낙원에서, ‘회개한 강도’를 만나셨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시던 날 그리스도의 영과 혼은 지하 세계로부터 되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분께서는 혼자만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분께서는 낙원에 있던 자들을 다 데리고 나오시며 그곳을 달아 버렸고(엡4:7-10) 그래서 이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갖고 계십니다(계1:18).

그리스도와 함께 나온 사람들 중 몇몇은 자기 몸을 받아 그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마27:52-53). 그 나머지는 사도 바울이 들려 올라갔던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고후 12:1-4).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의로운 자들의 혼은 바로 이곳으로 직접 가서 주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고후5:8; 빌1:23). 바로 이곳에서 의로운 자들의 혼은 그들의 몸이 부활하는 때가 올 때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서 자신의 교회를 만나러 오실 때에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부터 의로운 자들의 혼을 다시 데리고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잠든 자들’을 그분께서 자신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살전4:14). 그들은 땅에까지 와서 무덤에서 자기 몸을 받아 휴거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지하 세계> 선도를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악한 자들의 혼은 지금도 여전히 지하 세계의 지옥에 갇혀 있으며 둘째 부활의 때까지 그곳에 머무를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 때에 이들은 땅으로 돌아가 자기의 몸을 받고 곧장 흰 왕좌 심판으로 들어갑니다. 이 심판 뒤에 그들은 둘째 사망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몸을 잃는다는 의미에서 두 번째 죽는 것을 뜻합니다. 또 그들은 육적인 몸이 없는 영들로서,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처럼, 최종 지옥인 계헨나, 즉 불 호수 속으로 던져져서 영원토록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영과 혼은 불 속에서도 손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실은 사악한 자들이 둘째 사망에 의해 그 몸을 다시 잃은 뒤에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막9:43-48).

지하 세계: 지옥



(지하 세계: 지옥)

현재 우리는 영적 강신술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것은 산 자들이 죽은 자들과 교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강신술 혹은 심령술은 사실 마귀를 숭배하는 것으로 성경은 이것을 철저히 금하고 있습니다(레20:6, 27; 신18:10-11; 사8:19). 구약 성경에 나오는 ‘부리는 영들’(familiar spirits) 혹은 ‘익숙한 영들’은 신약 시대의 마귀들이며 유혹하는 영들입니다.

심령술

우리는 신약 성경의 경고를 통해 마지막 시대에 심령술이 부흥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상형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딤후4:1-3).

‘혼인을 금하고’라는 말은 독신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 관계의 폐기나 자유 결혼(혹은 연애) 등을 의미합니다. ‘음식물을 삼가라’는 말은 금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식을 하지 말고 채식만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식을 하게 되면 육식을 하는 경우보다 영적인 힘에 더 민감하게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³⁾ 사도 바울의 이 같은 경고가 7절에 있는 말씀, 곧 “속된 것들 즉 늙은 부녀들이 꾸며 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는 말씀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은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무슨 무슨 주의’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천 사이언스야말로 늙은 부녀가 꾸며 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크리스천 사이언스⁴⁾의 주창자였던 에디

3) 힌두교도들과 승려들 그리고 뉴에이지 추종자들은 채식만을 강조한다. 육식을 하면 진동 에너지가 나와 마귀와의 접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마귀는 사람이 몽롱한 가운데 자아를 잃게 만들고 그 몸에 들어가 각종 신비한 일을 행한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육의 건강을 위해 적당한 양의 고기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딤후4:3).

4) 미국의 종교가 M. B. 에디 부인이 1866년에 창시하였다. 미국·영국 두 나라에 신봉자가 많다. 그들은 교의의 원리를 성경에서 찾고 있으나 이것은 단순하고 속신적인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즉 그들은 인간 정신·신·그리스도는 일체이며 이것이 존재하면 인간은 건강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보낼 수가 있다고 주장하며 또 병이란 잘못된 주관적인 상태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잘못을 제거하면 병이 낫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또한 이를 실행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를 본받으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 같은 이론과 오늘날의 심리 요법 비슷한 방법으로써 신자를 놀려 나갔다(두산백과사전에서).

부인은 여러 번 결혼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늙은 부녀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마녀들과 성경에 나오는 영매들 그리고 현시대의 영매들이 여자라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브를 통해서 인류를 파멸시키려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여인들의 노심초사하는 성격이나 남에게 쉽게 영향을 받는 성격이 마귀들의 계략에 조금 더 쉽게 이용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령술 혹은 마귀 숭배의 부활은 이 시대의 표적들 중 하나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어둠의 권능들에 속해 있습니다. 마귀들은 숫자적으로 많을 뿐만 아니라 큰 군대를 이루고 있고 사탄을 위한 일에 능숙한 자들입니다. 이들의 중앙 정부는 바닥없는 구덩이에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의 명령에 따라 그곳에서부터 나아갑니다(계9:1-11). 마귀들이 인격과 개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눅8:26-33). 물론 이 마귀들은 보통 사람 이상의 지능을 소유하고 있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자기들이 궁극적으로는 고통의 장소에 갇힐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마8:29).

인간의 몸에 대한 마귀들의 권능

마귀들은 사람이 말을 못하게 하거나(마9:32-33)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마12:22). 또 이들은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있고(눅8:26-35) 자살하게 할 수 있으며(막9:22) 사람의 신체에 해를 입힐 수 있고(막9:18) 사람에게 어떤 초능력을 부여할 수 있으며(눅8:29) 몸의 변형이나 불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눅13:11-17).

마귀들의 포악한 성격은 자기들의 피해자들을 다루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희생자들을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며(롬6:13), 마귀들의 교리를 선포하는 데 사용하고(딤후4:1), 저주받을 이단 교리를 가르치는 데 사용합니다(벰후2:1). 피해자를 이같이 악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 결과 사악하고 비인간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 들린 남녀들의 행동은 마귀들이 그들을 소유하여 육적이며 성적인 만족을 위해 사용하려 함을 보여 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서는 사람들이 미혹하게 하는 영들에 순응하려는 경향이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의 복장이 건전치 못하며 사람들이 광란적으로 춤을 춘다는 것은 다 위의 사실과 연관이 있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종종 남편과 아내를 나누어 놓고 자유연애의

교리를 선포함으로써 가정을 붕괴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귀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희생자를 제어하며 또 그 희생자의 마음과 몸을 파괴시키고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희생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서고 이로써 마귀로부터 해방되지 않는다면 그는 혼과 몸을 잃어버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귀 들리는 것과 질병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간질은 당사자가 경련을 일으키게 하며 입에서 거품을 토하게 하고 이빨을 부득부득 갈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런 간질과 마귀 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마4:24).

고린도전서 10장 20-2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이것을 말하노라. 즉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느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마귀들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고 주의 상과 마귀들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구절은 이교도들의 숭배 의식의 배후에 마귀 숭배가 있음을 보여 주며 이들의 축제가 난장판이 되며 이들의 숭배 형식이 탐욕적이며 관능적인 이유를 잘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19-31절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이미 죽은 자들의 영과 교통하는 것이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음을 보여 줍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 즉 거룩한 성경기록이 있어서 그것이 죽은 자들의 상태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든지 부자든지 죽은 이후에 땅으로 다시 가서 부자의 형제들에게 경고를 해 주는 것은 결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선한 자의 영이든 악한 자의 영이든 일단 죽으면 이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심령술 혹은 강신술은 거짓입니다. 이것은 말세에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하는 이들을 방황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도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심령술에 빠지는 사람은 지각이 어둡게 되는 큰 위험에 빠지게 되고 마귀들의 권능과 제어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엡4:17-19).

사 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사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단순한 악의 원리일 뿐이고, 이러한 악은 공기 중에 떠다니는 세균과 같은 실체 없는 존재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일종의 말라리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견으로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오직 성경에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벧전5:8)

그는 두루 다니며 울부짖고 또한 나중에 사슬에 갇히게 됩니다(계20:1-3). 이런 일들은 악의 원리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사탄, 마귀, 바알세불, 벨리알, 대적자, 용, 뱀 등과 같은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는 이 이름들 중 하나로 174회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천상의 실력자입니다. 사탄은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이며(엡2:2) 이 세상의 신(고후4:4)입니다.

1. 사탄의 기원

사탄의 기원은 다소 신비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가 창조된 존재이고 극도로 높여졌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타락하기 전,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의 왕좌의 근위병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가 창조된 날부터 불법이 그에게서 발견되기 전까지 모든 길에서 완전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의 충만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이 아름다움이 교만을 일으켜서 그의 타락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었고 모두 금으로 뜯은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거주했습니다. 이곳은 지상의 에덴을 말하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실을 에스겔서 28장 11-19절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대언자 에스겔은 두로 왕이라는 사람을 언급하면서 적그리스도에 대해 예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묘사된 것과 같은 두로 왕은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었습니다.¹⁾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화신이므로 대언자 에스겔은 여기서 타락하기 전에 사탄이 가졌던 원래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타락 원인은 이사야서 14장 12-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탄은 아침의 아들인 루시퍼²⁾로 불리는데 이것은 그가 창조되었을 때 그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새벽별들, 즉 그와 더불어 영광스럽게 창조된 ‘다른 다스리는 존재들’(천사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천사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습니다(욥38:7).

여기에서 루시퍼, 즉 아침의 아들이라 불린 인물이 다시 4절에서는 바빌론 왕이라 불리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묘사된 인물과 같은 바빌론 왕은 이제까지 없었으므로 이 구절은 바빌론의 미래 왕을 묘사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재건된 바빌론을 자신의 본거지로 삼을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대언자 이사야가 적그리스도를 미리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루시퍼 또는 사탄이 적그리스도 안에 내주할 것이며 그때에 그는 바빌론의 왕이 될 것입니다.

대언자 이사야는 사탄의 타락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1) 그러므로 앞뒤 문맥상 여기의 두로 왕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마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곳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불법의 신비’(살후2:7)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이 말씀은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 주므로 지금까지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자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 결과 개혁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했고 이로써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타락 전 사탄의 이름을 보여 주는 부분은 본문에서 삭제되어 성도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 부패되지 않은 채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루시퍼의 일대기를 보여 주고 있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끌려 내려가리라.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이르기를, 이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그곳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의 포로들을 둔 집을 열지 아니한 자냐? 하리라(사14:12-17).

이 구절들은 사탄의 오만(13-14절),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17절), 그리고 그의 파멸(15-16절)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라하게 보여 줍니다. 사탄은 이 땅을 통치하기 원하며 실제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의 권능과 영광은 그에게 넘겨졌습니다(눅4:6). 그래서 그는 이 세상이 자신에게 속해 있으며 따라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우월성을 인정하기만 하면(마4:8-9) 이 세상의 왕국들을 그분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탄이 이 땅을 자신의 소유로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항하여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줍니다.

II. 사탄의 현재 위치

사탄의 현재 위치에 대해 거론할 때 대개 많은 사람들은 그가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지옥에 감금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과 유다서 6절에 묘사된 천사들은 자기들의 처음 위치를 떠나서 암흑 속에 영원한 쇠사슬에 묶인 채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운행하고 있는 사탄의 천사들을 가리키지 않고 자기들의 죄로 인해 노아의 홍수를 불러온 특별한 계층의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베드로전서 3장 18-20절에서 말하고 있는 ‘감옥에 있는 영들’입니다. 현재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욥기 1-2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천사들)이 자기들이 맡은 일을 보고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이 욥이 살던 때의 관행이었다는 것과 사탄도 언제나 그들과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물으셨을 때 그는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라고 말했습니다(욥1:7; 2:2). 사탄은 욥이 살던 때, 즉 주전 2000년경에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고 그 당시에 아직 하늘에서 완전히 추방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는 하늘에서 추방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하늘의 영역에서와 땅에서 자유로운 상태로 움직이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 선도(357 쪽)를 보기 바랍니다.

III. 사탄의 왕국

사탄은 왕으로서 왕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왕국마다 황폐하게 되며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된 도시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내쫓는다면 그가 자기를 대적하여 분열되었나니 그러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마12:25-26)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엡6:12).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권력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사악한 영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들은 대언자 다니엘이 살던 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어떤 민족들을 주관하는 통치자들에 의해 지배를 받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사자를 다니엘에게 보내었으나 사탄이 지배하는 페르시아 왕국의 영적인 존재인 통치자가 3주 동안 그를 방해했고 결국 천사장 미가엘이 그를 구하기 위해 옵니다(단10:10-14).

IV. 사탄의 방법

1. 그는 세상을 속이는 자이다.

세상이란 사탄의 체제에 속하는 모든 사람과 사탄의 올가미에 사로잡힌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며(요일5:19)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후4:3-4).

이 목적을 위해 사탄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설교자들을 두고 있습니다(갈1:6-9). 이런 복음은 마귀들의 교리입니다(딤후4:1). 그는 엄청난 배도의 선동자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



하늘에서의 전쟁
(계12:7-12)

사탄의 왕국
공중의 권세를 잡음

루시퍼
(사14:13-14)

사람의 타락

사탄
덮는 그늘
(겔28:14)

뱀의 발자취 (마12:24-30)

사람의 뱀을 따라 세워진

홍수
창6

바벨탑
창11

음
음1:2

광야의 시험
(마4:1-11)

교회
현재 시대

적그리스도

천년왕국
(계20:1-6)

사람이 쫓겨남
(계20:1-3)

바다 없는 구렁이
(무저갱)
(계20:1-3)

사람이 쫓겨남
(계20:10)

사람이 쫓겨남

그러나 백성 가운데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을 터인데 그들은 정죄받을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에게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많은 이들이 그들의 악독한 길들을 따를 것이며 그들로 인해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으리라(벰후2:1-2).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도처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몸의 부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前) 천년 재림’(Premillennial coming)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아주 교활한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가능하다면 그는 선택받은 자들조차도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의 관심을 일으킬 만한 위대한 성경 주제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매우 지혜롭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공개적으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교리로 더럽히는 방법으로 속이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재림에 대해 수많은 거짓 가르침을 세우고 재림의 시기를 정하고 공포함으로써 교회로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강탈하려고 시도해 왔습니다. 인류가 치유받으려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는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새로운 사교’ 등과 같은 거짓 체계들을 개발해 냈습니다. 또한 사탄은 영의 세계에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를 원하는 인간의 마음의 강렬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신비주의나 강신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또 사탄은 폭력과 박해로는 교회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전술을 바꾸어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도록 유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걱정하신 이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는 웅대한 문명을 건설하려 하고 있으며 교회를 미혹에 빠뜨려서 사회 개선을 통해 그리스도 없는 천년 왕국의 도래를 믿도록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의 소망은 사회봉사를 통한 행위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을 대체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는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을 부차적인 것들에 돌리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원초적 사역을 게을리하게 하여 세상의 복음화를 지연하고 주님의 재림을 연기시켜서 바닥없는 구덩이 속에 갇힐 자신의 멸망을 늦추는 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2.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수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계시록 20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선과 악 사이의 전쟁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읽을거리입니다. 사탄의 유혹에 따라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녀와 함께 아담도 먹었습니다.

이로써 타락이 이루어졌습니다. 약속된 씨, 즉 메시아의 탄생을 막기 위해 사탄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도록 합니다. 인류의 멸망을 가져오기 위해 그 뒤 사탄은 바벨탑의 건축을 제안합니다. 이로써 언어의 혼잡이 이루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과 사탄의 이 같은 대립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 보면, 우리는 사탄이 인류의 대속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꺾기 위해 갖은 술책을 부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가 왔을 때 헤롯을 시켜 두 살 아래의 베들레헴에 사는 사내아이를 모두 죽이게 한 자도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식으로 인해 약해진 그리스도를 시험하여 이기려 하고, 성전 꼭대기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직접 뛰어내리라고 제안한 자도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나사렛 언덕 꼭대기에서 성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밀로 던져 버리려고 시도한 것과 갈릴리 바다에서 두 번이나 폭풍이 일어난 것도 그리스도를 멸하려는 사탄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사탄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통한 싸움을 다시 시작했고 마침내 가롯 유다가 자기의 주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도록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다음 겟세마네의 어둠 속에서 그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직전에 육체적 연약함을 통해 그분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탄은 마침내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자 사탄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써서 사탄과 그의 천사들(마귀들)은 그리스도의 승천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실 기독교회의 역사는 사탄과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의 길고 긴 이야기입니다.

V. 사탄의 운명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사탄은 여전히 자신의 처소를 하늘에 속한 곳에 두고 있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에 속한 곳으로부터 쫓겨나 땅에 거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계12:9-12).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은 자신의 때가 단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노하게 되며 그의 분노로 말미암아 지구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때에 그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계13:2-8). 환난기의 끝에 이르러서 그의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사탄을 사로잡아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렁이 속에 던져 버릴 것입니다(계20:1-3).

천 년이 다 찰 즈음에 사탄은 잠시 동안 풀려날 것이지만 그는 곧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위해 오래전에 예비된 불 호수에 영원히 던져질 것입니다 (마25:41; 계20:7-10).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가 거하는 '시대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 천년 왕국 시대에 무저갱에 갇히는 사탄

사탄의 삼위일체

사도 요한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보고 그것을 묘사한 뒤에 다시 땅속에서 올라오는 다른 짐승을 보았습니다(계13:11-17). 비록 요한이 그 둘째 짐승을 어린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짐승은 마치 어린양같이 두 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어린양처럼 생긴 짐승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둘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흉내 내기 때문입니다. 어린양(그리스도)은 계시록에서 22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시록 5장 6절에서 묘사되어 있는 어린양은 일곱 뿔을 가진 어린양이지 결코 두 뿔을 가진 어린양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예수님과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사실 이 짐승은 어린양처럼 생겼지만 마치 용처럼 말을 합니다. <사탄의 삼위일체> 선도(363쪽)를 보기 바랍니다.

이 둘째 짐승은 이름을 가지고 있으며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 세 번이나 거짓 대언자라고 불렀습니다(계16:13; 19:20; 20:10). 세 번 중에서 그는 적그리스도인 첫째 짐승과 두 번 함께 나오며 한 번은 사탄인 용 그리고 첫째 짐승과 함께 나옵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이 인격체인 것처럼 거짓 대언자도 인격체입니다. 그가 거짓 대언자라고 불린 것으로 보아 그는 적그리스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에서 거짓 대언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마24:24).

여기에서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는 동일 인물이 될 수 없습니다. 둘째 짐승이 땅속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은 그가 부활한 인격체라는 것을

강력히 보여 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기에 두 증인, 즉 모세와 엘리야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사역에 대항하여 사탄도 지하 세계로부터 두 인격체를 올려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 짐승(적그리스도)과 둘째 짐승(거짓 대언자)이 둘 다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진다는 사실은 이들이 보통 사람 이상의 존재들이며, 특히 첫째 짐승은 다시 세워질 로마 제국을 통치할 마지막 황제 이상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보여 주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사실 그는 사탄의 조종을 받는 초인간, 즉 적그리스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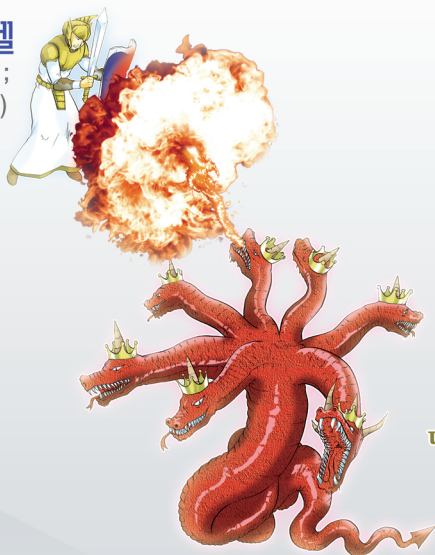
용과 짐승 그리고 거짓 대언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 낸 사탄의 삼위일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용은 아버지 곧 사탄이고 짐승은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용에게서 나와 이 세상에서 죽고 부활하여 자기 아버지인 용으로부터 왕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용 아버지와 용 아들에게서 나와 용처럼 말하는 대적하는 영입니다. 용은 대적하는 신이고 짐승은 대적하는 그리스도이며 거짓 대언자는 대적하는 영으로서 이 셋이 모두 불 호수에 산 채로 던져진다는 사실(계20:10)은 이들이 사탄의 삼위일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왕국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는 사탄이 그리스도께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이 세상의 왕국을 받아들일 것입니다(마4:8-10). 그는 또한 자기를 높이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살후2:4). 그러나 거짓 대언자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첫째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와 첫째 짐승과의 관계는 성령님과 그리스도와와의 관계와 동일합니다. 그는 땅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째 짐승을 숭배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그는 생명을 주는 권능을 가지고 있고 이 점에서 성령님을 흉내 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 안에서 봉인된 것처럼(엡4:30)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도 멸망의 날까지 거짓 대언자에 의해 봉인될 것입니다(계13:16-17).

거짓 대언자는 이적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적을 행하실 때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행10:38). 거짓 대언자가 행하는 이적 가운데는 아마도 하늘에서 불을 내려오게 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 기록된 두 증인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아마도 갈멜산에서 거짓 대언자들과 엘리야 사이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불 시험이 재현되어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신지, 적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지 가려내게 될 것입니다(왕상18:17-40). 거짓 대언자에게 이 같은 능력을 부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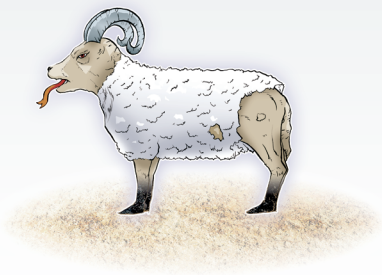
미가엘
(단12:1;
계12:7)



용
대적하는 신
(계12:7-17)

사탄의 삼위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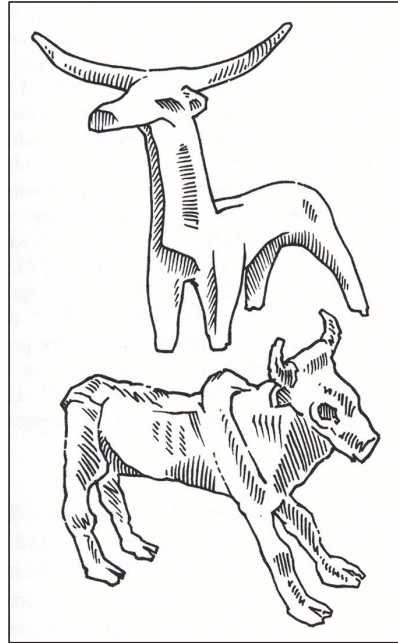
거짓 대언자
대적하는 영
(계13:11-17)



짐승
대적하는 그리스도
(계13:1-10)

사탄이 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욥기 1장 16절에서 확실히 드러납니다. 욥의 모든 소유물에 손을 대도 좋다는 허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사탄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 욥의 양과 종들을 태워 버렸습니다.

또한 거짓 대언자는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사람들에게 명령할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짐승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 주는 더 명확한 증거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진 최대의 취약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예로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세가 시내산으로 들어가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게 되자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했고 아론은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출32:1-6).



금송아지 우상들

마찬가지로 거짓 대언자도 사람들에게 경배의 목적으로 짐승의 형상을 만들도록 할 것입니다. 그 뒤 거짓 대언자는 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것이 말을 하게 만들 것이고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죽이도록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형상은 살아 있어 말을 하는 인조인간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도록 명령하여 바빌론 지방에 있는 두라 평원에 세운 금 신상을 상기시켜 줍니다(단3:1-30). 사람들은 명령을 받아 음악에 맞춰 신상에게 절을 해야 했으며 이에 복종하지 않으면 타오르는 풀무 불에 던져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의심의 여지없이 적그리스도의 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히브리 소년들, 즉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타오르는 불 속으로 던져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거짓 대언자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표를 받게 할 것이며, 이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할 것입니다(계13:16-17). 이 표는 바로 지옥의 도장입니다.



용광로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한 천사(단3:28)

지금의 세상은 이때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여러 종류의 신용 기관과 금융 연합체들이 하나의 신용 기관 연합체로 합병될 것이며 이 연합체의 우두머리는 금융계의 나폴레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신용 기관 연합체는 온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그것의 우두머리로 앉게 될 것입니다. 생산자나 소비자는 모두 이 악독한 문어의 발에 달린 흡입관 속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오른손이나 이마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됩니다. 아마도 이 표는 불로 낙인될 것이며 짐승의 숫자 곧 666이 될 것입니다. 이 666은 어떤 한 사람의 숫자로 완전한 7에서 조금 모자란 숫자입니다. 사람은 창조의 여섯째 날에 창조되었습니다. 사탄의 예표로 하나님의 백성을 억누른 골리앗은 그 키가 6큐빗이었으며 6개로 된 갑옷을 입었고 그의 창 무게는 600세겔이었습니다(삼상17:4-7). 짐승의 형상을 예표로 보여 주는 느부갓네살의 금 신상은 높이가 60큐빗, 너비가 6큐빗이었고 6개의 악기가 경배하는 자들을 소집했습니다(단3:1-7).

환난기에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없이 이마나 오른손 안에 그 표를 받으려 할 것입니다. 그래야 수표를 쓰며 서명을 하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공공장소에는 짐승의 표가 없이 물건을 사거나 파는 것을 감시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표는 또한 남녀에게 모두 적용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형이라는 형벌하에서 감히 이 표가 없는 사람에게서 사거나 팔지 못할 것입니다.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때가 참으로 무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표가 없이 사거나 팔 수 없다면 그들은 구걸을 하든지 굶든지 혹은 죽임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때의 사형 도구는 목을 자르는 단두대가 될 것입니다(계20:4). 일간 신문에는 두려움을 갖게 하여 사람들을 법에 복종하게 하려고 전날 목이 잘린 사람들의 명단이 실릴 것입니다.

사탄의 삼위일체의 끝은 다음과 같습니다. 7년 환난기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이 있고 이와 동시에 사탄, 즉 대적하는 신은 바다없는 구덩이 속으로 떨어져 1,000년 동안 거기서 지낼 것이고(계20:1-3), 짐승 곧 대적하는 그리스도와 거짓 대언자, 즉 대적하는 영은 산 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입니다(계19:20). 예녹과 엘리야 이 두 명의 선한 사람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지만 짐승과 거짓 대언자라 불리는 이 두 명의 악한 자들은 죽지 않고 불 호수로 던져질 것입니다.



병거를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